

GPCI를 통해 본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

Diagnosis of Suwon City's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using Global Power City Index

김도훈

연구요약

연구목적

- 최근 국내외 주요 도시는 해당 도시의 이해, 자치역량 및 지역 내 자원에 대한 진단, 미래 발전방향 설정, 전략적 추진사업 발굴 등을 위해 ‘도시경쟁력’ 평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됨
- 수원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빛정책과 함께 “기업 및 사람을 끌어들이 수 있는 힘을 갖춘 수원시”를 시정목표로 하여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수원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새빛정책을 추진 중이나 저성장의 초입단계에서 정책 방향을 글로벌 도시에 포커스를 맞춰야만 도시경쟁력 확보 가능
- 본 연구는 모리기념재단의 GPCI(Global Power City Index) 평가 방식을 수원시에 적용하고,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심층 진단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분야에 대한 도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

주요 내용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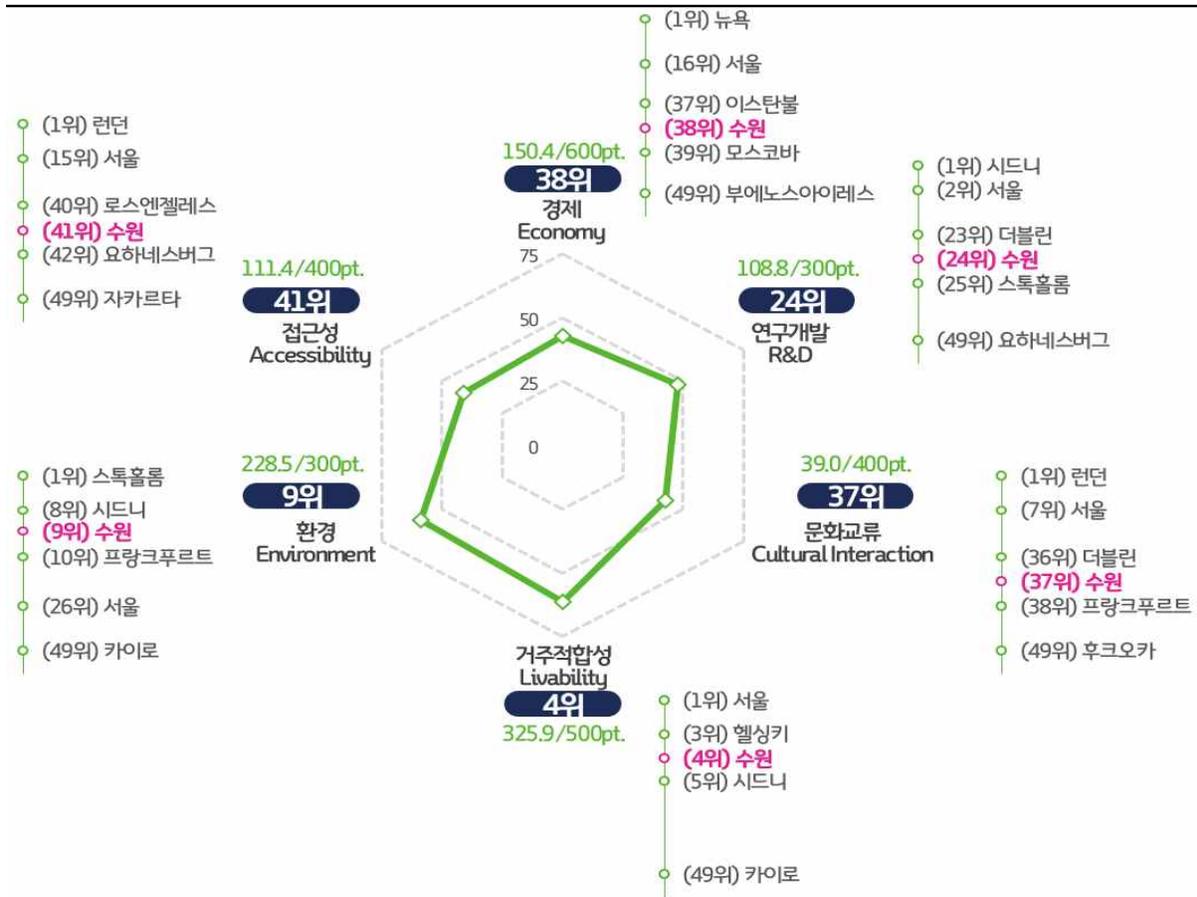
- 수원시 도시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선정 및 평가방법 설정
 - (모리재단) 6개 분야, 26개 항목, 70개 지표 → (본 연구) 6개 분야, 25개 항목, 47개 지표
 - 모리재단 출처 적용 가능지표 24개, 대체가능지표 23개, 구득불가 지표 23개
 - GPCI 체계에서 수원시의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현재 수원시의 도시경쟁력 수준을 단계별로 분석 (종합분석 → 분야별 → 항목별 → 지표별 도시 경쟁력 분석)
- (종합경쟁력 평가) 수원시의 도시 경쟁력은 963.9점(평균 1,039.8점)으로 49개 글로벌 도시 중에서 32위에 해당
 - 수원시를 포함한 총 49개 글로벌 주요도시의 종합경쟁력은 2,500점 만점에 평균 1,039.8점
 - 49개 도시 중에서 런던이 가장 높은 도시경쟁력(1,600.6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어서 도쿄(1,470.4점), 뉴욕(1,427.8점), 파리(1,343.3점), 서울(1,327.4점) 순

GPCI를 통해 본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

- 수원시와 비슷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30위 토론토(1,034.0), 31위 오사카(1,018.5점), 33위 베이징(954.4점), 34위 이스탄불(953.9점) 순

□ (6개 분야별 도시 경쟁력 평가) 거주적합성 분야의 도시경쟁력은 4위로 가장 높고, 접근성 분야는 41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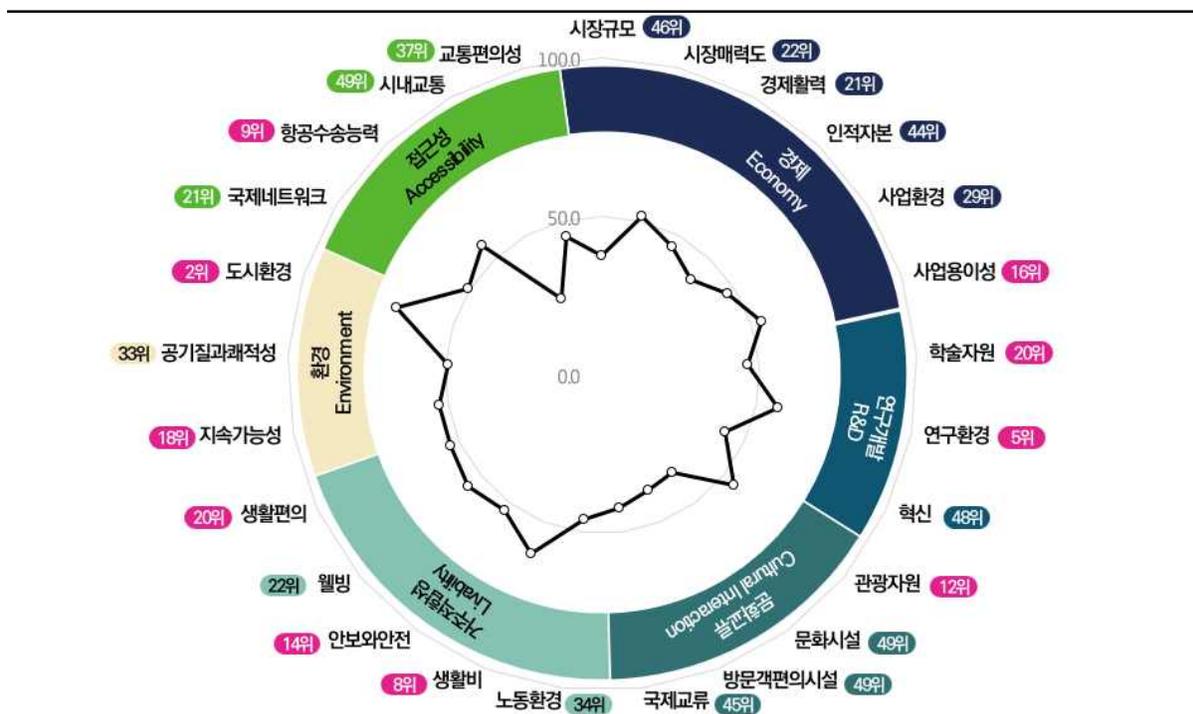
- 경제 분야 38위, 연구개발 24위, 환경 9위, 문화교류 분야 37위 기록



□ (25개 항목별 도시경쟁력 평가) 49개 도시 중에서 20위 안에 포함된 평가항목 10개 선정

- 경제 : “사업용이성” 69.6점(평균 63.2점)으로 16위
 - 사업용이성 항목은 법인세율과 정치·경제·사업 위험도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수원시는 16위로 높아 기업진입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
- 연구개발 : “학술자원” 16.7점(평균 24.3점)으로 20위, “연구환경” 92.2점(평균 79.8점)으로 5위
 - 학술자원 항목 지표인 세계최고 대학 순위에 성균관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등이 포함되어 수원시가 20위로 평가됨
 - 연구 환경과 혁신 항목에서는 연구 환경은 5위로 매우 뛰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혁신 점수는 48위로 상대적으로 낮음

- 문화교류 : “관광자원” 38.5점(평균 27.7점)으로 12위
 - 문화교류 분야의 관광자원 항목 중 수원화성 등 세계문화유산 접근성 지표에서 1위 차지
- 거주적합성 : “생활비” 82.7점(평균 56.8점)으로 8위, “안보와 안전” 98.5점(평균 94.1점)으로 14위, “생활편의” 51.9점(평균 45.4점)으로 20위
- 환경 : “지속가능성” 52.8점(평균 46.0점)으로 18위, “도시환경” 99.8점(평균 58.7점)으로 2위
- 접근성 : “항공수송능력” 40.2(평균 28.8)으로 9위



□ 수원시 도시경쟁력 강·약점 분석

- 수원시의 항목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결과 25개 항목 중에서 강점 항목은 9개, 보통 항목은 6개 그리고 약점 항목은 10개
 - (강점 항목) 경제 분야에서 “사업용이성”, 연구개발 분야에서 “연구환경”, 문화교류 분야에서 “관광자원”, 거주적합성 분야는 “생활비”, “안보와 안전” 그리고 “생활편의”, 환경 분야는 “지속가능성”과 “도시환경”, 접근성 분야에서는 “항공수송능력” 선정
 - (약점 항목) 경제 분야에서 “시장규모”, “경제활력”, “인적자본”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혁신”, 문화교류 분야는 “문화시설”, “방문객 편의시설” 그리고 “국제교류” 이외에도 거주적합성 분야에서 “노동환경”과 접근성 분야에서 “시내교통” 및 “교통편의성” 선정
- 수원시의 지표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결과 47개 지표 중에서 강점 지표 12개, 보통 지표 12개 그리고 약점 지표 23개

□ 수원시 강·약점 지표에 대한 정책 및 관리 방향 제시

- (정책방향) 수원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GPCI 평가 지표 중 수원시의 강점 지표는 유지하면서 약점 지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경제 분야 : 경제적 자유도 향상 필요 (규제완화 → 다양한 산업과 기업유치 → 직업선택 기회 제공)
 - 연구개발 분야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대학 및 연구소 간의 연구협력 벨트를 구축 → 지역 내 우수인력 확보 → 공공 및 민간투자 확대 → 혁신적인 연구개발 장려)
 - 문화교류 분야 : 수원 특색에 맞는 시설 확대 및 브랜드 개발 (대형쇼핑몰 유치는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쇼핑 및 식당시설 확대 → 수원3대 축제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 매력도 향상 → 관광객 증가 → 국제적 인지도 강화), 수원컨벤션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 비즈니스 및 문화 교류를 위한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 거주적합성 분야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ICT 보편화 (AI 행정보조 인프라 등을 구축 →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환경 확대)
 - 환경 분야 : 수원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적극 추진 (자원순환역 등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확대 구축 → 재활용률 향상 → 수원천, 원천천 등의 지역 특성을 도시계획단계부터 반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 접근성 분야 : 수원버스터미널을 연계한 국내 국제공항과의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확보
- (지표관리) 수원시의 단독 의사결정으로 “통제가 가능한 지표”, 수원시 단독으로 통제·관리가 어려우나 부분적인 책임 및 인접 지자체/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개선이 가능한 지표”, 수원시의 통제·관리 영역 밖이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관심 지표”로 구분하여 관리
 - “통제가 가능한 지표” : 관광명소, 야간활동선택, 박물관 수, 경기장 수, 수질, 도심부 녹피현황 등, ICT 준비도, 세계문화유산접근성 등
 - “개선 가능한 지표” : 스타트업 수, 호텔객실수, 쇼핑·식당 만족도, 외국인거주가수, 해외방문객수, 재생에너지비율, 대중교통이용율, 철도역밀도, 택시·자전거 이용 편의성, 살인건수, 기대수명, 재활용비율, 공항승객수, 세계 500대 기업수, 법인세율, 세계최고대학, CO2배출량, 통근시간, 평균주행속도 등
 - “관심 지표” : GRDP, 증권거래소의 주식시가 총액, 종사자수, 실업률, 의사수, 공기질, 공항까지의 거리, 주택임대료, 물가수준, 경제자유도, 학업성취도, 평균임금수준 등

강점		보통		약점	
분야	지표	분야	지표	분야	지표
경제	경제자유도 관심	경제	세계상위 500대 기업 수 개선 평균임금수준 관심 업무환경 선택의 다양성 개선 법인세율 개선 정치, 경제 사업 위험도 관심	경제	GRDP 관심 1인당 GRDP 관심 GRDP 성장률 관심 증권거래소 주식시가총액 관심 종사자 수 관심
연구개발	학업성취도 관심	연구개발	세계 최고 대학 개선	연구개발	스타트업 수 개선
문화교류	세계문화유산 접근성 통제	문화교류	고급호텔 객실 수 개선	문화교류	관광명소 통제 야간활동 선택 통제 박물관 수 통제 경기장 수 통제 호텔의 객실 수 개선 쇼핑만족도 개선 식당만족도 개선 외국인 거주자 수 개선 해외 방문객 수 개선
거주적합성	주택임대료 관심 물가수준 관심 살인건수 개선 기대수명 개선 ICT준비도 통제	거주적합성	사회 자유 및 형평성 관심	거주적합성	실업률 관심 의사 수 관심
환경	재활용비율 개선 수질 통제 도심부의 녹피현황 통제	환경	1인당 CO ₂ 배출량 개선	환경	재생에너지 비율 개선 공기질 관심
접근성	공항 승객 수 개선	접근성	국제선 여객기편수 관심 통근시간 개선 평균주행속도 개선	접근성	철도역 밀도 개선 대중교통 이용률 개선 공항까지의 거리 관심 택시·자전거이용 편의성 개선

	통제 수원시가 "통제가 가능한 지표"
	개선 수원시와 중앙 또는 민간에서 함께 한다면 "개선이 가능한 지표"
	관심 수원시의 통제관리 영역 밖이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표"

정책제언

- 글로벌 도시경쟁력 연구전담 조직 신설(가칭) 수원시 도시경쟁력 강화 TF)
 -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 주관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 생성 및 관리 전담조직 구성
 - 수원시정연구원 :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 지속적인 생성 및 업데이트
 - 수원시 정책기획과 : 수원시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 관리 및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우선 시행
- 강·약점 지표를 고려한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 수원시는 거주 적합성과 환경에서 나타나는 강점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 문화교류 및 접근성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 도시경쟁력 강점 측면 : 수원을 살기 좋은 도시, 거주가 편한 도시, 쾌적한 도시 등 도시 브랜드 강화 방안 필요
 - 도시경쟁력 약점 측면 :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한 대규모 공간 대전환 필요
- JPCI를 통해 본 수원시 성장잠재력 진단 및 도시전략 마련
 - 수원시는 사람, 기업,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힘'과 해당 도시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성장 잠재력' 유지 필요
 -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JPCI 평가체계를 국내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의 강·약점에 대한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원시의 성장 잠재력을 도출

주제어: 수원시, 도시경쟁력, GPCI (Global Power City Index)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2장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 설정

제1절 GPCI 평가체계 분석	11
제2절 수원시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 설정 및 순위 결정 방법 ..	23

제3장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

제1절 수원시 도시경쟁력 진단	29
제2절 수원시 도시경쟁력 강점·약점 분석	43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51
제2절 정책제언	53

부록 부록

부록 I 항목별 도시경쟁력 순위	59
부록 II 지표별 도시경쟁력 순위	72

표차례

표 1-1 국내외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6
표 2-1 모리기념재단의 GPCI 지표	13
표 2-2 GPCI 지표 구득여부 검토 결과	24
표 3-1 분야별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 및 표준점수	36
표 3-2 항목별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 및 표준점수	41
표 3-3 지표별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 및 표준점수	42
표 3-4 수원시 항목별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점과 약점	43
표 3-5 수원시 분야별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점과 약점	45

그림차례

그림 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49개 도시)	7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8
그림 2-1 GPCI 글로벌 도시경쟁력 종합순위 산정 방식	12
그림 3-1 글로벌 도시경쟁력 종합순위	31
그림 3-2 6개 분야별 도시경쟁력 순위	32
그림 3-3 분야별 수원시 도시경쟁력 진단	35
그림 3-4 항목별 수원시 도시경쟁력 진단	41
그림 3-5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점과 약점 진단	47
그림 4-1 JPCI 평가 항목	5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수원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빛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 중
 - 새빛정책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
 -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기회 부족, 시민의견 수렴 채널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새빛톡톡” 정책 수행
 -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새빛하우스” 정책 수행
 - 그동안 취약계층에 한정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확대하고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빛돌봄” 정책 수행
 - 이외에도 새빛민원실, 새빛세일페스타 등 다양한 새빛정책을 추진 중
- 수원시의 새빛정책을 통해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주거 문제 : 주택 가격의 급등과 공급 불균형은 주택시장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해결에 한계
 - 교통 혼잡 :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저조,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으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교통혼잡 문제
 - 환경 문제 : 도시화에 따른 녹지 공간 감소 추세, 대기 오염 및 수질 오염 문제는 산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제 성장과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
 - 사회적 불평등 : 소득 격차, 교육 기회 불균형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이로 인한 범죄율 증가 문제
 - 인프라 노후화 : 오래된 도로, 건물, 상하수도 시스템 등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 발생 및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한 대응 체계 부족 문제

4 • GPCI를 통해 본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

- 문화적 갈등 : 최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화됨에 따라 문화적 갈등이나 사회적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포용성 확보의 어려움
- 무엇보다도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유치를 위한 도시 간 경쟁 심화
 - 기업 유치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 주민들 소득 증가
 - 기업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세수가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공공 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
 - 다양한 산업 유치는 지역 경제 구조를 다양화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 감소에 기여
 - 성공적인 기업 유치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력과 혁신성 향상
-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자체에게 있어서 기업유치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대안
- 국내외 주요 도시는 해당 도시의 이해, 자치역량 및 지역 내 자원에 대한 진단, 전략적 추진사업 발굴, 미래 발전방향 설정 등을 위해 ‘도시경쟁력’ 평가가 중요한 과제
 -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인재 확보, 관광 산업 발전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

2. 연구 목적

- 수원시는 현재 추진 중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빛정책과 함께 “사람, 기업,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힘을 갖춘 수원시”를 시정목표로 하여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시기 도래
 -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초광역 생활권의 중심도시,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도시들과 비교하여 수원시의 도시경쟁력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에서 도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나 평가 목표와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각 평가체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원시의 도시경쟁력 평가 목표와 방향 설정이 중요
 - 수원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새빛정책을 추진 중이나 저성장의 초입단계에서 정책 방향을 글로벌 도시에 포커스를 맞춰야만 도시경쟁력 확보 가능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리기념재단의 GPCI(Global Power City Index) 평가 방식을 수원시에 적용하고,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심층 진단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분야에 대한 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 Kearney의 Global Cities Index의 평가체계는 주로 기업 입지 환경측면에서 주요도시의 세계화 수준을 평가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한 관광, 교통인프라, 도시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지표가 부재한 실정임
 - 이외의 평가체계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만을 평가, 외국기업의 입지환경 및 주재원의 생활편의 등의 측면에 한정하여 평가
 - 본 연구는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사람, 기업, 자본을 끌어들이는 힘'의 보유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GPCI의 평가체계를 적용하고자 함
 - GPCI(Global Power City Index, 일본 모리재단)는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도시의 종합력을 평가·분석하여 순위를 부여하는 조사 연구

표 1-1 | 국내외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구분(지수명)	주관기관	평가체계	평가목표
Global Power City Index	모리기념재단	- 6개 분야 70개 지표 / 48개 도시/ 매년 ·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적합성, 환경, 접근성	전 세계의 사람, 기업, 자본을 끌어들이는 종합적인 힘을 지표화하여 평가
Global Cities Index	Kearney	- 5개 분야 29개 지표 / 150개 도시 / 매년 · 기업활동, 인적자본, 정보교류, 문화체험, 정치참여	주요 도시의 세계화 수준을 평가
Global Cities Outlook	Kearney	- 4개 분야 13개 지표 / 156개 도시/매년 · 개인 삶의 질, 경제, 혁신, 거버넌스	개인 웰빙, 경제, 혁신, 거버넌스의 네 영역으로 도시의 미래 잠재력 평가
Cities of Opportunity	PwC(PricewaterhouseCoopers, 영국)	- 10개 분야 67개 지표 / 27개 도시/ 매년 · 지적자본과 혁신, 기술준비 수준, 보건위생·안전 및 보안, 교통 및 사회인프라, 지속가능성, 경제적 영향력, 친기업환경, 비용, 인구통계와 거주환경, 관문도시	도시를 활성화하는 주요 요소 측정
The Global Liveability Index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	- 5개 분야 30개 지표 / 172개 도시 / 매년 · 사회안전, 의료서비스, 문화환경, 교육, 기반시설	기업체의 원격지 근무자 파견수당 선정 기준 및 발전단계의 벤치마킹 대상 등으로 활용
Quality of Living City Rankings	Mercer 컨설팅 그룹	- 10개 분야 39개 지표 / 221개 도시 / 매년 · 정치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의료 및 보건위생, 교육환경, 공공서비스 및 교통, 휴식제공, 소비재, 주거환경, 자연환경	글로벌 기업 주재원의 파견수당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Better life Initiative	OECD	- 11개 분야 24개 지표 / OECD국가 / 매년 · 주거, 소득, 일자리, 커뮤니티,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생활만족도, 치안, 일과 생활의 조화	경제발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강조하고 측정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지엔컨설팅(Z/Yen, 영국)	- 5개 분야 101개 지표 / 87개 도시 / 연2회 · 기업환경, 금융섹터개발, 인프라, 인적자본, 위상 및 일반적 요소	금융과 관련된 도시의 역할을 토대로 지표를 산출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유엔해비타트/중국사회과학원	- 10개 분야 59개 지표 / 1,000도시 이상/매년 · 지속가능 및 경제경쟁력 분야	도시 지속 가능 경쟁력의 관점에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측정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ex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 13개 영역, 33개 분야, 80개 지표/ 국내 / 매년 ·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분야	국내 대상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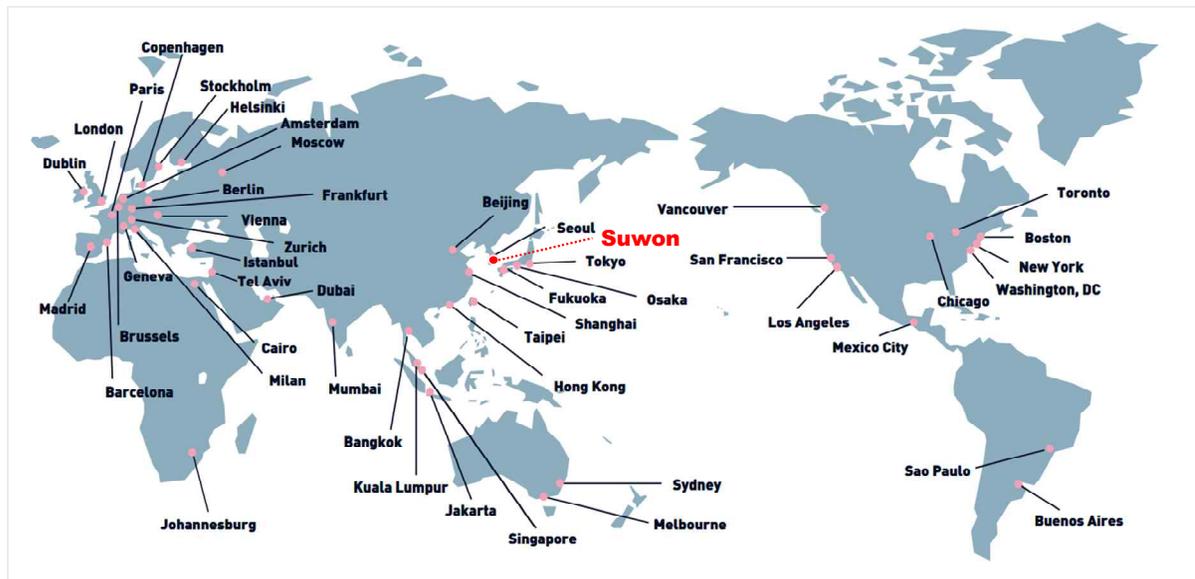
주 :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분석, 서울연구원, 2013」과 「도시경쟁력 진단을 통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 : 서울, 베이징, 도쿄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021」 및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
 - 공간적 범위는 GPCI에서 다루고 있는 48개 도시와 수원시를 포함하여 총 4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그림 1-1과 같음
 - 시간적 범위는 2023년 기준으로 설정하되 GPCI 도시 경쟁력 평가에 활용된 지표를 대상으로 가급적 최신자료를 활용함
 - 내용적 범위는 GPCI 도시경쟁력 평가체계를 검토 후 구득 가능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수원시와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을 GPCI 평가체계를 준용하여 비교·분석함
- 분석 자료는 기존 GPCI 대상 도시들과 동등한 비교를 위해 모리재단의 「Global Power City Index, YEARBOOK 2023」의 도시별 자료 수집 방법 준용
 - GPCI의 자료수집 방법론을 준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자료가 구득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 지표로 대체하여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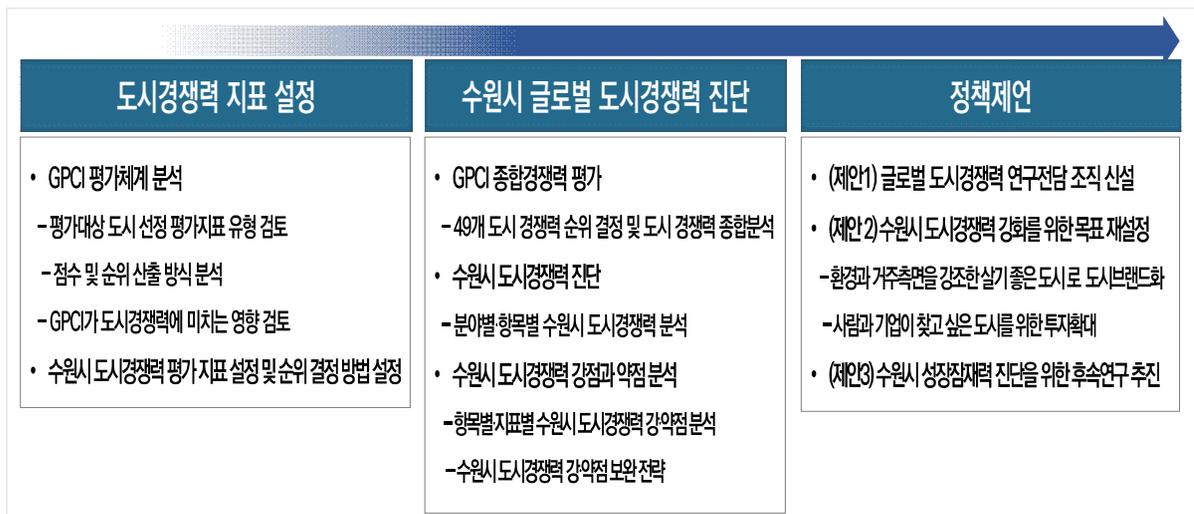
그림 1-1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49개 도시)



2.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수원시를 포함한 전 세계 49개 도시를 대상으로 GPCI 평가체계에 따라 수원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진단하여 수원시의 강·약점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제안
-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서론”에서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이슈와 함께 수원시가 기업과 사람에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한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을 설정함
 - “제2장 도시경쟁력 지표 설정” 부분은 기존의 GPCI 평가체계를 검토하여 수원시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도시와의 경쟁력 순위 결정 방법을 제안함
 - “제3장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에서는 수원시의 종합적인 도시경쟁력 점수를 산출하여 다른 도시와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가 도시경쟁력의 취약점을 도출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함
 -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본 연구 결과 및 한계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수원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함

그림 1-2 | 연구의 흐름도



제2장

도시경쟁력 평가지표 설정

제1절 GPCI 평가체계 분석

제2절 수원시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 설정 및 순위 결정 방법

제2장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 설정

제1절 GPCI 평가체계 분석

1. GPCI 평가 대상도시

- GPCI의 평가대상 도시는 아래 세 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 기준 이상 충족 시 선택
 - 첫째, 글로벌 도시 지수(GCI; Global Cities Index), 기회 도시(Cities of Opportunity), 글로벌 금융 센터 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등 도시경쟁력 부분에서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
 - 둘째,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등 널리 인정받는 국제 경쟁력 순위에 근거하여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주요 도시
 - 셋째,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GPCI 집행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포함하기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도시
 - 서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정기준에 해당되며, 일부도시는 위의 세 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데이터를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GPCI 평가지표

- GPCI의 도시경쟁력 평가는 2023년 기준 글로벌 48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6개 분야(Function), 26개 항목(Group), 70개 지표(Indicator)를 통해 평가
- GPCI는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의 관점을 평가에 포함하기 위해 전 세계 전문 파트너로부터 면밀한 사전검토 절차 포함
 - 순위 생성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명의 제3자 피어 리뷰어가 내용을 검증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 제공
- 전문가(Global Actors) 집단 평가를 통해 지표별 별도 평가
 - 기업임원, 관련분야 전문가, 여행가, 해당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 추출

3. GPCI 점수 산출

- GPCI 점수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표준화, 점수 산출의 3단계로 이루어짐
 - 데이터 수집은 수치에 근거한 정량적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데이터로 구분
 - 설문조사의 경우 9개 지표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 18세 이상 거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데이터 표준화는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0~100점 단위로 지수화
 - 일반적인 지표의 경우 해당 도시의 지표 성과가 좋을 경우 100점에 가까우며, 공기오염이나 위험도와 같이 상반되는 경우 0에 가까울수록 지표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
 - 점수 산출의 경우 70개 지표에 해당하는 상위 26개 지표 그룹 각각 평균값을 산출하고, 그룹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대상 도시의 종합 점수를 최종적으로 산출
- 전문가 집단 평가를 통해 지표별 별도 평가
 - 기업임원, 전문가, 여행가, 해당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 추출
 - 각 분야별 전문가마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에 5점을 부여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표에는 1점을 부여
 - 순위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선택된 지표에는 5를 곱하고, “중요하다”고 선택된 지표는 1을 합산하여 결정

그림 2-1 | GPCI 글로벌 도시경쟁력 종합순위 산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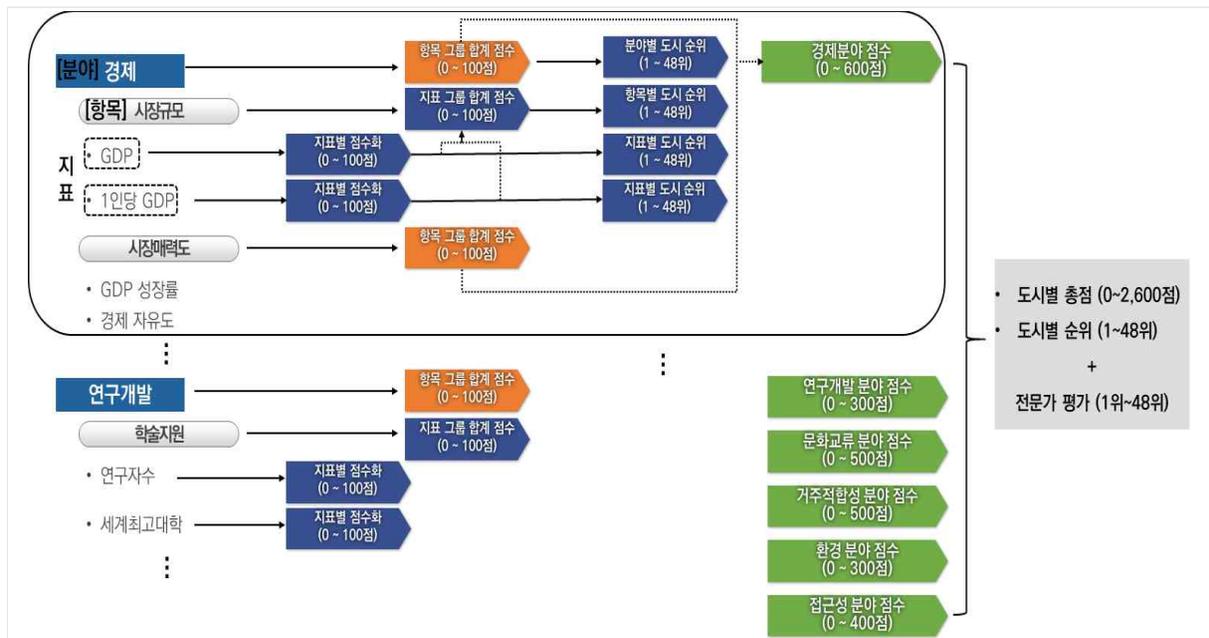


표 2-1 | 모리기념재단의 GPCI 지표

분야	항목	연번	지표	지표 설명
경제	시장규모	1	GDP	대상 도시의 명목 GDP
		2	1인당GDP	대상 도시의 1인당 명목 GDP
	시장매력도	3	GDP 성장률	지난 5년간 대상 도시의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CAGR)
		4	경제자유도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에서 대상 도시가 위치한 국가 점수
	경제활력	5	증권거래소의 주식시가 총액	세계거래소연맹의 "국내"에서 대상 도시에 위치한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6	세계상위 500대 기업 수	Fortune지의 "Fortune Global 500"에 포함된 대상 도시 중심에 서 20km 이내에 위치한 기업의 총점 (수익으로 결정)
	인적자본	7	종사자 수	대상 도시의 총 종사자수
		8	비즈니스 서비스업 종사자 수	금융, 보험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과학 기술 서비스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대상 도시의 직원 비율
	사업환경	9	평균임금수준	Numbeo의 "생활비"에서 대상 도시의 "월 평균 순 급여(세후)"
		10	우수한 인재확보의 용이성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INSEAD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 지수"에서 인력 확보 용이성과 관련된 대상 도시 국가의 8개 지표 평균, (2) 2개 지표의 평균 INSEAD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 지수 - 도시 및 지역"의 인력 확보 용이성과 관련된 대상 도시의 점수, (3) EF Education First의 "영어 능력 지수"의 대상 도시의 점수
		11	업무선택의 다양성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Coworker.com에 따른 대상 도시에 위치한 공동 작업 시설 수, (2) Ookla의 Speedtest.net에서 생성된 고정 광대역 속도
	사업용이성	12	법인세율	PwC의 "법인 소득세(CIT) 서울"에 포함된 대상 도시 또는 대상 도시 국가의 표제 법인세율
		13	정치경제사업 등의 위험도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에서 대상 도시 또는 대상 도시 국가의 사업 용이성과 관련된 10개 지표의 평균, (2) Moody's 장기 대상 도시 국가의 외화 위험 한도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
R&D (연구개발)	학술자원	14	연구자 수	대상 도시의 연구자 수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의 "UIS 통계"에서 해당 국가 및 대상 도시의 직원 수에 비례하여 추정
		15	세계최고대학	타임즈 고등교육의 '세계 대학 순위' 상위 1000위권 내 대상 도시 중심에서 50km 이내에 위치한 대학 순위로 순위 점수를 결정
	연구환경	16	연구개발비	대상 도시 국가의 연구 개발 지출은 유네스코 통계 연구소의 "UIS 통계"에 나열된 국가 및 대상 도시의 직원 수에 비례하여 추정
		17	외국인 학생 수	Times Higher Education의 '세계 대학 순위' 상위 1000위권에 포함된 대상 도시 도심에서 50km 이내에 위치한 각 대학의 학생 수와 유학생 비율로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수 추정
		18	학업성취도	OECD의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에서 대상 도시 국가의 모든 과목의 평균 점수
	혁신	19	특허건수	등록된 특허 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WIPO IP 통계 데이터 센터"의 지난 10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국가 및 대상 도시의 직원 수에 비례하여 추정
		20	과학기술상 수상자 수	해당 도시의 도심부에서 50km 반경 내 위치한 대학 또는 연구소를 기준으로 최근 20년간 주요 과학기술 관련 상(노벨상, 발간상, 크래프트

분야	항목	연번	지표	지표 설명
				상, 내빈인상, 필즈상 수상자 수에 따라 대상 도시에 부여되는 총점 점수는 수상 연도를 기준으로 기중
		21	스타트업 환경	Crunchbase 기준 지난 3년간 대상 도시에 설립된 평균 스타트업 수
문화 교류	유행을 선도하는 잠재력	22	국제컨벤션 개최 건수	국제협회연맹의 '국제회의 통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 도시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횟수
		23	세계주요 이벤트 개최 건수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지난 20년 동안 올림픽, 세계 박람회, FIFA 월드컵 등 글로벌 이벤트를 개최한 대상 도시의 규모 및 개최 연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 수 (2) Columbus Travel Media의 "World Travel Guide"에 지난 3년간 대상 도시에서 개최된 이벤트의 평균 횟수
		24	문화콘텐츠 수출가치	다음 데이터의 평균(가중치 1:2): (1) 국제 무역 센터의 "국제 무역"에 따라 국가 및 대상 도시의 GDP 비율에 비례하여 추정된 인쇄 도서 및 광학 매체의 수출 가치 통계, (2) 시장각 및 관련 서비스의 수출 가치는 국제 무역 센터의 '국제 무역 통계'에 따라 국가 및 대상 도시의 GDP 비율에 비례하여 추정
		25	미술시장 환경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점수 Artprice.com의 "경매 상위 500 아티스트"에서 1년간의 총 판매량(매출액)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 생존 작가 중 대상 도시에 기반을 둔 현대 작가 순위로 결정, (2) Artnet.com의 "갤러리 네트워크"에 나열된 아트 갤러리 수, (3) Artsy.net에 나열된 "작품 위치"로 검색된 작품 수
		26	관광명소 ※설문조사 포함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TripAdvisor에 리뷰가 100개 이상 등록되어 있고 대상 도시 중심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관광 명소의 수, (2) 외국인 방문객이 방문하는 데 필요한 여행일수(주민 설문)
	관광자원	27	세계문화유산 접근성	대상 도시 중심에서 100km 이내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총점을 부여
		28	야간활동선택 ※설문조사 포함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TripAdvisor에 10개 이상의 리뷰가 포함된 유흥 명소 수, (2) 대상 도시를 방문하는 주요 이유 야간활동(관광)(주민 설문 조사)
		문화시설	29	극장·콘서트홀 수
	30		박물관 수	De Gruyter Saur의 "세계 박물관"에 등재된 박물관의 수
	31		경기장 수	10,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월드컵 스타디움에 등재된 경기장의 수(대학 경기장 및 기타 교육시설 제외)
	방문객 편의 시설	32	호텔의 객실 수	Hotels.com에 표시된 도심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호텔 객실의 총 개수
		33	고급호텔 객실 수	Hotels.com에 표시된 도심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5성급 호텔 객실의 총 개수
		34	쇼핑 만족도 ※설문조사 포함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TripAdvisor에 나열된 대상 도시에 위치한 모든 상점 및 쇼핑물에 대한 평점의 총 값, (2) 대상 도시를 방문하는 주요 이유인 쇼핑의 영향 수준(주민 설문조사)
		35	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포함	다음 데이터의 지수 값의 평균: (1) La Liste의 "세계 1000대 레스토랑"에서 대상 도시의 도심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레스토랑

분야	항목	연번	지표	지표 설명	
거주적합성	국제교류			랑의 수, (2) 전공자로서 요리 또는 식사의 영향 수준 및 대상 도시 방문 이유(주민 설문지)	
		36	외국인 거주자 수	대상 도시의 국가에 등록된 외국인 또는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의 수	
		37	해외 방문객 수	대상 도시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	
	노동환경	38	실업률	대상 도시의 총 실업률	
		39	1인당 총 근로시간	대상도시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40	업무방식의 유연성 ※설문조사 포함	대상 도시의 직장에서 유연근무(설문조사)	
	생활비	41	주택임대료	Numbeo의 "생활비"에서 대상 도심과 도심 외부에 위치한 1~3개 침실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	
		42	물가수준	Expatisan.com의 4개 품목(식품, 의료, 교통, 개인 관리) 가격을 기준으로 지수화된 점수	
	안보와 안전	43	살인건수	대상 도시의 인구 100만 명당 연간 살인 건수	
		44	자연재해의 경제위험	Lloyd의 "Lloyd's City Risk Index"에서 "위험에 처한 GDP"에 대한 평균 연간 GDP 비율	
	웰빙	45	기대수명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통계에 등재된 대상 도시 국가의 평균 기대수명	
		46	사회 자유 및 형평성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나열된 대상 도시 국가의 점수, (2) Freedom House의 "Freedom in the World", (3) 국경 없는 기자회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 등재된 대상 도시 국가 점수, (4) 세계경제포럼 'Global Gender Gap Report'에 등재된 대상 도시 국가 점수	
		47	정신건강 위험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보건 추정치"에 나열된 대상 도시 국가의 후천적 정신 질환만을 기준으로 한 색인 점수 YLD(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손실된 연수)의 총 값, (2) 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보건 관측소"에서 대상 도시 국가의 인구 100,000명당 자살률	
	생활편의	48	의사 수	인구 100만 명당 의사 수는 OECD의 "보건 통계"와 WHO의 "Global Health Observatory"에 등재된 국가의 평균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 및 대상 도시의 직원 수를 비례하여 추정	
		49	ICT 준비도	Portulans Institute의 "Networked Readiness Index"에서 주민, 기업 및 정부 서비스를 위한 ICT 인프라와 관련된 대상 도시 국가의 29개 지표에 대한 지수 점수	
		50	소매점 수 ※설문조사 포함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대상 도시 중심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OpenStreetMap에 나열된 소매점 수, (2) 대상 도시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한 소매점 수(주민설문)	
		51	식당 수 ※설문조사 포함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대상 도시 중심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OpenStreetMap에 나열된 레스토랑 수, (2) 대상 도시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한 레스토랑 수(주민설문)	
	환경	지속가능성	52	기후변화의 책임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유엔 기후 변화 기본 협약의 "기후 행동을 위한 비국가 행위자 구역(NAZC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상 도시의 이니셔티브 참여 수, (2) 대상도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준연도부터 목표연도까지의 연수로 나눈 비율

분야	항목	연번	지표	지표 설명	
공기질과 쾌적성		53	재생에너지 비율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재생 에너지"에 등재된 대상 도시 국가의 전체 1차 에너지 공급 대비 사용된 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54	재활용 비율	OECD의 '환경통계'와 UN통계국의 '환경지표'에 등재된 대상 도시의 국가에서 재활용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평균 비율	
	공기질과 쾌적성	55	1인당CO ₂ 배출량	CO ₂ 배출량은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연료 연소로 인한 CO ₂ 배출량"에서 국가 및 대상 도시의 GDP 비율을 도시 인구조로 나눈 비율로 추정	
		56	공기질	IQAir의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PM2.5)" 대상 도시의 연간 평균 PM2.5 농도	
		57	적정온도 수준	Raspisaniye Pogodi Ltd.의 "세계 날씨"의 기상 데이터에서 계산된 대상 도시의 온도가 이상적인 온도 범위(15~25°C)에서 벗어난 3년 평균량	
	도시환경	58	수질	Numbeo의 "오염"에서 대상 도시의 "수질" 점수	
		59	도심부의 녹피상황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Numbeo의 "Pollution"에서 대상 도시에 대한 "Quality of Green and Parks" 점수, (2) 위성영상을 기초로 추계한 대상 도시의 녹피비율	
		60	도시청결함 만족도 ※설문조사 포함	대상 도시의 거리 및 야외 공간의 청결도(주민과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	
	접근성	국제네트워크	61	국제선 여객 직항편 취항도시 수	OAG의 "Schedule Analyser"에 인용된 직항 정기 여객 항공편이 대상 도시의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도시의 수
			62	국제선 화물 물동량 (항만, 공항)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American Journal of Transportation의 "AJOT's Top 100 Containerports A to Z"에 인용된 대상 도시의 항만 화물, (2) 대상 도시의 공항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 협회회의 "Annual Traffic Data" 인용
항공수송능력		63	공항 승객 수	대상 도시 국내선 국제선 공항의 연간 총 도착/출발 승객 수	
		64	항공기 출도착 횟수	OAG의 "Schedule Analyser"에 따른 대상 도시 공항(2019년 국제선 승객 100만 명 이상)의 항공기 일정을 기준으로 한 국제선 및 국내선 총 도착 및 출발 횟수	
시내교통		65	철도역 밀도	대상 도시 중심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OpenStreetMap에 나열된 기차 및 트램 정류장의 밀도	
		66	대중교통 이용률	Numbeo의 "Traffic"에 따른 대상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률(총 통행량 중 통근통학 시 대중교통 통행량 비율)	
		67	공항까지의 거리	대상 도시의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공항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공항의 승객수에 따라 가중평균)	
교통편의성		68	통근시간 ※설문조사 포함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Numbeo의 "Traffic"에 따른 대상 도시의 직장 또는 학교에 편도 이동에 필요한 시간, (2) 직장 또는 학교에 편도 이동에 필요한 시간(주민 설문조사)	
		69	평균주행속도	TomTom의 "Traffic Index"를 기준으로 계산된 10km당 평균 주행속도	
		70	택시, 자전거 이용 편의성	다음 데이터의 평균: (1) 대상 도시에서 5km 주행에 대한 택시 요금, (2) Luko의 "자전거 도시 색인"에 나열된 대상 도시의 총 점수	

자료: 모리기념재단(2024) 「2023 Global Power City Index」

4. GPCI가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종합적인 영향

- GPCI 평가 기준은 도시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함
 - 종합적인 도시발전 추구 :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적합성, 환경, 접근성 등 6개 주요 분야의 균형 잡힌 발전 추구
 - 글로벌 트렌드 반영 : 평가 기준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도시들은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개발 전략 수립
- 평가대상 도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함
 - 교통인프라 개선 : '접근성' 평가를 통해 국제 항공 노선 확충,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의 필요성 인식
 - 문화·관광·산업 육성 : '문화교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관광 자원 개발, 국제 행사 유치 등 노력 유도
 - 환경 정책 강화 : '환경' 부문 평가로 인해 도시들은 기후 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대, 공기질 개선 등의 환경 정책 강화
- 도시 간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촉진함
 - 벤치마킹 : 상위 순위 도시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계기
 - 국제협력 :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도시 간 협력 강화
-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맞추어 도시의 유연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함
 - 위기 대응 능력 강화 :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평가에 반영되면서, 도시들은 더욱 탄력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
 - 새로운 기회 포착 : 평가 기준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시개발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도시전략에 반영

2) 분야별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경제 분야

- '경제' 분야는 GPCI의 6개 주요 평가 분야 중 하나로,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매력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경제 분야의 순위가 높을수록 도시의 종합 순위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짐

○ 글로벌 기업 및 투자 유치 증가

- 법인세율 경쟁력 : 글로벌 기업 유치에 있어 낮은 법인세율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아일랜드 더블린의 사례를 보면, 타 도시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 더블린 법인세율 : '03년부터 '24년까지 20년간 12.5% 유지 → '23년 기준 글로벌 기업 약 1,800개 유치, 다국적 기업의 연평균 수출액 450조원¹⁾
- 경제자유도 :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경제자유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
 - 2024년 싱가포르의 경제자유지수는 83.5점으로 세계 1위²⁾

○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촉진 : 경제 부문에서 높은 점수는 해당 도시가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높여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를 촉진
- 국제적 인지도 및 명성 향상 : 경제적으로 강한 도시는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존재감을 갖게 되며, 이는 도시브랜드 가치의 주요 구성 요소인 '존재감(presence)'을 강화하여 도시의 국제적 인지도와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
- 도시 매력도 증대 : 경제적 성과가 좋은 도시는 더 나은 인프라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생기고, 경제적 성공은 도시에 활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 증대

(2) 연구개발 분야

▣ 연구개발의 긍정적 평가는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경제 성장, 혁신 역량 강화, 글로벌 경쟁력 향상, 우수한 인재 유치 및 육성, 그리고 산업 구조 고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경제 성장 촉진

- 경제발전 원동력 : 연구개발 활동 GDP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며, 국내외 추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도시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

1) 더블린의 '법인세 혁명'... 글로벌 기업 1800개 몰렸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06LZH3J>)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월간경제 이슈」, (<https://www.kiep.go.kr>)

○ 혁신 역량 강화

- 과학기술 능력 보유 : 연구개발 활성화는 도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이는 특허 등록 수 증가와 과학기술 논문 발표 수 증가로 이어져 도시의 기술력과 지식 기반을 확대

○ 글로벌 경쟁력 향상

- 국제적 위상 강화 : 연구개발 부문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 도시는 세계적인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는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

○ 인재 유치 및 육성

- 우수한 인재 확보 유리 : 연구개발 환경이 우수한 도시는 창의적이고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유리하며, 도시의 인적 자원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토대 마련

○ 산업 구조 고도화

- 산업발전 촉진 : 연구개발이 활성화된 도시는 해당 도시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 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지원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춘 도시들이 경영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스타트업 수의 증가는 도시의 혁신 역량과 경제적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

(3) 문화교류 분야

- 문화교류 분야가 강한 도시는 해당도시의 국제적인 매력도, 관광 산업, 경제적 이익 창출, 창의적인 인재 유치,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국제적 매력도 향상

-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 '문화교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도시는 국제적으로 더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되며, 이는 도시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

○ 관광객 유치 증가

- 관광산업 발전 : 문화교류 부문의 점수는 '외국인 방문객 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시의 관광 산업 발전과 경제적 이익으로 연계

○ 창의적 인재 유치

- 유행 선도 도시 : 문화콘텐츠가 발달된 도시는 전 세계의 창의적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며, 도시의 혁신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 도시 인프라 개선

- 생활 만족도 향상 : 문화교류 점수를 높이기 위해 도시들은 관광 자원, 쇼핑 옵션, 식사 선택권 등을 개선하게 되며, 이는 도시 인프라의 전반적인 개선 유도

○ 국제 행사 유치 기회 증가

- 국제적 위상 향상 : 문화교류 점수가 높은 도시는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

○ 도시 이미지 개선

- 관광객 유치, 국제 행사 유치,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4) 거주적합성 분야

□ 도쿄와 같은 도시들이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주적합성 개선에 주력하는 이유는 거주 여건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도시의 전반적인 매력도 향상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임

○ 도시 경쟁력 향상

- 생활비 : 거주적합성은 세계 주요 도시들의 종합적인 힘과 매력을 평가하는 분야로서, 주택임대료와 생활물가 수준이 좋다는 것은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유연한 근로환경

- 노동환경 : 유연한 근로방식을 제공하는 도시들이 고급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유리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

○ 안전한 정주여건 보장

- 안보와 안전 : 범죄에 취약한 도시는 도시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도시는 글로벌 기업의 매력도 향상 요인

○ ICT 기반 스마트도시 구축

- ICT 준비도 : ICT 인프라가 잘 갖춰진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유도하여 시민, 정부, 민간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 삶의 질 향상

- 정주여건 점수가 높다는 것은 주거 환경의 질, 공공 안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교육 시설의 질, 문화 및 여가 시설 등과 같은 요소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소들의 개선은 도시 거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5) 환경 분야

- 환경 분야의 개선은 도시의 전반적인 매력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
 - 지속가능한 발전
 - 기후변화의 책임 : 기후변화에 책임을 갖는 도시는 환경 친화적인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
 - 삶의 질 향상
 - 공기질 개선 : 깨끗한 공기는 주민들의 건강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
 - 온도 쾌적성 : 도시의 기후가 쾌적해져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향상
 - 도시 경쟁력 강화
 - 관광 매력도 증가 : 깨끗한 환경은 도시의 관광 매력도 향상
 - 인재 유치 : 좋은 환경은 창의적인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
 - 경제적 이점
 - 의료비용 절감 : 대기질 개선으로 인한 건강 증진으로 의료비용 절감
 - 에너지 효율성 : 환경 친화적인 정책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약

(6) 접근성 분야

- 접근성 분야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는 글로벌 도시들과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국제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함
 - 국제 연결성 강화
 - 국제선 운항 횟수 확대 : GPCI는 '국제선 운항 수'를 주요 지표로 평가하고 이로 인해 도시들은 국제 항공 노선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항공 승객 수 증가 : '항공 승객 수' 지표는 도시들이 공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더 많은 여행객을 유치하도록 유도함
 -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 교통망 복구 및 확장 : 뉴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들은 GPCI 평가를 위해 교통망을 빠르게 복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뉴욕시 내 운송 복구 및 업무 환경 개선으로 순위향상
(2022년 GPCI 평가 기준)
- 대중교통 효율성 향상 : '접근성' 부문의 평가를 통해 도시들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함
-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 추진
 -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 도입 :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장려하거나 전기차, 자전거 도로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접근성과 환경 분야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진 유도
-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 실시간 교통 데이터 활용 :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수요 대응형 교통 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의 교통 시스템 개선을 촉진하여 통근시간 단축 및 평균주행속도 향상
- 도시 내 이동성 향상
 - 시내교통 개선 :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도시 전역의 균형 잡힌 교통인프라 발전 촉진

제2절 수원시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 설정 및 순위 결정 방법

1. 도시경쟁력 평가 분야와 지표 설정

- 수원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를 위한 모리기념재단의 GPCI의 지표 구득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리재단 출처 적용 가능지표 24개, 대체가능지표 23개, 구득불가 지표 23개 선정(표 2-2 참고)
 - (모리재단) 6개 분야, 26개 항목, 70개 지표 → (본 연구) 6개 분야, 25개 항목, 47개 지표
- GPCI 체계에서 수원시 통계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현재의 수원시 도시경쟁력 수준을 단계별로 분석
 - 단계별 분석 : 글로벌 종합경쟁력 분석 → 분야별 / 항목별 / 지표별 도시 경쟁력 세부 분석

2. 순위 결정 방법

-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 결정 방법론은 GPCI 평가 방식 준용
 - GPCI 도시경쟁력 순위 결정 방법론 : 데이터 수집, 데이터 지표화, 점수 산출의 3단계 평가방식 준용. 단, 전문가 집단 평가 제외
- 본 연구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 결정 방법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별 데이터 수집
 - 47개 지표를 대상으로 49개 글로벌 도시의 지표 수집(GPCI 출처 또는 대체지표 값 적용)
 - 둘째, 지표별 데이터 표준화
 - 지표별 수집된 자료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를 0~1의 범위로 표준화하여 도시별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변환
 - 셋째, 지표별 점수 산출
 - 표준화된 데이터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 하여 각 지표별 점수 산출
 - 6개 분야, 25개 항목별 점수 산출
 - 넷째, 도시별 종합순위 결정
 -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도시들의 최종 종합순위 결정
 - 분야, 항목, 지표별 순위 결정

표 2-2 | GPCI 지표 구득여부 검토 결과

분야	항목	세부지표	구득가능	대체가능	구득불가	비고(출처)
경제	시장 규모	GDP		○		「경기도지역내총생산」, 경기도
		1인당GDP		○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보고서 (2023년 발행/2021년 기준)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당해년 가격) > 1인당 GRDP
	시장 매력도	GDP 성장률		○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보고서 (2023년 발행/2021년 기준)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년 가격) > 경제성장률
		경제자유도	○			헤리티지재단
	경제 활력	증권거래소의 주식시가 총액		○		세계거래소연맹
		세계상위 500대 기업수	○			Fortune, Fortune Global 500
	인적 자본	종사자 수		○		경기도 수원시「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사업체조사」)
		비즈니스 서비스업 종사자 수			○	경기도 수원시「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사업체조사」)-비즈니스 서비스업 특정 불가
	사업 환경	평균임금수준	○			Numbeo
		우수한 인재확보의 용이성			○	INSEAD(서울, 부산, 대구 한정 제공) Education First(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한정 제공)
		업무선택의 다양성			○	코워커(Coworker): 대한민국 도시(서울, 부산, 대구, 제주, 인천, 강릉, 전주, 통영, 고양, 대전, 춘천, 부천) - 목록 내 수원 없음
	사업 용이성	법인세율	○			PwC, 국세청
정치·경제·사업 등의 위험도		○			Moody's,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 GPCI: ①기업환경평가와 ②신용등급 평균 값 적용 → 본 연구: ②신용등급만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수원시 연구자수 파악 어려움	
연구 개발	학술 자원	연구자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수원시 연구자수 파악 어려움
		세계최고대학	○			Time Higher Education
	연구 환경	연구개발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외국인 학생 수			○	행정안전부 「지자체외국인주민현황」 - 세부대학(성대, 아주대) 학생 수 및 유학생 수는 별도 확인 필요
		학업성취도	○			OECD, e-나라지표 - OECD 미회원국 PISA점수 산출 불가
	혁신	특허건수			○	WIPO - 국제특허에 한해 국가 단위로 확인 - 국내특허가 배제되고 지표 추정방식이 불명확함
과학기술상 수상자 수				○	과학기술상 별 홈페이지(Nobel, Balzan, Craford, Abacus) - 수상자 개인정보와 관내 대학/연구소 매칭 필요	
스타트업 환경			○		Crunchbase, 유니콘팩토리 - Crunchbase에서 일부 정보만 확인 가능, 국내 스타트업 통계로 대체	

분야	항목	세부지표	구득가능	대체가능	구득불가	비고(출처)
문화교류	유행을 선도하는 잠재력	국제컨벤션 개최건수			○	UIA - UIA 보고서는 서울만 있음 - 국가단위로 제한적으로 파악 가능
		세계주요 이벤트 개최 건수			○	올림픽-IOC 박람회-BIE 월드컵-FIFA World Travel Guide - 서울만 제공
		문화콘텐츠 수출가치			○	K-stat 지자체 수출입, 문체부 콘텐츠산업조사 - 수원시 파악 불가
		미술시장 환경			○	Artprice.com - 국가단위 - 갤러리위치 서울, 부산, 대구만 지원
	관광자원	관광명소	○			Tripadvisor
		세계문화유산 접근성	○			UNESCO
		야간활동선택	○			Tripadvisor
	문화시설	극장콘서트홀 수			○	Tripadvisor, 수원시 내부자료
		박물관 수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경기장 수	○			World of Stadiums
	방문객 편의시설	호텔의 객실 수	○			Hotels.com
		고급호텔 객실 수	○			Hotels.com
쇼핑 만족도		○			Tripadvisor - 설문항목은 구득 및 수준 추정불가	
식당 만족도		○			La Liste - 설문항목은 구득 및 수준 추정불가	
국제교류	외국인 거주자 수			○	법무부, 출입자및체류외국인통계	
	해외 방문객 수			○	한국관광데이터랩	
거주적합성	노동환경	실업률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1인당 총 근로시간			○	ILO - 국가단위 데이터
		업무방식의 유연성			○	설문항목은 구득 및 수준 추정불가
	생활비	주택임대료	○			Numbeo
		물가수준	○			Expartisan
	안보와 안전	살인건수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 GPCI 측에서도 각 경찰청 데이터 활용
		자연재해의 경제위험			○	Lloyd
	웰빙	기대수명	○			WHO - 국가단위 : 대한민국 기대수명 적용
		사회 자유 및 형평성	○			Transparency Int'l, Freedom House, RSF, WEF - 국가단위
		정신건강 위험			○	WHO, 경기도 정신건강 정보-통계 - 국가단위 - 후천적 정신질환 범주 보호 - 자살률은 국내 통계로 대체 가능
	생활편의	의사 수			○	OECD, 심평원, 행안부, 경기도 - 의사+한 의사+치과 의사 합산 집계 대체 가능
		ICT 준비도	○			Portulans Institute - 국가단위

분야	항목	세부지표	구득가능	대체가능	구득불가	비고(출처)	
환경	지속가능성	소매점 수			○	OpenStreetMap - 설문항목은 구득 및 추정불가	
		식당 수			○	OpenStreetMap - 설문항목은 구득 및 추정불가	
		기후변화의 책임			○	NAZCA,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불포함	
		재생에너지 비율		○		OECD - 국가단위	
		재활용 비율		○		OECD 및 UN - 국가단위 - 단, 지자체에서 폐기물재활용률 공개	
	공기질과 쾌적성	1인당CO2배출량		○		IEA, 환경부, 수원시 기후에너지과	
		공기질	○			IQAir	
		적정온도 수준			○	Raspisaniye Pogodi Ltd. - 일자별 데이터 구득 가능하나 이상적인 온도 범위에서 벗어난 '평균량' 계산 방식의 별도 검토 필요	
	도시환경	수질	○			Numbeo	
		도심부의 녹피상황	○			Numbeo의 녹지와 공원 품질 활용	
		도시청결함 만족도			○	설문항목은 구득 및 수준 추정불가	
	접근성	국제네트워크	국제선 여객 직항편 취항도시 수		○		OAG 데이터 접근 어려움 항공통계포털 대체 활용 (인천+김포)
			국제선 화물 물동량(항만, 공항)			○	항공통계포털 대체 활용 (인천+김포) 항만 실적의 경우 반영 어려움 - 부산, 인천, 여수·광양, 평택 등
		항공수송능력	공항 승객수		○		항공통계포털 대체 활용 (인천공항)
			항공기 출도착 횟수			○	OAG 데이터 접근 어려움
시내교통		철도역 밀도		○		Openstreet Map 미지원 - 역사 수 별도 조사 및 밀도 산출	
		대중교통 이용률		○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공항까지의 거리		○		카카오맵 - 인천, 김포공항 자가용 이동시간 평균	
교통편의성		통근시간		○		수원시, 수원시사회조사	
		평균주행속도		○		TomTom 대한민국 미지원 - 대중교통기본계획 등 교통기본계획 속도값 평균으로 대체	
	택시, 자전거 이용 편의성		○		택시요금 Numbeo로 대체 - 5km 당 도시별 요금 명시, 비교 가능		

제3장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

제1절 수원시 도시경쟁력 진단

제2절 수원시 도시경쟁력 강점·약점 분석

제3장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

제1절 수원시 도시경쟁력 진단

1. GPCI 종합경쟁력 진단

1) 글로벌 도시 종합경쟁력

- GPCI 조사·분석 결과 수원시를 포함한 총 49개 글로벌 주요도시의 종합경쟁력은 2,500점 만점에 평균 1,039.8점으로 조사
 - “경제” 분야는 600점 만점에 평균 207.4점, “연구개발” 분야는 300점 만점에 평균 117.4점, “문화교류” 분야는 400점 만점에 평균 91.8점, “거주적합성” 분야는 500점 만점에 279.0점, “환경” 분야는 300점 만점에 182.7점 그리고 “접근성” 분야는 400점 만점에 161.4점으로 분석됨
- 49개 도시 중에서 런던이 가장 높은 도시경쟁력(1,600.6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쿄(1,470.4점), 뉴욕(1,427.8점), 파리(1,343.3점), 서울(1,327.4점) 순

2) 분야별 도시 종합경쟁력

(1) 경제 분야

- 경제 분야에서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가 1위(398.8점)와 2위(359.3점) 차지
 -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시장규모, 경제활력, 사업환경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
 - 경제 분야의 도시 순위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워싱턴DC, 베이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상위 10위 안에 미국 도시들이 큰 비중을 차지

(2) 연구개발 분야

-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시드니와 서울이 1위(236.7점)와 2위(212.2점) 차지
 - 연구개발 분야의 학술지원, 연구환경, 혁신 항목 중 시드니는 혁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은 학술지원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연구개발 분야의 도시 순위는 시드니, 서울, 샌프란시스코, 타이페이, 보스턴, 도쿄 순

(3) 문화교류 분야

- 문화교류 분야에서는 런던과 파리가 각각 1위(384.2점)와 2위(259.2점) 차지
 - 런던은 경기장수, 호텔 객실수, 해외방문객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 파리는 관광명소, 세계문화유산 접근성에서 가장 점수가 높음
 - 문화교류 분야의 도시 순위는 런던, 파리, 도쿄, 두바이, 뉴욕, 이스탄불, 서울 순

(4) 거주적합성 분야

- 거주적합성 분야에서는 서울, 도쿄가 각각 1위(362.2점)와 2위(344.5점)를 차지
 - 서울은 의사 수, ICT 준비도 등 생활편의 측면에서 도쿄보다 점수가 높고, 도쿄는 기대수명, 사회 자유 및 형평성 측면에서 서울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남
 - 거주적합성 분야의 도시 순위는 서울, 도쿄, 헬싱키, 수원, 시드니, 멜버른 순

(5) 환경 분야

- 환경 분야에서는 스톡홀름과 헬싱키가 각각 1위(292.6점)와 2위(288.4점)를 차지
 - 스톡홀름은 재생에너지비율, 이산화탄소배출량 항목에서 헬싱키보다 높은 점수를 차지했으며, 재활용비율, 공기질, 수질, 도심부 녹피현황에서는 헬싱키가 스톡홀름보다 높은 점수를 차지
 - 환경 분야의 도시 순위는 스톡홀름, 헬싱키, 코펜하겐, 비엔나, 베를린, 마드리드 순

(6) 접근성 분야

- 접근성 분야에서는 런던과 프랑크푸르트가 각각 1위(286.8점)와 2위(270.7점)를 차지
 - 런던은 국제선여객 직항편 취항도시 수와 공항 승객 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는 통근시간 등 교통편의성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접근성 분야의 도시 순위는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두바이, 취리히, 도쿄 순

그림 3-1 | 글로벌 도시경쟁력 종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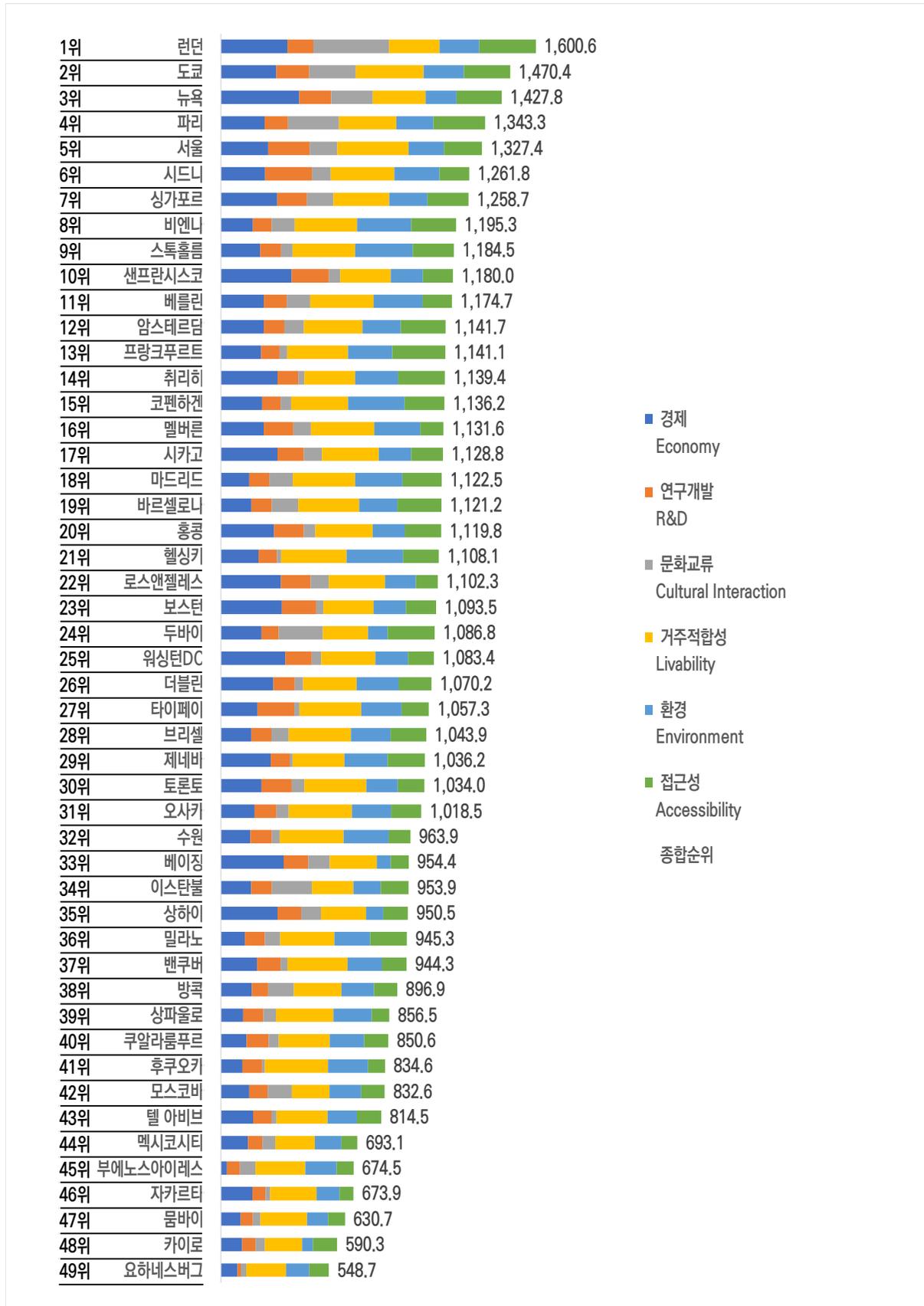


그림 3-2 | 6개 분야별 도시경쟁력 순위

경제분야				연구개발 분야			
순위	도시	점수		순위	도시	점수	
1	뉴욕	398.8		1	시드니	236.7	
2	샌프란시스코	359.3		2	서울	212.2	
3	런던	338.9		3	샌프란시스코	189.8	
4	워싱턴DC	327.1		4	타이페이	188.3	
5	베이징	319.2		5	보스턴	174.1	
6	보스턴	310.8		6	도쿄	168.2	
7	로스앤젤레스	305.3		7	뉴욕	162.7	
8	취리히	288.8		8	토론토	155.4	
9	상하이	287.5		9	싱가포르	151.9	
10	시카고	287.4		10	로스앤젤레스	151.5	
11	싱가포르	286.4		11	홍콩	150.7	
12	도쿄	281.4		12	멜버른	149.7	
13	홍콩	270.5		13	시카고	135.2	
14	더블린	266.4		14	워싱턴DC	134.3	
15	제네바	253.2		15	런던	131.1	
16	서울	240.1		16	베이징	124.4	
17	시드니	225.3		17	밴쿠버	121.5	
18	파리	222.6		18	상하이	121.1	
19	멜버른	219.0		19	파리	118.2	
20	베를린	218.5		20	베를린	116.9	
21	암스테르담	218.4		21	쿠알라룸푸르	112.1	
22	코펜하겐	209.2		22	오사카	110.6	
23	두바이	205.3		23	더블린	109.0	
24	토론토	205.2		24	수원	108.8	
25	프랑크푸르트	204.3		25	스톡홀름	106.6	
26	스톡홀름	199.7		26	이스탄불	105.4	
27	헬싱키	191.2		27	취리히	104.6	
28	타이페이	185.6		28	암스테르담	104.3	
29	밴쿠버	183.4		29	상파울로	102.9	
30	오사카	171.8		30	바르셀로나	102.5	
31	텔 아비브	164.0		31	마드리드	102.0	
32	비엔나	163.4		32	밀라노	101.8	
33	자카르타	159.7		33	브리셀	101.8	
34	방콕	158.3		34	후쿠오카	99.6	
35	바르셀로나	155.6		35	제네바	96.6	
36	브리셀	154.5		36	코펜하겐	95.1	
37	이스탄불	153.5		37	모스크바	95.0	
38	수원	150.4		38	헬싱키	94.9	
39	모스크바	143.7		39	비엔나	94.5	
40	마드리드	143.2		40	프랑크푸르트	94.2	
41	멕시코시티	137.2		41	텔 아비브	93.4	
42	쿠알라룸푸르	130.5		42	두바이	89.0	
43	밀라노	121.3		43	방콕	82.5	
44	상파울로	113.4		44	멕시코시티	73.0	
45	후쿠오카	109.8		45	카이로	68.7	
46	카이로	107.6		46	자카르타	67.7	
47	뭄바이	101.5		47	부에노스아이레스	65.3	
48	요하네스버그	84.3		48	뭄바이	60.5	
49	부에노스아이레스	31.9		49	요하네스버그	17.3	

그림 3-2 | 6개 분야별 도시경쟁력 순위(계속)

문화교류 분야				거주적합성 분야			
순위	도시	점수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384.2		1	서울	362.2	
2	파리	259.2		2	도쿄	344.5	
3	도쿄	236.2		3	헬싱키	331.9	
4	두바이	223.3		4	수원	325.9	
5	뉴욕	209.4		5	시드니	323.4	
6	이스탄불	204.1		6	멜버른	323.0	
7	서울	139.0		7	베를린	322.7	
8	바르셀로나	134.1		8	후쿠오카	322.7	
9	싱가포르	133.9		9	오사카	321.4	
10	방콕	129.5		10	브리셀	317.2	
11	모스크바	122.4		11	비엔나	317.0	
12	마드리드	121.4		12	스톡홀름	316.7	
13	베를린	118.8		13	마드리드	314.9	
14	비엔나	118.0		14	토론토	314.1	
15	베이징	110.2		15	타이페이	312.8	
16	상하이	99.7		16	바르셀로나	311.5	
17	암스테르담	98.6		17	프랑크푸르트	308.3	
18	시드니	96.0		18	밴쿠버	306.3	
19	로스앤젤레스	92.0		19	암스테르담	297.2	
20	시카고	91.4		20	상파울로	292.9	
21	멜버른	89.1		21	파리	291.7	
22	브리셀	88.2		22	홍콩	291.5	
23	에노스아이레	79.3		23	시카고	288.6	
24	밀라노	78.5		24	코펜하겐	288.5	
25	멕시코시티	66.2		25	로스앤젤레스	286.0	
26	토론토	64.1		26	싱가포르	283.0	
27	상파울로	63.4		27	밀라노	274.9	
28	오사카	61.6		28	워싱턴DC	274.5	
29	스톡홀름	58.8		29	더블린	270.7	
30	홍콩	58.6		30	뉴욕	270.2	
31	샌프란시스코	58.1		31	제네바	263.7	
32	코펜하겐	53.9		32	쿠알라룸푸르	259.9	
33	쿠알라룸푸르	51.0		33	텔 아비브	258.5	
34	워싱턴DC	48.8		34	런던	257.3	
35	카이로	47.0		35	취리히	256.8	
36	더블린	42.7		36	샌프란시스코	256.5	
37	수원	39.0		37	보스턴	254.8	
38	프랑크푸르트	38.9		38	부에노스아이레스	252.6	
39	뭄바이	38.8		39	방콕	242.3	
40	보스턴	36.4		40	베이징	238.3	
41	밴쿠버	33.4		41	뭄바이	236.7	
42	취리히	31.1		42	자카르타	236.2	
43	요하네스버그	27.8		43	두바이	230.0	
44	텔 아비브	25.9		44	상하이	229.5	
45	타이페이	25.8		45	이스탄불	209.6	
46	자카르타	22.6		46	요하네스버그	201.3	
47	헬싱키	20.1		47	멕시코시티	200.5	
48	제네바	14.5		48	모스크바	191.2	
49	후쿠오카	13.4		49	카이로	190.0	

그림 3-2 | 6개 분야별 도시경쟁력 순위(계속)

환경 분야				접근성 분야			
순위	도시	점수		순위	도시	점수	
1	스톡홀름	292.6		1	런던	286.8	
2	헬싱키	288.4		2	프랑크푸르트	270.7	
3	코펜하겐	287.2		3	파리	262.7	
4	비엔나	274.2		4	두바이	239.5	
5	베를린	247.0		5	취리히	239.0	
6	마드리드	240.6		6	도쿄	235.4	
7	멜버른	232.6		7	뉴욕	229.9	
8	시드니	229.5		8	비엔나	228.2	
9	수원	228.5		9	암스테르담	228.1	
10	프랑크푸르트	224.6		10	바르셀로나	224.6	
11	취리히	219.0		11	스톡홀름	210.1	
12	제네바	218.8		12	싱가포르	208.1	
13	더블린	215.3		13	코펜하겐	202.3	
14	타이페이	207.2		14	마드리드	200.5	
15	도쿄	204.7		15	서울	194.7	
16	후쿠오카	203.3		16	제네바	189.4	
17	런던	202.3		17	밀라노	186.4	
18	브리셀	200.5		18	홍콩	184.4	
19	오사카	200.5		19	브리셀	181.8	
20	싱가포르	195.4		20	헬싱키	181.6	
21	암스테르담	195.0		21	더블린	166.1	
22	상파울로	193.9		22	시카고	161.5	
23	바르셀로나	192.9		23	보스턴	153.3	
24	파리	188.9		24	샌프란시스코	153.1	
25	밀라노	182.4		25	오사카	152.7	
26	서울	179.2		26	베를린	150.9	
27	쿠알라룸푸르	174.3		27	시드니	150.8	
28	밴쿠버	173.1		28	이스탄불	141.5	
29	워싱턴DC	167.6		29	타이페이	137.5	
30	방콕	165.9		30	토론토	135.1	
31	시카고	164.6		31	워싱턴DC	131.2	
32	보스턴	164.1		32	밴쿠버	126.6	
33	홍콩	164.0		33	상하이	124.1	
34	샌프란시스코	163.2		34	텔 아비브	123.5	
35	모스크바	161.0		35	카이로	123.4	
36	토론토	160.2		36	쿠알라룸푸르	122.8	
37	부에노스아이레스	158.1		37	모스크바	119.4	
38	뉴욕	156.7		38	방콕	118.3	
39	로스앤젤레스	155.6		39	멜버른	118.3	
40	텔 아비브	149.2		40	로스앤젤레스	111.9	
41	이스탄불	139.7		41	수원	111.4	
42	멕시코시티	135.8		42	요하네스버그	99.6	
43	요하네스버그	118.4		43	베이징	90.3	
44	자카르타	116.7		44	상파울로	89.9	
45	뭄바이	107.1		45	부에노스아이레스	87.3	
46	두바이	99.7		46	뭄바이	86.1	
47	상하이	88.6		47	후쿠오카	85.8	
48	베이징	72.0		48	멕시코시티	80.4	
49	카이로	53.6		49	자카르타	71.1	

2. 수원시 도시경쟁력 진단

1) 분야별 수원시 도시경쟁력 진단

- 수원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6개 분야, 25개 항목 그리고 47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함 (표 3-1 ~ 표 3-3, 부록 참고)
- 수원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은 963.9점으로 49개 글로벌 도시 중에서 32위에 해당
 - 수원시 도시경쟁력 963.9점은 49개 도시 평균 1,039.8점보다 75.9점 낮은 점수임
 - 수원시와 유사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30위 토론토(1,034.0점), 31위 오사카(1,018.5점), 33위 베이징(954.4점), 34위 이스탄불(953.9점) 순
- 분야별로 수원시 도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거주적합성 분야에서 4위(325.9점)로 가장 높고, 접근성 분야에서 41위(111.4점) 기록
 - 경제부분에서는 38위(150.4점)로 37위 이스탄불과 39위 모스크바 사이에 위치, 연구개발 분야는 24위(108.8점), 환경분야 9위(228.5점), 문화교류 분야에서 37위(39.0점) 기록

그림 3-3 | 분야별 수원시 도시경쟁력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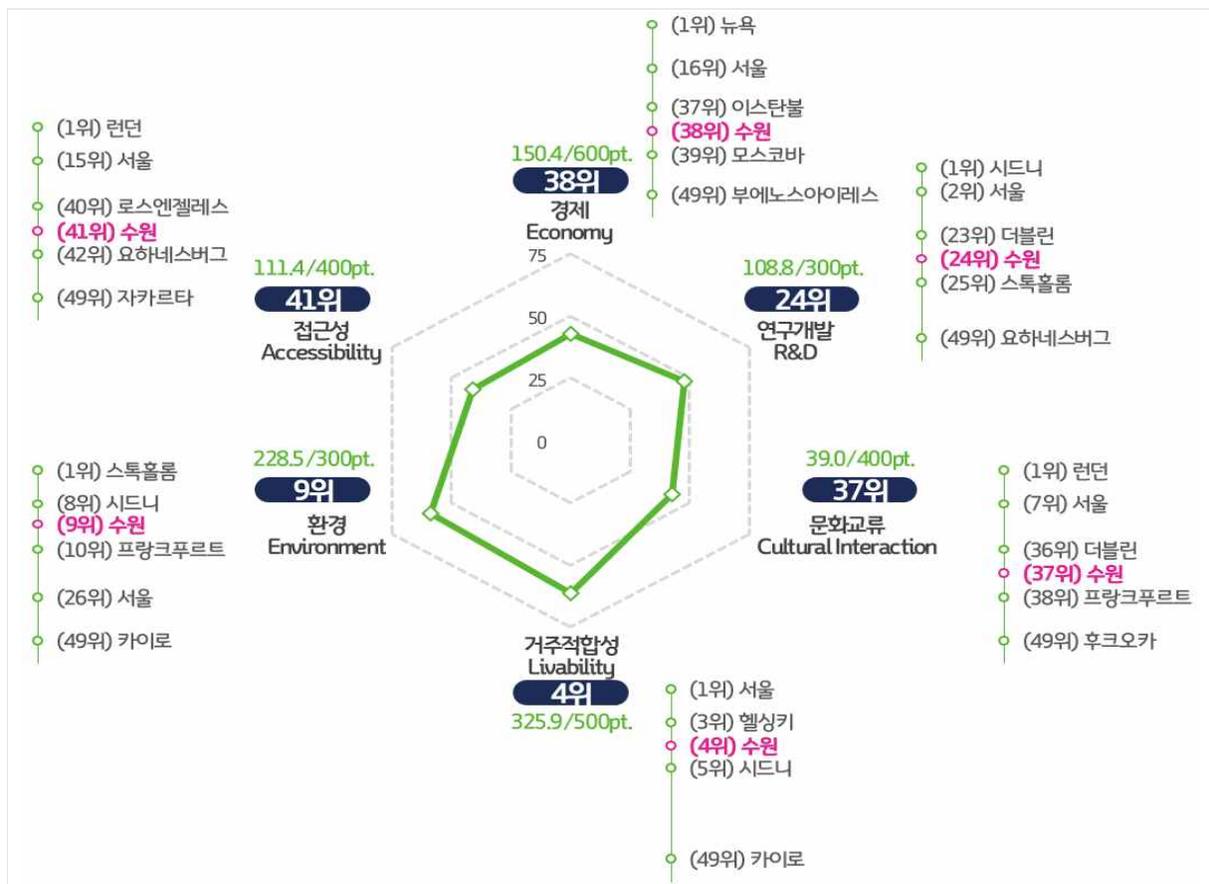


표 3-1 | 분야별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 및 표준점수

분야	순위	점수 (총점)	표준점수*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경제	38	150.4					42.8							
연구개발	24	108.8					47.9							
문화교류	37	39.0					42.8							
거주적합성	4	325.9								61.1				
환경	9	228.5								58.6				
접근성	41	111.4					41.1							

주 : * 란 평균으로부터 편차점수를 그 분포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얻은 전한 점수임.

■ : 편차 점수의 최소 ~ 최대이며, 각 단계 범위는 분포를 나타냄

2) 항목별 수원시 도시경쟁력 진단

(1) 경제 분야

- 경제적 요소들은 지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 수원시 경제 분야의 도시경쟁력은 6개 항목과 11개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49개 도시 중에서 38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됨
 - 시장규모 항목은 GRDP와 1인당 GRDP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시장규모의 경쟁력은 46위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GRDP와 1인당 GRDP가 각각 48위와 41위를 차지
 - GRDP는 지역 전체 경제 규모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로, 지역 내 총생산액을 나타내며, 1인당 GRDP는 경제적 생산성을 개인 단위로 나눈 데이터로 지역 내 삶의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시장매력도와 경제활력 항목은 49개 도시 중에서 각각 22위, 21위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수원시가 외부 투자 유치에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냄
 - 시장매력도는 GRDP 성장률과 경제자유도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각각 32위 13위 차지
 - 세계 500대 기업 중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입지하고 있어 15위, 증권거래소의 주식시가 총액은 증권시장의 규모와 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25위로 평가
 - 인적자본 항목은 종사자 수 지표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44위 차지

- 사업환경 항목은 평균임금수준과 업무환경 선택의 다양성 지표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29위 차지
 - 해당 도시의 사업환경이 생활비에 비례하여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수록 매력적인 도시로 평가
- 사업용이성 항목은 법인세율과 정치·경제·사업 위험도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수원시는 16위에 해당되므로 기업진입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율은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의 설립과 운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며, 정치·경제·사업 위험도는 국가 및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2) 연구개발 분야

- 연구개발(R&D)은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됨
- 수원시 연구개발 부문의 도시경쟁력은 3개 항목과 3개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49개 도시 중에서 24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 학술자원 항목의 세계최고 대학 지표에서 성균관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등이 포함되어 수원시는 20위로 평가됨
 - 학술자원 항목은 연구기관과 교육시설의 수와 질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가능성을 평가
 - 연구 환경과 혁신 항목에서는 연구 환경은 5위로 매우 뛰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혁신 점수는 48위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연구환경과 혁신 항목은 각각 학업성취도와 스타트업 개수 지표를 통해 평가
 - 수원시는 학업 성취도가 높고, 연구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스타트업 수가 적어 혁신 항목 순위는 낮음
 - 스타트업 개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 빈도로 볼 수 있으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됨

(3) 문화교류 분야

- 문화교류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국제적인 이해, 친목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평가는 기준이 됨

- 수원시 문화교류 분야의 도시경쟁력은 4개 항목과 11개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49개 도시 중에서 37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 관광자원 항목은 12위로 분석되었으며, 세계문화유산 접근성 지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광명소 지표와 야간활동 선택 지표는 각각 49위와 48위 차지
 - 매력적인 관광명소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다양한 야간활동은 도시의 문화적 매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방문객 유도
 - 문화시설 항목은 49위로 나타났으며, 수원시는 박물관과 경기장 수가 적어 도시경쟁력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 박물관 또는 경기장 수는 지역내 문화유산 및 예술작품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스포츠 경기 등을 통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데 기여
 - 방문객 편의시설 항목은 수원시 내부에 호텔과 레스토랑 등 관광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만족도가 낮아 최하위 순위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는 문화교류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고급호텔부터 저렴한 숙소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
 - 지역 특산물이나 전통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문화의 주요 요소로서 방문객들이 지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 담당
 - 국제교류 항목은 외국인 거주자 수와 해외 방문객 수 지표로 평가되며, 45위를 차지함
 - 외국인 거주자 수와 해외 방문객 수가 각각 48위와 42위로 문화적 교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지역 내 외국인 거주자의 수는 문화적 다양성과 그에 따른 교류 촉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문화적 이벤트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외국인 방문객의 수는 지역 문화의 인지도 및 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4) 거주적합성 부문

- 거주적합성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수원시 거주적합성 분야의 도시경쟁력은 5개 항목과 8개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49개 도시 중에서 4위를 차지함
 - 노동환경 항목은 실업률로 평가되며 34위를 차지함
 - 지역 내 다양한 업종에서의 구직 기회 및 일자리의 안정성은 인구 유입에 중요한 요소이나

수원시의 경우 실업률이 다소 높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

- 생활비 항목은 주택임대료와 물가수준 지표로 평가되며, 8위를 차지
 - 수원시는 주택임대료와 물가 수준이 적절하여 거주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주택 임대료와 같은 주거비용은 거주 선택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해당도시의 물가수준이 적절한 경우 도시의 매력도 향상
- 살인건수를 지표로 안보와 안전 항목을 평가한 결과 수원시는 14위이며,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공공의 안전이 보장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같은 안전 서비스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웰빙 항목은 22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원시민의 기대수명이 높고, 자유지수, 성 격차, 부패 인식 등 사회 자유 및 형평성 측면에서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 생활편의 항목은 의사수와 ICT 준비도 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20위 차지
 - 의사가 많다는 것은 적절한 의로서비스가 확보되어 시민의 건강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ICT 준비도는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의 능력과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5) 환경 부문

- 환경 문제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도시일수록 매력도가 높은 도시로 평가됨
- 수원시 환경 분야의 도시경쟁력은 3개 항목과 6개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49개 도시 중에서 9위를 차지함
 - 지속가능성 항목은 재생에너지 비율과 재활용 비율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18위로 나타남
 - 수원시의 재활용비율은 높으나(9위),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낮아(47위)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천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태양, 풍력 등)의 비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도시일수록 그리고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도시일수록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
 - 공기질과 쾌적성 항목은 1인당 CO2배출량, 공기질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그 결과 33위 차지
 -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32위)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관리(39위)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도시환경 항목은 수질과 도심부의 녹피상황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그 결과 2위에 해당

- 수원시는 오염원 규제, 정수 및 하수처리 등 수질관리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이며, 녹지 분포를 통해 도시계획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 이미지와 매력도가 상승

(6) 접근성 부문

- 공항, 항만 등 국제적 접근성이 좋으면 글로벌 비즈니스와 교류가 활발해져 도시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고,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도시일수록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수원시 접근성 부문의 도시경쟁력은 4개 항목과 8개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49개 도시 중에서 41위를 차지함
 - 국제네트워크 항목은 국제선 여객 직항편 취항도시수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수원시는 21위 차지, 그리고 항공수송능력 항목은 공항 승객수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그 결과 9위에 해당
 - 국제네트워크와 항공수송능력 항목은 인천 및 김포공항 직항로 도시수를 적용하여 분석함
 - 시내교통 항목은 철도역밀도, 대중교통 이용율, 공항까지의 거리 지표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수원시는 49위 차지
 - 수원시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이 부족(철도역 밀도 36위, 대중교통 이용율 35위)하고, 수원시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이동거리가 다른 글로벌 도시에 비해 길기 때문(49위)에 나타난 결과임
 - 교통편의성 항목은 통근시간, 평균주행속도, 택시·자전거 이용 편의성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그 결과 수원시는 36위에 해당
 - 수원시민의 통근시간(23위)과 평균주행속도(28위)는 글로벌 도시의 평균 수준이나, 택시·자전거 이용 편의성은 하위(38위) 수준

그림 3-4 | 항목별 수원시 도시경쟁력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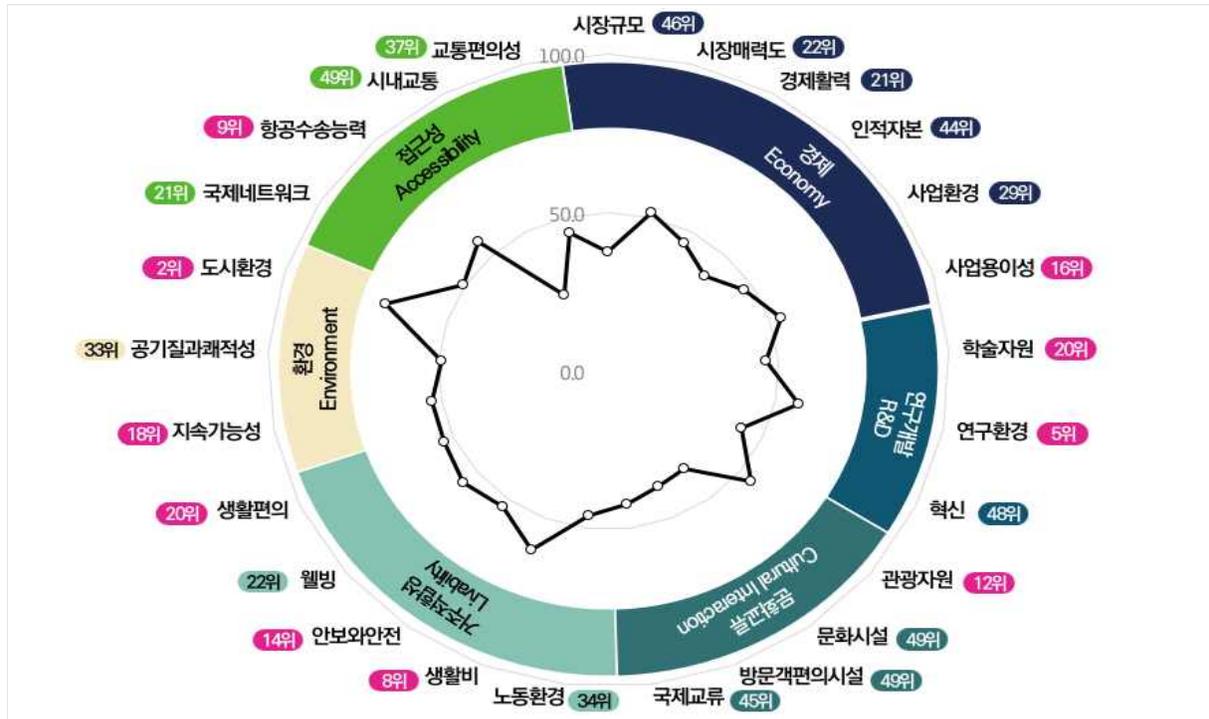


표 3-2 | 항목별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 및 표준점수

분야	항목	순위	점수 (100점 만점)	표준점수*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경제	시장규모	46	5.4					37.4							
	시장매력도	22	41.3							51.4					
	경제활력	21	5.9					40.0							
	인적자본	44	3.1					41.1							
	사업환경	29	25.1						47.2						
	사업용이성	16	69.6							53.4					
연구개발	학술자원	20	16.7					46.3							
	연구환경	5	92.2							55.9					
	혁신	48	0.0					43.1							
문화교류	관광자원	12	38.5							54.6					
	문화시설	49	0.0					38.1							
	방문객편의시설	49	0.0					39.4							
	국제교류	45	0.4					42.6							
거주적합성	노동환경	34	9.1					46.0							
	생활비	8	82.7									60.9			
	안보와안전	14	98.5							52.9					
	웰빙	22	83.7							55.3					
	생활편의	20	51.9							53.2					
환경	지속가능성	18	52.8							52.7					
	공기질과쾌적성	33	75.9							49.0					
	도시환경	2	99.8										68.8		
접근성	국제네트워크	21	33.4							50.4					
	항공수송능력	9	40.2									56.0			
	시내교통	49	0.0												
	교통편의성	36	37.7				27.2			44.9					

주 : * 란 평균으로부터 편차점수를 그 분야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얻은 전환 점수임.

■ : 편차 점수의 최소 ~ 최대이며, 각 단계 범위는 분포를 나타냄

표 3-3 | 지표별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 및 표준점수

분야	항목	지표	순위	점수 (100점 만점)	표준점수*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경제	시장규모	GRDP	48	0.1						41.0					
		1인당 GRDP	41	8.5						41.1					
	시장매력도	GRDP성장률	32	27.5						45.2					
		경제자유도	13	62.1							55.4				
	경제활력	증권거래소의 주식시가 총액	25	3.2						46.2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수	15	3.8						48.7					
	인적자본	종사자 수	44	3.1						41.1					
	사업환경	평균임금수준	29	33.7						47.8					
		업무환경 선택의 다양성	26	9.7						47.8					
	사업 용이성	법인세율	19	42.3						50.9					
정치, 경제, 사업 위험도		21	89.5							54.4					
연구개발	학술자원	세계최고대학	20	16.7						46.3					
	연구환경	학업 성취도	5	92.2							56.9				
	혁신	스타트업 수	48	0.0						43.1					
문화교류	관광자원	관광명소	49	0.0						37.2					
		세계문화유산 접근성	1	100.0											76.8
		야간활동 선택	48	0.0						41.3					
	문화시설	박물관 수	49	0.0						37.3					
		경기장 수	32	6.7						44.4					
	방문객 편의시설	호텔의 객실 수	49	0.0						36.3					
		고급호텔 객실 수	17	17.6							49.8				
		쇼핑 만족도	49	0.0						38.8					
		식당 만족도	47	0.0						42.4					
	국제교류	외국인 거주자 수	48	0.9						43.4					
해외 방문객 수		42	1.9						43.6						
거주적합성	노동환경	실업률	34	9.1						46.0					
	생활비	주택임대료	12	91.1											60.9
		물가수준	10	73.5											58.4
	안보와 안전	살인건수	14	98.5							52.0				
	웰빙	기대수명	6	93.7								59.5			
		사회 자유 및 형평성	31	67.6							50.9				
	생활편의	의사 수	27	9.9						45.4					
	ICT 준비도	13	92.6								57.6				
환경	지속 가능성	재생에너지 비율	47	1.8						39.3					
		재활용 비율	9	76.3								61.4			
	공기질과 쾌적성	1인당 CO2배출량	32	95.1							53.3				
		공기질	39	61.7						45.8					
	도시 환경	수질	1	100.0											69.0
	도심부의 녹피상황	10	92.0								59.8				
접근성	국제네트워크	국제선 여객 직항편 취항도시 수	21	33.4						50.4					
	항공수송능력	공항 승객수	9	40.2							56.0				
	시내교통	철도역 밀도	36	3.4						44.2					
		대중교통 이용률	35	32.1						43.6					
		공항까지의거리	49	0.0					24.1						
	교통편의성	통근시간	23	46.5						49.2					
		평균주행속도	28	37.3						49.7					
	택시, 자전거 이용 편의성	38	16.2						41.5						

주 : * 란 평균으로부터 편차점수를 그 분포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얻은 전환 점수임.

■ : 편차 점수의 최소 ~ 최대이며, 각 단계 범위는 분포를 나타냄

제2절 수원시 도시경쟁력 강점·약점 분석

1. 항목별 강·약점 분석

- 그림 3-3을 보면, 수원시의 분야별 강점은 거주적합성(4위)과 환경(9위) 분야, 약점은 경제(38위) 및 문화교류(37위) 그리고 교통접근성(41위) 분야로 평가됨
- 수원시의 항목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결과 25개 항목 중에서 강점 항목은 9개, 보통 항목은 6개 그리고 약점 항목은 10개로 나타남
 - (강점 항목) 경제 분야에서 “사업용이성”, 연구개발 분야에서 “연구환경”, 문화교류 분야에서 “관광자원”, 거주적합성 분야는 “생활비”, “안보와 안전” 그리고 “생활편의”, 환경 분야는 “지속가능성”과 “도시환경”, 접근성 분야에서는 “항공수송능력”이 선정
 - (약점 항목) 경제 분야에서 “시장규모”, “경제활력”, “인적자본”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혁신”, 문화교류 분야는 “문화시설”, “방문객 편의시설” 그리고 “국제교류” 이외에도 거주적합성 분야에서 “노동환경”과 접근성 분야에서 “시내교통” 및 “교통편의성” 선정

표 3-4 | 수원시 항목별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점과 약점

분야	항목	순위	편차점수	강점	보통	약점
경제	시장규모	46	37.4			○
	시장매력도	22	51.4		○	
	경제활력	21	46.0			○
	인적자본	44	41.1			○
	사업환경	29	47.2		○	
	사업용이성	16	53.4	○		
연구개발	학술자원	20	46.3		○	
	연구환경	5	56.9	○		
	혁신	48	43.1			○
문화교류	관광자원	12	54.6	○		
	문화시설	49	38.1			○
	방문객편의시설	49	39.4			○
	국제교류	45	42.6			○
거주적합성	노동환경	34	46.0			○
	생활비	8	60.9	○		
	안보와안전	14	52.9	○		
	웰빙	22	55.3		○	
	생활편의	20	53.2	○		
환경	지속가능성	18	52.7	○		
	공기질과쾌적성	33	49.0		○	
	도시환경	2	68.8	○		
접근성	국제네트워크	21	50.4		○	
	항공수송능력	9	56.0	○		
	시내교통	49	27.2			○
	교통편의성	36	44.9			○

주 : 강점은 순위가 상위 20위 이상 그리고 편차점수가 51점 이상일 것, 약점은 순위가 30위 이하 그리고 편차점수가 47점 이하. 보통은 강점 또는 약점 기준에 해당되나 두 개의 기준 모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적용.

2. 지표별 강·약점 분석

□ 수원시의 지표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결과 47개 지표 중에서 강점 지표 12개, 보통 지표 12개 그리고 약점 지표 23개로 나타남

○ 경제 분야의 주요 지표별 강·약점

- “경제 자유도”는 사업, 노동, 무역 투자 등 기업 운영환경과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경제자유도가 높은 수원시는 시장매력도가 긍정적으로 평가
- 수원시는 “종사자수”가 적고, 지역 경제규모를 평가하는 “GRDP”가 글로벌 도시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 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지표별 강·약점

- 수원시는 지역 내 “세계적인 대학”이 입지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높은 “학업 성취도”로 연구개발에 유리
- 스타트업 환경으로 평가되는 연구개발 분야의 “혁신”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수원시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부족

○ 문화교류 분야의 주요 지표별 강·약점

- 수원시는 수원화성 등 “세계문화유산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도시로 평가
- 수원시는 “박물관 수”와 “경기장 수” 등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평가하기 위한 “호텔 객실 수”, “쇼핑 및 식당 만족도”가 낮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 거주자 수”와 “해외 방문객 수”가 글로벌 도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거주적합성 분야의 주요 지표별 강·약점

- 수원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비와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로 평가
- 글로벌 도시에 비해 비교적 실업률이 높아 경제적으로 불안정

○ 환경 분야의 주요 지표별 강·약점

- 수원시는 “수질” 및 “도심부 녹피현황” 등 매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재활용 비율”로 환경 보호 의식이 강한 도시로 평가됨
-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미흡하여 수원시의 환경정책의 강화 필요

○ 접근성 분야의 주요 지표별 강·약점

- “인천 및 김포공항의 승객수”가 많아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국제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
- 시내교통 및 교통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GTX-C, 동탄인덕원선, 신분당선 연장 등 사업 조기 개통 노력 필요

표 3-5 | 수원시 분야별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점과 약점

분야	항목	지표	순위	편차점수	강점	보통	약점
경제	시장규모	GRDP	48	41.0			○
		1인당 GRDP	41	41.1			○
	시장매력도	GRDP 성장률	32	45.2			○
		경제자유도	13	55.4	○		
	경제활력	증권거래소의 주식시가 총액	25	46.2			○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수	15	48.7		○	
	인적자본	종사자 수	44	41.1			○
	사업환경	평균임금수준	29	47.8		○	
		업무환경 선택의 다양성	26	47.8		○	
	사업 용이성	법인세율	19	50.9		○	
정치, 경제, 사업 위험도		21	54.4		○		
연구 개발	학술자원	세계최고대학	20	46.3		○	
	연구환경	학업 성취도	5	56.9	○		
	혁신	스타트업 환경	48	43.1			○
문화 교류	관광자원	관광명소	49	37.2			○
		세계문화유산 접근성	1	76.8	○		
		야간활동 선택	48	41.3			○
	문화시설	박물관 수	49	37.3			○
		경기장 수	32	44.4			○
	방문객 편의시설	호텔의 객실 수	49	36.3			○
		고급호텔 객실 수	17	49.8		○	
		쇼핑 만족도	49	38.8			○
	국제교류	식당 만족도	47	42.4			○
		외국인 거주자 수	48	43.4			○
거주 적합성	노동환경	해외 방문객 수	42	43.6			○
		실업률	34	46.0			○
	생활비	주택임대료	12	60.9	○		
		물가수준	10	58.4	○		
	안보와 안전	살인건수	14	52.9	○		
	웰빙	기대수명	6	59.5	○		
		사회 자유 및 형평성	31	50.9		○	
	생활편의	의사 수	27	45.4			○
		ICT 준비도	13	57.6	○		
	환경	지속가능성	재생에너지 비율	47	39.3		
재활용 비율			9	61.4	○		
공기질과 쾌적성		1인당 CO2배출량	32	53.3		○	
		공기질	39	45.8			○
도시환경	수질	1	69.0	○			
	도심부의 녹피현황	10	59.8	○			
접근성	국제네트워크	국제선 여객 직항편 취항도시 수	21	50.4		○	
	항공수송능력	공항 승객수	9	56.0	○		
	시내교통	철도역 밀도	36	44.2			○
		대중교통 이용률	35	43.6			○
		공항까지의거리	49	24.1			○
	교통편의성	통근시간	23	49.2		○	
		평균주행속도	28	49.7		○	
택시, 자전거 이용 편의성		38	41.5			○	

주 : 강점은 순위가 상위 20위 이내 그리고 편차점수가 51점 이상일 것, 약점은 순위가 30위 이상 그리고 편차점수가 47점 이하. 보통은 강점 또는 약점 기준에 해당되나 두 개의 기준 모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적용.

3. 수원시 도시경쟁력 강·약점 보완 전략

1) 수원시 강·약점 지표에 대한 정책 방향

- 수원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선정된 강점과 약점 지표에 대해서 수원시의 강점 지표는 유지하면서 약점 지표 강화를 위한 수원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경제 분야 : 수원시는 다양한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여 근로자들에게 폭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등 경제적 자유도를 높여야 함
 - 연구개발 분야 : 수원시 내 대학 및 연구소 간의 연구협력 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내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유치 노력과 더불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또한 특허권 수 증가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문화교류 분야 : 수원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 국내외 방문객을 유도해야 함. 이와 연계하여 대형쇼핑몰 유치는 최소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채로운 쇼핑 및 식당 시설 확대와 브랜드를 개발하여 방문객의 매력도를 높여야 함. 또한 수원컨벤션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 비즈니스 및 문화 교류를 위한 문화시설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함
 - 거주적합성 분야 :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확대하고, 최근 행정업무를 위해 타 지자체에서 도입중인 AI 행정보조 인프라 등을 구축해야함.
 - 환경 분야 : 온실가스 감축 등 실현가능성 있는 수원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자원순환역 등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함. 수원천, 원천천 등의 지역 특성을 도시계획단계부터 반영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거주 만족도를 더욱 높여야 함
 - 접근성 분야 :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로 인하여 쇠퇴되고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즉, 수원버스터미널과 연계하여 인천 및 김포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함

2) 수원시 강·약점 지표의 효율적인 관리 방향

- 수원시의 강점과 약점을 나타내는 도시경쟁력 지표에 대해서 전략적인 관리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전략적인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 방안은 수원시의 단독 의사결정으로 “통제가 가능한 지표”, 수원시 단독으로 통제·관리가 어려우나 부분적인 책임 또는 수원시와 중앙정부, 민간이 상호 협력한다면

“개선이 가능한 지표”, 수원시의 통제·관리 영역 밖이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관심 지표”로 구분하여 관리

- “통제가 가능한 지표”: 관광명소, 야간활동선택, 박물관 수, 경기장 수, 수질, 도심부 녹피현황 등, ICT 준비도, 세계문화유산접근성 등
- “개선이 가능한 지표”: 스타트업 수, 호텔객실수, 쇼핑·식당 만족도, 외국인거주자수, 해외방문객수, 재생에너지비율, 대중교통이용율, 철도역밀도, 택시·자전거 이용 편의성, 살인건수, 기대수명, 재활용비율, 공항승객수, 세계 500대 기업수, 법인세율, 세계최고대학, CO2배출량, 통근시간, 평균주행속도 등
-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표”: GRDP, 증권거래소의 주식시가 총액, 종사자수, 실업률, 의사수, 공기질, 공항까지의 거리, 주택임대료, 물가수준, 경제자유도, 학업성취도, 평균임금수준 등

그림 3-5 |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점과 약점 진단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수원시는 1인 가구 증가, 고령사회 도래,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최근 국내외 주요 도시는 해당 도시의 이해, 자치역량 및 지역 내 자원에 대한 진단, 전략적 추진사업 발굴, 미래 발전방향 설정 등을 위해 ‘도시경쟁력’ 평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됨
 -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인재 확보, 관광 산업 발전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
- 수원시는 현재 추진 중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빛정책과 함께 “사람, 기업,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힘을 갖춘 수원시”를 시정목표로 하여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저성장의 초입단계에서 정책 방향을 글로벌 도시에 포커스를 맞춰야만 도시경쟁력 확보 가능
- 본 연구는 모리기념재단의 GPCI(Global Power City Index) 평가 방식을 수원시에 적용하고,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심층 진단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분야에 대한 도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 내용은 GPCI 체계에서 글로벌 도시 49개를 대상으로 수원시 종합 도시경쟁력을 분석하고, 각 항목과 지표별로 세분화된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를 도출하였음
 - 수원시 도시경쟁력 종합평가 결과 수원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은 963.9점(평균 1,039.8점)으로 49개 글로벌 도시 중에서 32위에 해당
 - 6개 분야별 도시경쟁력 평가 결과 수원시의 강점은 거주적합성(4위)과 환경(9위) 분야, 약점은 경제(38위) 및 문화교류(37위) 그리고 교통접근성(41위) 분야
 - 25개 항목별 도시경쟁력 평가 결과 중에서 20위권 이내에 포함되는 항목은 10개 해당
- 수원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점과 약점 지표에 대해서 수원시의 강점 지표는 유지하면서 약점 지표 강화를 위한 수원시의 새로운 정책이 요구됨

-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수원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도시 간 순위를 제시하였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도시의 상대적 순위가 아니라 지표, 항목, 분야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주력해야만 함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도시경쟁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필요
- 따라서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와 더불어 수원시의 도시 현황 변화에 따른 원인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도시경쟁력을 점수화함에 있어 일부 지표들은 구득이 어려워 제외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 점수 또는 순위 편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GPCI는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아래와 같은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고, 수원시 도시 정책 수립 시 GPCI 외에도 다양한 지표와 평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볼 필요 있음
 - GPCI는 매년 세계 주요도시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점(코로나19)은 도시 간 순위변동에 원인으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홍콩의 민주화 운동(2019년)과 같은 정치적 문제 등에 의해서 변화되는 지표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
 - 위와 같은 상황에서 GRDP 성장률과 같은 경제 지표는 도시의 실제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또한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다양성을 완전히 포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나 폭우,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반영되지 못함
 - 이외에도 외국에서는 도시 자체의 경쟁력 평가보다도 생활권 개념으로 평가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향후 이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1) 「US news and world report」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rankings>

제2절 정책제언

1. 글로벌 도시경쟁력 연구전담 조직 신설

-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 주관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 생성 및 관리 전담조직 구성
 -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도시정책지표를 관리함과 동시에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성 및 업데이트 그리고 지표별 모니터링 수행
 - 도시경쟁력 평가지표 중에서 설문조사가 요구되는 지표는 별도 조사 수행
 - 수원시 정책기획과에서 수원시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 관리 및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우선 발굴 및 추진
 - 수원시 도시경쟁력 지표와 관련된 부서는 “수원시 도시경쟁력 강화 TF(가칭)” 구성
- 도시경쟁력 연구전담 조직은 GPCI가 갖는 한계점을 개선하여 수원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GPCI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적합성, 환경, 접근성의 6가지 지표를 통해 도시를 평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된 영역은 도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어려움
 - GPCI는 매년 평가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술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글로벌 지표로서 GPCI는 각 도시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수원시 도시경쟁력 전담조직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음
 - GPCI 지표 업데이트 및 관리
 - 포용성, 지속가능성, 혁신성 등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더 포괄적인 수원시의 도시경쟁력 평가
 - AI 서비스, 전기차 충전소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는 지표를 포함시켜 수원시의 혁신 역량 평가
 -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나 경제 지표를 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절감 노력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

2. 강·약점 지표를 고려한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 수원시는 거주 적합성과 환경적 요소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문화교류, 접근성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
- 수원시는 거주 적합성과 환경에서 나타나는 강점을 더욱 강화하면서, 접근성과 문화교류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과 거주적합성의 도시경쟁력 강점 측면은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며, 수원을 살기 좋은 도시, 거주가 편한 도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갖는 새로운 수원시 브랜드를 갖추어야 함
 - 일본의 도쿄는 공원과 녹지 공간을 도시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중
 - 현재의 적절한 물가와 주택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되 다양한 도시생활 환경 변화에 맞춰 다변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요구됨
 - 경제, 문화교류, 접근성의 도시경쟁력 약점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한 대규모 공간 대전환이 요구됨
 -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고, 태양광 설치 지원금을 제공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높인 사례를 참고하여 수원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원정책이 필요함
 - 일본의 오사카는 대중교통을 통한 연결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통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참고하여 수원시도 대중교통 노선 확장과 정기적인 운행 증가,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함
 - 덴마크 코펜하겐은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고 택시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 사례 참고
 - 수원시는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같은 문화 시설을 증설하여 관광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 3대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됨
 - 이외에도 호텔과 레스토랑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특히 수원시 특색을 살린 음식점 확대 및 홍보도 필요함

3. JPCI를 통해 본 수원시 성장잠재력 진단 및 도시전략 마련

- 수원시는 사람, 기업,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힘과 해당 도시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성장잠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성장 잠재력은 국내 주요 도시들 간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수원시만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한 이후에 도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전략 수립이 가능함
- 일본은 2018년부터 JPCI(Japan Power City Index)를 통해 136개 도시와 도쿄도의 23개 구를 대상으로 해당도시의 일본 내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음
 - JPCI의 평가 방법론은 GPCI의 평가방법론과 동일하나 분야·항목·지표를 일본 내 도시경쟁력 평가에 맞춰 재설정함
 - (GPCI) 6개 분야 26개 항목 70개 지표 :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적합성, 환경, 접근성
 - (JPCI) 6개 분야 26개 항목 87개 지표 : “경제 →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일상생활 및 거주적합성”
-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JPCI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의 강·약점에 대한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원시의 성장잠재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 | JPCI 평가 항목

분야	항목	지표	분야	항목	지표	
경제 및 사업 6개 항목	경제규모	1 총 부가가치	정주여건 7개 항목	안보와 안전	43 범죄행위 인식	
		2 지역내 총 지출			44 교통사고 사망자 수	
		3 주야간 인구추진비율			45 재난상황 안전도	
	고용과 인적자원	4 고용률		46 빈집 비율	건강과 의료서비스	47 의사 수
		5 임금수준		48 병·의원, 수 및 병상 수		
		6 고등교육 이수율		49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인적자원의 다양성	7 청년층사자 입·퇴사		50 함께출산율	돌봄과 교육	51 육아 및 교육관련 혜택
		8 여성층사자 비율	52 아동 의료비 지원체계			
		9 외국인층사자 비율	53 교육기회의 다양성			
	사업 활력도	10 고령층사자 비율	54 외국인 거주자와 통합 용이성	시민생활과 복지	55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 수	
		11 신규사업제 등록 비율	56 개별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수			
		12 노동생산성	57 온라인 시장 홍보 수준			
	사업 환경	13 실업률	58 주거환경 만족도	생활 환경	59 신규주택 공급량	
		14 신규 업무용 사무실 공급	60 거주면적			
		15 경제자유구역의 수	61 소매점 밀도			
	재정	16 서비스업층사자 비율	62 식당 밀도	생활 시설	63 편의점 밀도	
		17 유연근무제 제도 도입률	64 가차분 소득			
		18 관광능력지수	65 물가수준			
		19 재정자립도	66 주거비	부(富)	67	
		20 실질 부채 상황 비율	68			
		21 장래 부담 비율	69			
연구개발 2개 항목	학술자원	22 학술 및 연구개발 총사자 비율	환경 5개 항목	기후변화 저감	67 주간 상주 인구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23 선도대학의 수			68 자금자족 가능한 재생에너지 비율	
	학업성취도	24 논문 게재 수			69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25 국제 컨설팅 회사 수		71 도시 생태환경 만족도		
26 특허 등록건 수	72 도시무 녹피비율	생태환경	73 친수공간			
문화교류 6개 항목	유형자산		27 관광시설 수 및 평가	기후	74 연간 일조시간	
			28 문화시설 수		75 연간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 일 수	
		29 도시 경관 계획 반영에 대한 적극성	76 기온 분포			
	무형자산	30 행사 개최 수	77 대기질	쾌적성	78 도시기후의 쾌적성	
		31 음악, 예술 영화 등 창의 산업 총사자 수	79 편안함의 만족도			
		32 문화, 역사, 전통 분야 교류 기회				
관광 매력도	33 숙박시설 수	교통	3개 항목	시내 교통	80 대중교통 편의성	
	34 5성급 호텔 수				81 철도역 및 버스정류장 밀도	
	35 연회장 착석 수용 규모				82 교통혼잡 정도	
교류 규모	36 관광안내소 및 병원의 다국어 대응 정도	도시 접근성	83 광역 이동 소요시간	이동 용이성	84 고속도로 접근성	
	37 주말 방문객 수		85 고속도로 나들목 수			
	38 총 관람객 수		86 통근·통학 시간			
소통 규모	39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건 수	40 관광 홍보활동	41 지자체 SNS 팔로워 수	42 도시 매력도, 전반적인 인식 및 재방문 의사		

부록

부록 I 항목별 도시경쟁력 순위

부록 II 지표별 도시경쟁력 순위

1. 시장규모

순위	도시	점수
1	뉴욕	100.0
2	도쿄	87.0
3	샌프란시스코	80.5
4	런던	78.6
5	워싱턴DC	78.4
6	취리히	65.2
7	파리	60.3
8	상하이	57.3
9	보스턴	54.9
10	베이징	54.3
11	싱가포르	52.0
12	더블린	48.3
13	로스앤젤레스	48.0
14	시드니	47.9
15	암스테르담	42.2
16	서울	41.9
17	홍콩	40.7
18	시카고	40.3
19	멜버른	39.1
20	프랑크푸르트	38.9
21	제네바	35.7
22	코펜하겐	34.3
23	오사카	32.1
24	브리셀	31.9
25	모스크바	29.4
26	스톡홀름	29.3
27	베를린	28.0
28	비엔나	24.6
29	토론토	24.5
30	밀라노	24.5
31	바르셀로나	23.0
32	헬싱키	21.2
33	이스탄불	20.9
34	텔 아비브	20.3
35	마드리드	20.2
36	자카르타	18.6
37	두바이	17.3
38	멕시코시티	17.1
39	밴쿠버	16.1
40	방콕	16.0
41	후쿠오카	15.1
42	상파울로	13.4
43	타이페이	13.3
44	부에노스아이레스	11.3
45	쿠알라룸푸르	10.9
46	수원	5.4
47	요하네스버그	3.6
48	카이로	0.9
49	뭄바이	0.0

2. 시장매력도

순위	도시	점수
1	더블린	100.0
2	홍콩	63.6
3	타이페이	63.4
4	싱가포르	63.3
5	밴쿠버	60.6
6	제네바	59.9
7	취리히	59.0
8	멜버른	58.7
9	시드니	58.3
10	코펜하겐	55.0
11	이스탄불	54.8
12	샌프란시스코	54.1
13	토론토	54.0
14	스톡홀름	52.8
15	서울	51.4
16	암스테르담	50.8
17	헬싱키	48.8
18	베를린	47.6
19	텔 아비브	46.3
20	뉴욕	44.4
21	보스턴	43.6
22	수원	41.3
23	로스앤젤레스	40.9
24	런던	39.6
25	워싱턴DC	37.9
26	쿠알라룸푸르	37.6
27	자카르타	37.1
28	시카고	35.7
29	프랑크푸르트	33.6
30	두바이	33.0
31	비엔나	30.6
32	멕시코시티	28.7
33	브리셀	25.8
34	마드리드	25.4
35	바르셀로나	24.5
36	파리	23.7
37	카이로	23.4
38	상하이	23.3
39	베이징	22.9
40	방콕	20.8
41	밀라노	18.7
42	후쿠오카	17.5
42	오사카	17.5
42	도쿄	17.5
45	모스크바	16.4
46	뭄바이	12.5
47	요하네스버그	8.8
48	상파울로	8.2
49	부에노스아이레스	0.0

3. 경제활력

순위	도시	점수
1	뉴욕	100.0
2	워싱턴DC	87.7
3	시카고	87.0
4	샌프란시스코	86.4
5	보스턴	86.3
6	베이징	84.5
6	로스앤젤레스	84.5
8	도쿄	35.3
9	상하이	22.2
10	런던	20.6
11	파리	20.3
12	오사카	13.8
13	뭄바이	13.2
14	서울	12.7
15	홍콩	11.9
16	암스테르담	9.9
17	후쿠오카	9.6
18	토론토	9.2
19	싱가포르	6.9
20	취리히	6.0
21	수원	5.9
22	밴쿠버	5.0
23	마드리드	4.9
24	타이페이	4.7
25	더블린	4.4
26	멜버른	3.7
27	상파울로	3.7
28	베를린	3.5
29	프랑크푸르트	3.3
30	제네바	3.1
31	비엔나	2.9
32	멕시코시티	2.8
33	시드니	2.8
34	스톡홀름	2.6
35	코펜하겐	2.2
36	방콕	2.1
37	쿠알라룸푸르	1.8
38	자카르타	1.8
39	요하네스버그	1.6
40	브리셀	1.6
41	이스탄불	1.2
42	밀라노	1.2
43	바르셀로나	1.0
44	모스크바	0.8
45	헬싱키	0.3
46	텔 아비브	0.3
47	두바이	0.2
48	부에노스아이레스	0.0
49	카이로	0.0

4. 인적자본

순위	도시	점수
1	상하이	100.0
2	베이징	78.1
3	도쿄	63.6
4	상파울로	55.0
5	카이로	44.1
6	방콕	42.4
7	오사카	40.5
8	뉴욕	38.4
9	서울	38.3
10	자카르타	37.6
11	뭄바이	36.9
12	런던	35.4
13	멕시코시티	34.5
14	모스크바	34.5
15	이스탄불	34.2
16	바르셀로나	28.3
17	싱가포르	26.5
18	홍콩	24.7
19	멜버른	20.3
20	두바이	18.8
21	헬싱키	18.8
22	시드니	18.5
23	로스앤젤레스	18.4
24	부에노스아이레스	17.8
25	베를린	15.8
26	요하네스버그	15.1
27	파리	13.6
28	시카고	12.8
29	마드리드	11.7
30	토론토	10.9
31	타이페이	8.7
32	쿠알라룸푸르	7.7
33	밀라노	6.9
34	더블린	6.5
35	비엔나	6.4
36	보스턴	6.0
37	브리셀	5.7
38	후쿠오카	5.7
39	텔 아비브	5.2
40	암스테르담	4.7
41	프랑크푸르트	4.3
42	샌프란시스코	3.7
43	코펜하겐	3.2
44	수원	3.1
45	워싱턴DC	3.1
46	스톡홀름	2.9
47	밴쿠버	2.2
48	취리히	1.9
49	제네바	0.0

5. 사업환경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샌프란시스코	70.5
3	취리히	66.3
4	뉴욕	64.2
5	제네바	64.0
6	워싱턴DC	54.8
7	보스턴	54.4
8	로스앤젤레스	49.3
9	시카고	48.5
10	싱가포르	48.4
11	홍콩	47.6
12	암스테르담	39.4
13	파리	37.1
14	토론토	36.5
15	두바이	36.1
16	코펜하겐	35.3
17	시드니	34.9
18	멜버른	34.1
19	프랑크푸르트	32.6
20	더블린	32.5
21	베를린	31.8
22	밴쿠버	30.5
23	스톡홀름	30.2
24	도쿄	27.4
25	마드리드	27.4
26	서울	26.4
27	텔 아비브	25.8
28	바르셀로나	25.2
29	수원	25.1
30	브리셀	24.8
31	비엔나	24.6
32	상하이	22.6
33	헬싱키	21.7
34	타이페이	20.6
35	밀라노	19.9
36	베이징	17.6
37	오사카	17.3
38	쿠알라룸푸르	14.0
39	방콕	13.2
40	후쿠오카	11.3
41	요하네스버그	11.3
42	멕시코시티	10.6
43	뭄바이	10.3
44	상파울로	8.8
45	이스탄불	8.2
46	자카르타	7.8
47	모스크바	7.2
48	부에노스아이레스	2.8
49	카이로	0.0

6. 사업 용이성

순위	도시	점수
1	두바이	100.0
2	베를린	91.7
2	프랑크푸르트	91.7
4	제네바	90.4
4	취리히	90.4
6	싱가포르	89.3
7	스톡홀름	82.0
8	홍콩	82.0
9	헬싱키	80.4
10	코펜하겐	79.2
11	타이페이	74.9
12	더블린	74.7
13	비엔나	74.4
14	암스테르담	71.5
15	토론토	70.0
16	수원	69.6
16	서울	69.6
18	밴쿠버	69.0
19	파리	67.5
20	텔 아비브	66.0
21	보스턴	65.6
22	워싱턴DC	65.2
23	브리셀	64.7
23	런던	64.7
25	로스앤젤레스	64.2
25	샌프란시스코	64.2
27	방콕	63.8
28	시카고	63.2
29	멜버른	62.9
29	시드니	62.9
31	베이징	62.0
31	상하이	62.0
33	쿠알라룸푸르	58.4
34	자카르타	56.9
35	모스크바	55.4
36	바르셀로나	53.6
36	마드리드	53.6
38	뉴욕	51.8
39	후쿠오카	50.6
39	오사카	50.6
39	도쿄	50.6
42	밀라노	50.1
43	요하네스버그	44.0
44	멕시코시티	43.5
45	카이로	39.3
46	이스탄불	34.2
47	뭄바이	28.6
48	상파울로	24.3
49	부에노스아이레스	0.0

7. 학술자원

순위	도시	점수	
1	서울	100.0	
2	타이페이	91.7	
3	보스턴	66.7	
4	홍콩	50.0	
4	멜버른	50.0	
4	시드니	50.0	
4	뉴욕	50.0	
8	도쿄	41.7	
8	쿠알라룸푸르	41.7	
10	런던	33.3	
10	토론토	33.3	
10	로스앤젤레스	33.3	
13	파리	25.0	
13	베를린	25.0	
13	이스탄불	25.0	
13	시카고	25.0	
13	샌프란시스코	25.0	
13	워싱턴DC	25.0	
13	상파울로	25.0	
20	수원	16.7	
20	브리셀	16.7	
20	더블린	16.7	
20	밀라노	16.7	
20	암스테르담	16.7	
20	바르셀로나	16.7	
20	마드리드	16.7	
20	스톡홀름	16.7	
20	취리히	16.7	
20	카이로	16.7	
20	요하네스버그	16.7	
20	두바이	16.7	
20	베이징	16.7	
20	상하이	16.7	
20	오사카	16.7	
20	싱가포르	16.7	
20	방콕	16.7	
20	밴쿠버	16.7	
38	비엔나	8.3	
38	코펜하겐	8.3	
38	헬싱키	8.3	
38	프랑크푸르트	8.3	
38	모스크바	8.3	
38	제네바	8.3	
38	텔 아비브	8.3	
38	뭄바이	8.3	
38	후쿠오카	8.3	
47	자카르타	0.0	
47	부에노스아이레스	0.0	
47	멕시코시티	0.0	

8. 연구환경

순위	도시	점수	
1	싱가포르	100.0	
2	베이징	94.6	
2	상하이	94.6	
4	타이페이	94.1	
5	수원	92.2	
5	서울	92.2	
7	후쿠오카	91.3	
7	오사카	91.3	
7	도쿄	91.3	
10	토론토	91.1	
10	밴쿠버	91.1	
12	더블린	87.8	
13	멜버른	86.7	
13	시드니	86.7	
15	제네바	86.5	
16	헬싱키	85.9	
16	보스턴	85.9	
16	시카고	85.9	
16	로스앤젤레스	85.9	
16	뉴욕	85.9	
16	샌프란시스코	85.9	
16	워싱턴DC	85.9	
23	취리히	85.7	
23	런던	85.7	
25	홍콩	85.3	
26	코펜하겐	85.0	
27	모스크바	84.3	
27	스톡홀름	84.3	
29	비엔나	83.9	
29	브리셀	83.9	
31	베를린	83.0	
31	프랑크푸르트	83.0	
33	암스테르담	82.6	
34	파리	82.2	
35	바르셀로나	82.0	
35	마드리드	82.0	
37	밀라노	81.7	
38	텔 아비브	79.6	
39	이스탄불	78.7	
40	두바이	71.1	
41	멕시코시티	68.7	
42	쿠알라룸푸르	66.1	
43	상파울로	64.6	
44	부에노스아이레스	64.1	
45	방콕	63.9	
46	자카르타	58.5	
47	카이로	52.0	
48	뭄바이	17.2	
49	요하네스버그	0.0	

9. 혁신

순위	도시	점수
1	시드니	100.0
2	샌프란시스코	78.9
3	도쿄	35.3
3	싱가포르	35.3
5	뮌바이	35.0
6	로스앤젤레스	32.3
7	토론토	31.0
8	뉴욕	26.9
9	시카고	24.4
10	워싱턴DC	23.4
11	보스턴	21.5
12	서울	20.0
13	홍콩	15.5
14	밴쿠버	13.7
15	상파울로	13.4
16	베이징	13.2
17	멜버른	12.9
18	런던	12.1
19	파리	11.0
20	상하이	9.9
21	자카르타	9.2
22	베를린	8.8
23	스톡홀름	5.5
23	텔 아비브	5.5
25	암스테르담	5.0
26	더블린	4.5
27	쿠알라룸푸르	4.4
27	멕시코시티	4.4
29	바르셀로나	3.9
30	밀라노	3.4
30	마드리드	3.4
32	프랑크푸르트	2.8
33	오사카	2.6
34	타이페이	2.5
35	비엔나	2.3
35	모스크바	2.3
35	취리히	2.3
38	방콕	2.0
39	코펜하겐	1.7
39	제네바	1.7
39	이스탄불	1.7
42	브리셀	1.2
42	두바이	1.2
42	부에노스아이레스	1.2
45	헬싱키	0.7
45	요하네스버그	0.7
47	카이로	0.1
48	수원	0.0
48	후쿠오카	0.0

10. 관광자원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파리	97.3
3	도쿄	90.8
4	서울	57.6
5	뉴욕	55.3
6	베를린	54.4
7	비엔나	54.2
8	모스크바	53.9
9	바르셀로나	52.3
10	마드리드	49.0
11	이스탄불	41.0
12	수원	38.5
13	두바이	34.8
14	브리셀	33.8
15	베이징	32.7
16	밀라노	30.1
17	암스테르담	29.5
18	카이로	24.5
19	싱가포르	23.9
20	방콕	23.5
21	샌프란시스코	23.5
22	시드니	21.7
23	시카고	21.6
24	토론토	20.8
25	멕시코시티	20.6
26	오사카	20.4
27	멜버른	20.1
28	더블린	19.4
29	스톡홀름	17.9
30	상파울로	16.6
31	부에노스아이레스	16.3
32	로스앤젤레스	15.7
33	코펜하겐	14.4
34	워싱턴DC	13.7
35	밴쿠버	12.8
36	뮌바이	12.3
37	텔 아비브	12.2
38	프랑크푸르트	11.4
39	취리히	11.0
40	헬싱키	10.1
41	제네바	8.0
42	요하네스버그	7.9
43	후쿠오카	6.5
44	홍콩	6.4
45	상하이	4.5
46	보스턴	4.3
47	타이페이	3.9
48	쿠알라룸푸르	3.8
49	자카르타	0.0

11. 문화시설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뉴욕	51.4
3	베이징	47.3
4	상하이	43.1
5	파리	40.8
6	부에노스아이레스	39.9
7	이스탄불	38.0
8	베를린	34.1
9	브리셀	32.8
10	모스크바	30.7
11	도쿄	29.3
12	로스앤젤레스	29.2
13	시드니	29.0
14	멕시코시티	26.8
15	서울	26.5
16	바르셀로나	26.4
17	암스테르담	25.4
18	비엔나	25.2
19	마드리드	23.3
20	보스턴	23.1
21	멜버른	20.2
22	시카고	20.0
23	두바이	20.0
24	워싱턴DC	18.9
25	스톡홀름	18.5
26	샌프란시스코	15.7
27	코펜하겐	15.1
28	토론토	14.6
29	밀라노	14.5
30	뭄바이	13.1
31	더블린	13.0
32	상파울로	12.7
33	취리히	11.0
34	프랑크푸르트	9.9
35	싱가포르	8.9
36	카이로	8.6
37	밴쿠버	8.0
38	헬싱키	7.4
39	타이페이	7.1
40	자카르타	6.2
41	쿠알라룸푸르	5.8
42	텔 아비브	5.7
43	방콕	5.4
44	요하네스버그	5.1
45	오사카	4.1
46	제네바	3.1
47	홍콩	1.7
48	후쿠오카	1.2
49	수원	0.0

12. 방문객 편의시설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도쿄	98.8
3	파리	93.0
4	뉴욕	73.5
5	두바이	68.5
6	방콕	68.4
7	이스탄불	61.0
8	상하이	47.7
9	싱가포르	47.3
10	시카고	44.2
11	서울	43.9
12	홍콩	40.1
13	모스크바	35.5
14	로스앤젤레스	33.0
15	바르셀로나	32.5
16	베를린	30.0
17	베이징	30.0
18	오사카	29.7
19	마드리드	27.8
20	암스테르담	24.7
21	상파울로	22.7
22	쿠알라룸푸르	22.6
23	밀라노	22.4
24	시드니	21.3
25	부에노스아이레스	17.9
26	토론토	16.5
27	비엔나	15.8
28	멜버른	15.5
29	샌프란시스코	15.3
30	타이페이	14.9
31	워싱턴DC	14.8
32	자카르타	14.6
33	뭄바이	13.3
34	카이로	11.1
35	브리셀	10.2
36	프랑크푸르트	8.9
37	코펜하겐	8.7
38	멕시코시티	7.8
39	보스턴	7.5
40	스톡홀름	6.5
41	더블린	6.2
42	텔 아비브	5.4
43	후쿠오카	5.0
44	취리히	4.5
45	요하네스버그	4.2
46	밴쿠버	3.2
47	제네바	0.8
48	헬싱키	0.3
49	수원	0.0

13. 국제교류

순위	도시	점수
1	두바이	100.0
2	런던	84.2
3	이스탄불	64.1
4	싱가포르	53.8
5	멜버른	33.2
6	방콕	32.2
7	뉴욕	29.3
8	파리	28.1
9	시드니	24.0
10	바르셀로나	22.9
11	비엔나	22.8
12	마드리드	21.3
13	암스테르담	19.0
14	쿠알라룸푸르	18.8
15	도쿄	17.4
16	스톡홀름	15.9
17	코펜하겐	15.7
18	로스앤젤레스	14.1
19	토론토	12.2
20	밀라노	11.6
21	상파울로	11.4
22	브리셀	11.3
23	서울	11.1
24	멕시코시티	11.0
25	요하네스버그	10.6
26	홍콩	10.3
27	밴쿠버	9.4
28	프랑크푸르트	8.7
29	오사카	7.4
30	시카고	5.5
31	부에노스아이레스	5.1
32	취리히	4.7
33	상하이	4.4
34	더블린	4.1
35	샌프란시스코	3.6
36	카이로	2.9
37	텔 아비브	2.6
38	제네바	2.5
39	모스크바	2.3
40	헬싱키	2.3
41	자카르타	1.8
42	보스턴	1.5
43	워싱턴DC	1.4
44	후쿠오카	0.6
45	수원	0.4
46	베를린	0.3
46	베이징	0.3
48	뭄바이	0.1
49	타이페이	0.0

14. 노동환경

순위	도시	점수
1	요하네스버그	100.0
2	브리셀	35.2
3	바르셀로나	31.8
3	마드리드	31.8
5	비엔나	26.7
6	헬싱키	25.2
7	이스탄불	24.2
8	부에노스아이레스	22.6
9	토론토	21.1
9	상파울로	21.1
11	스톡홀름	20.4
12	카이로	19.5
13	파리	18.6
14	로스앤젤레스	17.0
15	밀라노	16.0
16	밴쿠버	14.8
16	워싱턴DC	14.8
18	베를린	14.5
18	프랑크푸르트	14.5
20	자카르타	13.8
21	두바이	12.3
21	베이징	12.3
21	상하이	12.3
21	샌프란시스코	12.3
25	더블린	10.1
25	암스테르담	10.1
25	뭄바이	10.1
25	뉴욕	10.1
29	모스크바	9.7
29	런던	9.7
31	멜버른	9.4
31	시드니	9.4
31	시카고	9.4
34	수원	9.1
34	텔 아비브	9.1
36	보스턴	7.5
37	타이페이	7.2
38	쿠알라룸푸르	6.6
39	코펜하겐	6.0
39	제네바	6.0
39	취리히	6.0
39	홍콩	6.0
43	멕시코시티	5.3
44	후쿠오카	5.0
44	오사카	5.0
44	도쿄	5.0
47	싱가포르	4.7
48	서울	4.1
49	방콕	0.0

15. 생활비

순위	도시	점수
1	뭄바이	100.0
2	자카르타	97.7
3	쿠알라룸푸르	93.4
4	방콕	90.3
5	상파울로	89.3
6	멕시코시티	88.0
7	요하네스버그	85.3
8	수원	82.7
9	카이로	81.0
10	후쿠오카	81.0
11	타이페이	78.1
12	오사카	77.2
13	서울	76.8
14	도쿄	72.6
15	베를린	70.8
15	베이징	70.8
17	모스크바	69.6
18	마드리드	65.4
19	비엔나	62.1
20	상하이	62.0
21	바르셀로나	62.0
22	브리셀	58.3
23	헬싱키	57.2
24	프랑크푸르트	56.3
25	멜버른	55.4
26	이스탄불	53.9
27	시드니	53.3
28	홍콩	53.1
29	시카고	52.2
30	부에노스아이레스	51.3
31	밴쿠버	49.5
32	토론토	49.3
33	밀라노	48.9
34	두바이	47.6
35	스톡홀름	46.9
36	파리	45.6
37	암스테르담	42.2
38	워싱턴DC	41.0
39	로스앤젤레스	36.9
40	텔 아비브	35.8
41	코펜하겐	35.4
42	싱가포르	32.2
43	더블린	28.8
44	보스턴	28.6
45	샌프란시스코	24.8
46	런던	20.1
47	뉴욕	17.5
48	제네바	7.0
49	취리히	0.0

16. 안보와 안전

순위	도시	점수
1	홍콩	100.0
2	싱가포르	100.0
3	보스턴	100.0
4	워싱턴DC	99.9
5	로스앤젤레스	99.9
5	샌프란시스코	99.9
7	시카고	99.9
8	방콕	99.5
8	밴쿠버	99.5
10	토론토	99.4
11	두바이	99.1
12	부에노스아이레스	98.6
13	취리히	98.5
14	수원	98.5
15	제네바	98.5
16	베이징	98.4
17	상하이	98.4
18	서울	97.6
19	암스테르담	97.6
20	프랑크푸르트	97.6
21	베를린	97.5
22	상파울로	97.5
23	더블린	97.3
23	후쿠오카	97.3
25	비엔나	97.3
26	런던	97.2
27	쿠알라룸푸르	97.0
28	코펜하겐	96.9
29	밀라노	96.9
30	타이페이	96.7
31	파리	96.7
32	브리셀	96.6
33	자카르타	96.4
34	헬싱키	96.3
35	이스탄불	95.9
36	마드리드	95.8
37	바르셀로나	95.7
38	시드니	95.5
39	도쿄	95.5
40	스톡홀름	95.3
41	오사카	95.2
42	멜버른	94.8
43	뭄바이	94.0
44	텔 아비브	93.8
45	뉴욕	91.6
46	카이로	89.3
47	모스크바	81.8
48	멕시코시티	57.7
49	요하네스버그	0.0

17. 웰빙

순위	도시	점수
1	스톡홀름	100.0
2	제네바	99.6
2	취리히	99.6
4	헬싱키	98.7
5	코펜하겐	98.2
6	더블린	95.2
7	멜버른	94.2
7	시드니	94.2
9	암스테르담	93.5
10	후쿠오카	93.1
10	오사카	93.1
10	도쿄	93.1
13	토론토	91.0
13	밴쿠버	91.0
15	브리셀	88.8
16	베를린	88.4
16	프랑크푸르트	88.4
18	파리	87.7
19	비엔나	85.9
20	바르셀로나	85.3
20	마드리드	85.3
22	수원	83.7
22	서울	83.7
24	런던	83.1
25	타이페이	82.0
26	밀라노	81.5
27	싱가포르	73.3
28	텔 아비브	73.0
29	홍콩	71.2
30	보스턴	66.7
30	시카고	66.7
30	로스앤젤레스	66.7
30	뉴욕	66.7
30	샌프란시스코	66.7
30	워싱턴DC	66.7
36	부에노스아이레스	52.2
37	쿠알라룸푸르	42.3
38	두바이	40.6
39	상파울로	36.7
40	방콕	31.1
41	멕시코시티	22.5
42	이스탄불	22.1
43	베이징	20.1
43	상하이	20.1
45	자카르타	18.0
46	요하네스버그	16.0
47	뭄바이	13.4
48	모스코바	6.4
49	카이로	0.0

18. 생활편의

순위	도시	점수
1	서울	100.0
2	뉴욕	84.4
3	도쿄	78.2
4	싱가포르	72.9
5	시드니	71.0
6	멜버른	69.1
7	로스앤젤레스	65.5
8	홍콩	61.2
9	시카고	60.4
10	헬싱키	54.5
11	스톡홀름	54.1
12	암스테르담	53.8
13	토론토	53.3
14	샌프란시스코	52.9
15	제네바	52.7
15	취리히	52.7
17	코펜하겐	52.0
18	보스턴	52.0
18	워싱턴DC	52.0
20	수원	51.9
21	밴쿠버	51.6
22	베를린	51.6
22	프랑크푸르트	51.6
24	오사카	50.9
25	타이페이	48.8
26	상파울로	48.4
27	런던	47.2
28	텔 아비브	46.8
29	후쿠오카	46.3
30	비엔나	45.1
31	파리	43.2
32	더블린	39.4
33	브리셀	38.2
34	바르셀로나	36.7
34	마드리드	36.7
36	베이징	36.7
36	상하이	36.7
38	밀라노	31.6
39	두바이	30.5
40	부에노스아이레스	27.7
41	멕시코시티	26.9
42	모스코바	23.6
43	방콕	21.3
44	쿠알라룸푸르	20.6
45	뭄바이	19.3
46	이스탄불	13.4
47	자카르타	10.3
48	카이로	0.2
49	요하네스버그	0.0

19. 지속가능성

순위	도시	점수
1	코펜하겐	100.0
2	스톡홀름	96.7
3	헬싱키	90.3
4	멜버른	80.8
4	시드니	80.8
6	비엔나	80.4
7	후쿠오카	75.2
7	오사카	75.2
7	도쿄	75.2
10	베를린	74.2
11	타이페이	72.6
12	서울	63.7
13	싱가포르	61.3
14	바르셀로나	60.3
15	마드리드	56.9
16	상파울로	56.4
17	밀라노	54.7
18	수원	52.8
19	더블린	48.1
20	프랑크푸르트	48.1
21	쿠알라룸푸르	45.9
22	브리셀	45.7
23	취리히	45.3
24	베이징	45.0
24	상하이	45.0
26	파리	44.8
27	방콕	40.7
28	이스탄불	40.4
29	보스턴	39.3
29	시카고	39.3
29	로스앤젤레스	39.3
29	뉴욕	39.3
29	샌프란시스코	39.3
29	워싱턴DC	39.3
35	런던	35.9
36	홍콩	32.9
37	제네바	32.1
38	자카르타	30.0
39	뭄바이	29.4
40	토론토	21.1
40	밴쿠버	21.1
42	모스크바	15.8
43	암스테르담	10.3
44	카이로	9.3
45	부에노스아이레스	7.8
46	멕시코시티	5.5
47	요하네스버그	4.0
48	텔 아비브	3.6
49	두바이	0.0

20. 공기질과 쾌적성

순위	도시	점수
1	헬싱키	100.0
2	스톡홀름	99.3
3	멜버른	99.0
4	시드니	98.3
5	더블린	98.0
6	밴쿠버	96.8
7	코펜하겐	95.7
8	취리히	94.5
9	비엔나	93.8
10	런던	93.4
11	암스테르담	93.4
12	마드리드	93.0
13	브리셀	92.6
14	제네바	92.6
15	부에노스아이레스	92.4
16	파리	90.8
17	타이페이	90.6
18	프랑크푸르트	89.4
19	바르셀로나	89.4
20	토론토	88.7
21	베를린	88.7
22	도쿄	87.9
23	싱가포르	87.5
24	홍콩	86.2
25	오사카	86.2
26	후쿠오카	85.7
27	상파울로	84.2
28	모스크바	83.4
29	텔 아비브	79.3
30	이스탄불	77.9
31	밀라노	77.9
32	요하네스버그	77.9
33	수원	75.9
34	서울	75.6
35	방콕	74.3
36	샌프란시스코	73.9
37	멕시코시티	72.7
38	쿠알라룸푸르	72.6
39	보스턴	70.8
40	로스앤젤레스	68.5
41	뉴욕	65.4
42	워싱턴DC	65.3
43	시카고	63.4
44	카이로	44.3
45	두바이	42.8
46	자카르타	39.9
47	뭄바이	29.8
48	상하이	7.9
49	베이징	0.0

21. 도시환경

순위	도시	점수
1	비엔나	100.0
2	수원	99.8
3	헬싱키	98.1
4	스톡홀름	96.6
5	제네바	94.1
6	코펜하겐	91.5
7	암스테르담	91.3
8	마드리드	90.7
9	프랑크푸르트	87.2
10	베를린	84.1
11	취리히	79.3
12	런던	73.0
13	더블린	69.3
14	텔 아비브	66.4
15	워싱턴DC	63.0
16	브리셀	62.2
17	시카고	61.9
18	모스크바	61.9
19	부에노스아이레스	57.9
20	멕시코시티	57.5
21	두바이	56.9
22	쿠알라룸푸르	55.8
23	밴쿠버	55.2
24	보스턴	54.0
25	상파울로	53.4
26	파리	53.3
27	멜버른	52.7
28	뉴욕	52.0
29	방콕	50.9
30	시드니	50.4
31	토론토	50.4
32	샌프란시스코	50.0
33	밀라노	49.7
34	뭄바이	47.8
35	로스앤젤레스	47.8
36	자카르타	46.7
37	싱가포르	46.6
38	홍콩	45.0
39	타이페이	44.1
40	바르셀로나	43.2
41	후쿠오카	42.4
42	도쿄	41.5
43	서울	39.9
44	오사카	39.1
45	요하네스버그	36.5
46	상하이	35.7
47	베이징	26.9
48	이스탄불	21.4
49	카이로	0.0

22. 국제 네트워크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파리	81.8
3	프랑크푸르트	78.5
4	암스테르담	72.6
5	두바이	72.0
6	이스탄불	70.1
7	브리셀	66.6
8	밀라노	58.2
9	취리히	51.6
10	비엔나	51.1
11	더블린	48.4
12	코펜하겐	45.9
13	마드리드	42.7
14	바르셀로나	40.8
15	스톡홀름	39.4
16	텔 아비브	38.9
17	토론토	38.3
18	카이로	35.6
19	제네바	34.8
19	뉴욕	34.8
21	수원	33.4
21	싱가포르	33.4
21	서울	33.4
24	방콕	32.3
25	헬싱키	29.9
26	모스크바	27.4
27	도쿄	25.0
28	홍콩	23.9
29	쿠알라룸푸르	22.3
30	로스앤젤레스	16.8
31	타이페이	16.6
31	시카고	16.6
33	밴쿠버	14.9
34	워싱턴DC	14.7
35	요하네스버그	13.9
36	베를린	12.8
36	베이징	12.8
38	멕시코시티	12.5
39	상하이	11.4
39	뭄바이	11.4
41	보스턴	10.6
41	샌프란시스코	10.6
43	시드니	10.1
43	상파울로	10.1
45	자카르타	9.0
46	부에노스아이레스	7.6
47	멜버른	6.8
48	오사카	6.5
49	후쿠오카	0.0

23. 항공 수송 능력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뉴욕	85.6
3	도쿄	67.2
4	상하이	57.0
5	두바이	51.1
6	이스탄불	44.5
7	로스앤젤레스	43.9
8	시카고	43.2
9	수원	40.2
9	서울	40.2
11	파리	39.3
12	암스테르담	35.9
13	마드리드	35.0
14	프랑크푸르트	34.5
15	싱가포르	34.2
16	모스크바	32.4
17	베이징	30.6
18	방콕	29.9
19	뭄바이	29.8
20	워싱턴DC	29.2
21	바르셀로나	28.8
22	자카르타	28.3
23	멕시코시티	27.9
24	쿠알라룸푸르	27.1
25	샌프란시스코	27.0
26	토론토	25.7
27	밀라노	24.0
28	상파울로	23.6
29	보스턴	23.3
30	홍콩	22.8
31	시드니	22.0
32	타이페이	20.0
33	더블린	17.9
34	멜버른	17.2
35	오사카	16.7
36	비엔나	16.5
37	취리히	16.1
38	코펜하겐	14.8
39	카이로	14.4
40	밴쿠버	13.7
41	베를린	12.6
42	브리셀	12.1
43	스톡홀름	11.8
44	텔 아비브	11.4
45	요하네스버그	9.2
46	제네바	8.6
47	헬싱키	7.9
48	부에노스아이레스	4.9
49	후쿠오카	0.0

24. 시내교통

순위	도시	점수
1	파리	100.0
2	도쿄	88.8
3	바르셀로나	83.5
4	서울	83.2
5	싱가포르	82.1
6	취리히	81.5
7	홍콩	75.2
8	스톡홀름	74.5
9	보스턴	70.0
10	샌프란시스코	68.6
11	후쿠오카	65.9
12	비엔나	65.2
13	뉴욕	63.8
14	코펜하겐	61.2
15	제네바	61.0
16	프랑크푸르트	57.7
17	더블린	55.0
18	부에노스아이레스	54.5
19	시드니	53.8
20	헬싱키	53.3
21	타이페이	51.7
22	마드리드	50.2
23	시카고	47.6
24	브리셀	47.3
25	밴쿠버	46.4
26	베를린	44.1
27	토론토	42.4
28	런던	42.1
29	멜버른	41.8
30	상파울로	40.4
31	멕시코시티	40.0
32	카이로	37.8
33	암스테르담	37.4
34	상하이	36.9
35	밀라노	36.5
36	두바이	36.0
37	뭄바이	35.7
38	오사카	35.4
39	모스크바	32.6
40	베이징	30.7
41	워싱턴DC	28.4
42	텔 아비브	28.3
43	자카르타	26.9
44	이스탄불	25.2
45	요하네스버그	24.6
46	방콕	22.5
47	쿠알라룸푸르	20.1
48	로스앤젤레스	10.6
49	수원	0.0

25. 교통 편의성

순위	도시	점수	
1	프랑크푸르트	100.0	
2	비엔나	95.4	
3	오사카	94.1	
4	헬싱키	90.5	
5	취리히	89.8	
6	제네바	85.1	
7	스톡홀름	84.4	
8	암스테르담	82.3	
9	베를린	81.4	
10	두바이	80.3	
11	코펜하겐	80.3	
12	후쿠오카	77.4	
13	마드리드	72.6	
14	바르셀로나	71.5	
15	밀라노	67.7	
16	시드니	65.0	
17	홍콩	62.5	
18	워싱턴DC	58.9	
19	싱가포르	58.4	
20	브리셀	55.8	
21	도쿄	54.4	
22	시카고	54.1	
23	쿠알라룸푸르	53.3	
24	멜버른	52.5	
25	요하네스버그	52.0	
26	밴쿠버	51.6	
27	보스턴	49.3	
28	타이페이	49.2	
29	샌프란시스코	46.9	
30	뉴욕	45.7	
31	텔 아비브	44.9	
32	더블린	44.8	
33	런던	44.7	
34	파리	41.5	
35	로스앤젤레스	40.5	
36	서울	37.9	
37	수원	37.7	
38	카이로	35.6	
39	방콕	33.7	
40	토론토	28.7	
41	모스크바	26.9	
42	부에노스아이레스	20.3	
43	상하이	18.7	
44	베이징	16.3	
45	상파울로	15.9	
46	뭄바이	9.2	
47	자카르타	7.0	
48	이스탄불	1.7	
49	멕시코시티	0.0	

1. GRDP

순위	도시	점수
1	뉴욕	100.0
2	도쿄	90.6
3	런던	79.6
4	상하이	73.3
5	베이징	68.1
6	싱가포르	45.3
7	서울	44.0
8	시드니	40.3
9	홍콩	39.1
10	로스앤젤레스	34.2
11	모스크바	33.5
12	멜버른	32.1
13	파리	30.0
14	이스탄불	25.3
15	시카고	23.1
16	자카르타	20.4
17	베를린	19.4
18	오사카	18.5
19	샌프란시스코	18.3
20	멕시코시티	18.0
21	방콕	16.6
22	상파울로	15.6
23	워싱턴DC	14.7
24	토론토	14.1
25	마드리드	12.9
26	두바이	11.3
27	비엔나	10.9
28	브리셀	9.4
29	보스턴	9.4
30	암스테르담	9.3
31	바르셀로나	8.5
32	밀라노	7.8
33	취리히	7.4
34	프랑크푸르트	7.2
35	스톡홀름	6.7
36	타이페이	6.7
37	텔 아비브	6.7
38	더블린	6.6
39	코펜하겐	6.5
39	부에노스아이레스	6.5
41	후쿠오카	5.1
42	쿠알라룸푸르	3.6
43	요하네스버그	2.7
44	헬싱키	2.4
45	카이로	1.5
46	밴쿠버	1.5
47	뭄바이	0.9
48	수원	0.1
49	제네바	0.0

2. 1인당 GRDP

순위	도시	점수
1	워싱턴DC	100.0
2	샌프란시스코	99.4
3	취리히	88.1
4	보스턴	71.2
5	더블린	64.4
6	파리	58.4
7	암스테르담	52.8
8	제네바	52.7
9	프랑크푸르트	50.1
10	뉴욕	46.1
11	코펜하겐	44.2
12	브리셀	37.7
13	스톡홀름	36.6
14	도쿄	36.5
15	로스앤젤레스	36.3
16	시카고	36.2
17	런던	35.3
18	싱가포르	31.0
19	시드니	30.1
20	헬싱키	29.2
21	오사카	28.9
22	밀라노	28.6
23	바르셀로나	25.7
24	비엔나	25.7
25	멜버른	25.5
26	텔 아비브	23.6
27	밴쿠버	22.8
28	토론토	22.4
29	베를린	22.1
30	홍콩	20.9
31	후쿠오카	17.7
32	서울	17.6
33	마드리드	17.3
34	두바이	14.6
35	타이페이	13.5
36	쿠알라룸푸르	13.1
37	베이징	11.5
38	상하이	10.8
39	부에노스아이레스	10.7
40	모스크바	10.1
41	수원	8.5
42	멕시코시티	7.7
43	방콕	7.5
44	자카르타	7.4
45	이스탄불	5.9
46	상파울로	4.7
47	요하네스버그	3.3
48	카이로	0.6
49	뭄바이	0.0

3. GRDP 성장률

순위	도시	점수
1	더블린	100.0
2	이스탄불	92.3
3	상하이	60.6
4	베이징	59.9
5	밴쿠버	58.5
6	카이로	57.7
7	샌프란시스코	55.6
8	멜버른	52.8
9	시드니	52.1
10	토론토	47.9
11	자카르타	45.8
11	타이페이	45.8
13	텔 아비브	44.4
14	서울	43.7
15	베를린	41.5
16	모스크바	40.8
17	뉴욕	40.1
18	코펜하겐	39.4
19	싱가포르	38.7
19	보스턴	38.7
21	런던	37.3
21	쿠알라룸푸르	37.3
23	스톡홀름	36.6
24	제네바	34.5
24	로스앤젤레스	34.5
26	암스테르담	33.8
27	헬싱키	33.1
27	취리히	33.1
27	멕시코시티	33.1
30	뭄바이	32.4
31	워싱턴DC	29.6
32	수원	27.5
32	마드리드	27.5
34	파리	26.8
34	방콕	26.8
36	바르셀로나	26.1
36	시카고	26.1
38	홍콩	25.4
39	밀라노	24.6
40	상파울로	23.9
41	비엔나	23.2
42	브리셀	22.5
43	요하네스버그	20.4
43	두바이	20.4
45	프랑크푸르트	19.0
46	부에노스아이레스	16.9
47	후쿠오카	0.0
47	오사카	0.0
47	도쿄	0.0

4. 경제자유도

순위	도시	점수
1	홍콩	100.0
2	싱가포르	86.2
3	제네바	85.0
3	취리히	85.0
5	더블린	84.0
6	타이페이	79.3
7	코펜하겐	72.2
8	스톡홀름	71.4
9	암스테르담	70.9
10	헬싱키	68.5
11	멜버른	64.8
11	시드니	64.8
13	수원	62.1
13	서울	62.1
13	토론토	62.1
13	밴쿠버	62.1
17	베를린	58.1
17	프랑크푸르트	58.1
19	두바이	55.7
20	보스턴	54.4
20	시카고	54.4
20	로스앤젤레스	54.4
20	뉴욕	54.4
20	샌프란시스코	54.4
20	워싱턴DC	54.4
26	텔 아비브	53.2
27	후쿠오카	51.2
27	오사카	51.2
27	도쿄	51.2
30	런던	49.5
31	비엔나	49.0
32	쿠알라룸푸르	46.3
33	브리셀	42.1
34	자카르타	36.9
35	바르셀로나	36.5
35	마드리드	36.5
37	멕시코시티	36.2
38	파리	34.5
39	방콕	29.8
40	밀라노	28.6
41	이스탄불	19.0
42	요하네스버그	16.7
43	상파울로	12.3
44	뭄바이	10.8
45	모스크바	8.6
46	부에노스아이레스	6.2
47	카이로	3.0
48	베이징	0.0
48	상하이	0.0

5. 증권거래소의 주식시가 총액

순위	도시	점수
1	보스턴	100.0
1	시카고	100.0
1	로스앤젤레스	100.0
1	뉴욕	100.0
1	샌프란시스코	100.0
1	워싱턴DC	100.0
7	상하이	12.6
8	파리	11.9
9	후쿠오카	11.4
9	오사카	11.4
9	도쿄	11.4
12	암스테르담	9.6
13	뭄바이	9.6
14	런던	8.1
15	홍콩	8.1
16	토론토	5.9
16	밴쿠버	5.9
18	타이페이	3.8
19	제네바	3.7
19	취리히	3.7
21	멜버른	3.3
21	시드니	3.3
23	베를린	3.2
23	프랑크푸르트	3.2
25	수원	3.2
25	서울	3.2
27	스톡홀름	3.1
28	비엔나	2.4
29	요하네스버그	1.9
30	상파울로	1.4
31	밀라노	1.4
32	코펜하겐	1.3
33	바르셀로나	1.2
33	마드리드	1.2
35	싱가포르	1.1
36	브리셀	0.9
37	방콕	0.9
38	자카르타	0.8
38	쿠알라룸푸르	0.8
40	멕시코시티	0.7
41	이스탄불	0.6
42	헬싱키	0.4
43	텔 아비브	0.4
44	두바이	0.3
45	더블린	0.2
46	모스크바	0.0
47	부에노스아이레스	0.0
48	카이로	0.0
49	베이징	0.0

6.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수

순위	도시	점수
1	베이징	100.0
2	도쿄	30.4
3	뉴욕	18.3
4	런던	16.2
5	상하이	13.7
6	파리	12.1
7	서울	11.9
8	싱가포르	7.0
9	뭄바이	6.0
10	홍콩	6.0
11	토론토	5.0
12	더블린	5.0
13	오사카	5.0
14	마드리드	4.7
15	수원	3.8
16	워싱턴DC	3.8
17	취리히	3.4
18	상파울로	3.0
19	시카고	2.9
20	멕시코시티	2.6
21	샌프란시스코	2.3
22	암스테르담	2.1
23	보스턴	2.1
24	타이페이	1.9
25	방콕	1.6
26	쿠알라룸푸르	1.4
27	자카르타	1.4
28	코펜하겐	1.3
29	멜버른	1.2
30	비엔나	1.1
31	베를린	1.0
32	브리셀	0.9
33	모스크바	0.9
34	이스탄불	0.9
35	프랑크푸르트	0.7
36	헬싱키	0.0
36	밀라노	0.0
36	바르셀로나	0.0
36	스톡홀름	0.0
36	제네바	0.0
36	카이로	0.0
36	요하네스버그	0.0
36	텔 아비브	0.0
36	두바이	0.0
36	후쿠오카	0.0
36	시드니	0.0
36	밴쿠버	0.0
36	로스앤젤레스	0.0
36	부에노스아이레스	0.0

7. 종사자 수

순위	도시	점수
1	상하이	100.0
2	베이징	78.1
3	도쿄	63.6
4	상파울로	55.0
5	카이로	44.1
6	방콕	42.4
7	오사카	40.5
8	뉴욕	38.4
9	서울	38.3
10	자카르타	37.6
11	뭄바이	36.9
12	런던	35.4
13	멕시코시티	34.5
14	모스크바	34.5
15	이스탄불	34.2
16	바르셀로나	28.3
17	싱가포르	26.5
18	홍콩	24.7
19	멜버른	20.3
20	두바이	18.8
21	헬싱키	18.8
22	시드니	18.5
23	로스앤젤레스	18.4
24	부에노스아이레스	17.8
25	베를린	15.8
26	요하네스버그	15.1
27	파리	13.6
28	시카고	12.8
29	마드리드	11.7
30	토론토	10.9
31	타이페이	8.7
32	쿠알라룸푸르	7.7
33	밀라노	6.9
34	더블린	6.5
35	비엔나	6.4
36	보스턴	6.0
37	브리셀	5.7
38	후쿠오카	5.7
39	텔 아비브	5.2
40	암스테르담	4.7
41	프랑크푸르트	4.3
42	샌프란시스코	3.7
43	코펜하겐	3.2
44	수원	3.1
45	워싱턴DC	3.1
46	스톡홀름	2.9
47	밴쿠버	2.2
48	취리히	1.9
49	제네바	0.0

8. 평균임금수준

순위	도시	점수
1	취리히	100.0
2	샌프란시스코	99.7
3	제네바	99.2
4	보스턴	76.4
5	워싱턴DC	75.9
6	뉴욕	72.2
7	로스앤젤레스	65.1
8	시카고	63.8
9	런던	58.5
10	암스테르담	56.3
11	싱가포르	56.3
12	시드니	54.6
13	멜버른	53.5
14	코펜하겐	53.2
15	프랑크푸르트	49.4
16	홍콩	49.3
17	더블린	46.0
18	토론토	45.6
19	스톡홀름	44.8
20	두바이	42.9
21	밴쿠버	42.5
22	파리	42.3
23	베를린	40.5
24	텔 아비브	40.3
25	헬싱키	38.2
26	브리셀	37.1
27	서울	35.5
28	비엔나	35.2
29	수원	33.7
30	마드리드	30.3
31	도쿄	30.0
32	바르셀로나	26.8
33	밀라노	26.1
34	오사카	25.5
35	상하이	22.1
36	타이페이	21.2
37	베이징	20.8
38	요하네스버그	19.6
39	쿠알라룸푸르	16.8
40	모스크바	15.4
41	후쿠오카	14.9
42	뭄바이	10.4
43	이스탄불	9.3
44	멕시코시티	7.8
45	방콕	7.3
46	자카르타	5.4
47	상파울로	4.3
48	부에노스아이레스	4.0
49	카이로	0.0

9. 업무환경 선택의 다양성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뉴욕	31.3
3	홍콩	28.8
4	싱가포르	23.0
5	파리	19.6
6	방콕	17.8
7	상하이	17.5
8	두바이	17.4
9	도쿄	16.9
10	바르셀로나	16.7
11	마드리드	16.6
12	시카고	15.6
13	로스앤젤레스	15.5
14	토론토	15.3
15	타이페이	15.3
16	상파울로	14.1
17	샌프란시스코	13.4
18	베를린	13.3
19	멕시코시티	13.2
20	워싱턴DC	13.2
21	보스턴	12.0
22	자카르타	11.4
23	베이징	11.1
24	뭄바이	10.3
25	서울	9.8
26	수원	9.7
27	쿠알라룸푸르	9.5
28	밀라노	9.3
29	밴쿠버	9.2
30	암스테르담	9.1
31	더블린	8.8
32	이스탄불	8.1
33	비엔나	7.5
34	후쿠오카	7.3
35	취리히	6.7
36	스톡홀름	6.4
37	코펜하겐	5.9
38	오사카	5.9
39	브리셀	5.8
40	프랑크푸르트	5.5
41	부에노스아이레스	5.2
42	카이로	4.8
43	텔 아비브	4.2
44	제네바	4.1
45	시드니	3.8
46	멜버른	3.7
47	요하네스버그	2.6
48	모스크바	0.5
49	헬싱키	0.0

10. 법인세율

순위	도시	점수
1	두바이	100.0
2	베를린	73.8
2	프랑크푸르트	73.8
4	제네바	71.3
4	취리히	71.3
6	홍콩	71.2
7	싱가포르	69.2
8	더블린	62.5
9	헬싱키	57.7
9	모스크바	57.7
9	타이페이	57.7
9	방콕	57.7
13	스톡홀름	55.4
14	코펜하겐	50.0
14	자카르타	50.0
16	카이로	48.1
17	비엔나	46.2
17	텔 아비브	46.2
19	수원	42.3
19	밀라노	42.3
19	쿠알라룸푸르	42.3
19	서울	42.3
23	브리셀	38.5
23	파리	38.5
23	바르셀로나	38.5
23	마드리드	38.5
23	런던	38.5
23	이스탄불	38.5
23	베이징	38.5
23	상하이	38.5
31	암스테르담	35.4
32	토론토	32.7
33	요하네스버그	30.8
33	밴쿠버	30.8
35	보스턴	29.6
36	워싱턴DC	28.8
37	로스앤젤레스	26.9
37	샌프란시스코	26.9
39	시카고	25.0
40	멜버른	19.2
40	시드니	19.2
40	멕시코시티	19.2
43	후쿠오카	16.9
43	오사카	16.9
43	도쿄	16.9
46	상파울로	3.8
47	뉴욕	3.5
48	뭄바이	1.5
49	부에노스아이레스	0.0

11. 정치, 경제, 사업 위험도

순위	도시	점수
1	코펜하겐	100.0
1	베를린	100.0
1	프랑크푸르트	100.0
1	암스테르담	100.0
1	스톡홀름	100.0
1	제네바	100.0
1	취리히	100.0
1	싱가포르	100.0
1	멜버른	100.0
1	시드니	100.0
1	토론토	100.0
1	밴쿠버	100.0
13	비엔나	94.7
13	헬싱키	94.7
13	보스턴	94.7
13	시카고	94.7
13	로스앤젤레스	94.7
13	뉴욕	94.7
13	샌프란시스코	94.7
13	워싱턴DC	94.7
21	수원	89.5
21	파리	89.5
21	두바이	89.5
21	서울	89.5
25	브리셀	84.2
25	런던	84.2
25	홍콩	84.2
25	타이페이	84.2
29	더블린	78.9
29	텔 아비브	78.9
29	베이징	78.9
29	상하이	78.9
29	후쿠오카	78.9
29	오사카	78.9
29	도쿄	78.9
36	쿠알라룸푸르	68.4
37	바르셀로나	63.2
37	마드리드	63.2
37	방콕	63.2
37	멕시코시티	63.2
41	자카르타	57.9
42	밀라노	52.6
42	요하네스버그	52.6
42	뭄바이	52.6
45	모스코바	47.4
46	상파울로	42.1
47	카이로	26.3
47	이스탄불	26.3
49	부에노스아이레스	0.0

12. 세계최고대학

순위	도시	점수
1	서울	100.0
2	타이페이	91.7
3	보스턴	66.7
4	홍콩	50.0
4	멜버른	50.0
4	시드니	50.0
4	뉴욕	50.0
8	도쿄	41.7
8	쿠알라룸푸르	41.7
10	런던	33.3
10	토론토	33.3
10	로스앤젤레스	33.3
13	파리	25.0
13	베를린	25.0
13	이스탄불	25.0
13	시카고	25.0
13	샌프란시스코	25.0
13	워싱턴DC	25.0
13	상파울로	25.0
20	수원	16.7
20	브리셀	16.7
20	더블린	16.7
20	밀라노	16.7
20	암스테르담	16.7
20	바르셀로나	16.7
20	마드리드	16.7
20	스톡홀름	16.7
20	취리히	16.7
20	카이로	16.7
20	요하네스버그	16.7
20	두바이	16.7
20	베이징	16.7
20	상하이	16.7
20	오사카	16.7
20	싱가포르	16.7
20	방콕	16.7
20	밴쿠버	16.7
38	비엔나	8.3
38	코펜하겐	8.3
38	헬싱키	8.3
38	프랑크푸르트	8.3
38	모스코바	8.3
38	제네바	8.3
38	텔 아비브	8.3
38	뭄바이	8.3
38	후쿠오카	8.3
47	자카르타	0.0
47	부에노스아이레스	0.0
47	멕시코시티	0.0

13. 학업 성취도

순위	도시	점수
1	싱가포르	100.0
2	베이징	94.6
2	상하이	94.6
4	타이페이	94.1
5	수원	92.2
5	서울	92.2
7	후쿠오카	91.3
7	오사카	91.3
7	도쿄	91.3
10	토론토	91.1
10	밴쿠버	91.1
12	더블린	87.8
13	멜버른	86.7
13	시드니	86.7
15	제네바	86.5
16	헬싱키	85.9
16	보스턴	85.9
16	시카고	85.9
16	로스앤젤레스	85.9
16	뉴욕	85.9
16	샌프란시스코	85.9
16	워싱턴DC	85.9
23	취리히	85.7
23	런던	85.7
25	홍콩	85.3
26	코펜하겐	85.0
27	모스크바	84.3
27	스톡홀름	84.3
29	비엔나	83.9
29	브리셀	83.9
31	베를린	83.0
31	프랑크푸르트	83.0
33	암스테르담	82.6
34	파리	82.2
35	바르셀로나	82.0
35	마드리드	82.0
37	밀라노	81.7
38	텔 아비브	79.6
39	이스탄불	78.7
40	두바이	71.1
41	멕시코시티	68.7
42	쿠알라룸푸르	66.1
43	상파울로	64.6
44	부에노스아이레스	64.1
45	방콕	63.9
46	자카르타	58.5
47	카이로	52.0
48	뭄바이	17.2
49	요하네스버그	0.0

14. 스타트업 수

순위	도시	점수
1	시드니	100.0
2	샌프란시스코	78.9
3	도쿄	35.3
3	싱가포르	35.3
5	뭄바이	35.0
6	로스앤젤레스	32.3
7	토론토	31.0
8	뉴욕	26.9
9	시카고	24.4
10	워싱턴DC	23.4
11	보스턴	21.5
12	서울	20.0
13	홍콩	15.5
14	밴쿠버	13.7
15	상파울로	13.4
16	베이징	13.2
17	멜버른	12.9
18	런던	12.1
19	파리	11.0
20	상하이	9.9
21	자카르타	9.2
22	베를린	8.8
23	스톡홀름	5.5
23	텔 아비브	5.5
25	암스테르담	5.0
26	더블린	4.5
27	쿠알라룸푸르	4.4
27	멕시코시티	4.4
29	바르셀로나	3.9
30	밀라노	3.4
30	마드리드	3.4
32	프랑크푸르트	2.8
33	오사카	2.6
34	타이페이	2.5
35	비엔나	2.3
35	모스크바	2.3
35	취리히	2.3
38	방콕	2.0
39	코펜하겐	1.7
39	제네바	1.7
39	이스탄불	1.7
42	브리셀	1.2
42	두바이	1.2
42	부에노스아이레스	1.2
45	헬싱키	0.7
45	요하네스버그	0.7
47	카이로	0.1
48	수원	0.0
48	후쿠오카	0.0

15. 관광명소

순위	도시	점수
1	파리	100.0
1	런던	100.0
1	도쿄	100.0
4	모스크바	81.9
5	뉴욕	73.4
6	두바이	56.9
7	바르셀로나	55.6
8	이스탄불	54.6
9	마드리드	43.1
10	베를린	43.1
11	방콕	42.8
12	밀라노	38.1
13	오사카	37.9
14	암스테르담	37.1
15	싱가포르	35.6
16	시카고	34.2
17	서울	33.2
18	상파울로	32.6
19	부에노스아이레스	30.8
20	로스앤젤레스	29.8
21	토론토	28.2
22	시드니	26.7
23	샌프란시스코	26.7
24	멜버른	26.4
25	홍콩	26.3
26	멕시코시티	25.7
27	베이징	25.3
28	비엔나	23.9
29	카이로	22.3
30	상하이	20.6
31	더블린	19.1
32	브리셀	18.1
33	뭄바이	16.9
34	타이페이	16.0
35	밴쿠버	15.8
36	워싱턴DC	14.4
37	보스턴	13.7
38	쿠알라룸푸르	13.7
39	코펜하겐	13.1
40	텔 아비브	10.6
41	후쿠오카	10.5
42	취리히	9.8
43	헬싱키	9.7
44	스톡홀름	9.6
45	프랑크푸르트	9.6
46	자카르타	8.6
47	요하네스버그	7.5
48	제네바	6.0
49	수원	0.0

16. 세계문화유산 접근성

순위	도시	점수
1	수원	100.0
1	비엔나	100.0
1	파리	100.0
1	서울	100.0
5	브리셀	60.0
5	베를린	60.0
5	런던	60.0
5	베이징	60.0
9	바르셀로나	40.0
9	마드리드	40.0
9	스톡홀름	40.0
9	카이로	40.0
13	코펜하겐	20.0
13	헬싱키	20.0
13	프랑크푸르트	20.0
13	더블린	20.0
13	밀라노	20.0
13	암스테르담	20.0
13	모스크바	20.0
13	제네바	20.0
13	취리히	20.0
13	요하네스버그	20.0
13	텔 아비브	20.0
13	이스탄불	20.0
13	두바이	20.0
13	뭄바이	20.0
13	오사카	20.0
13	도쿄	20.0
13	싱가포르	20.0
13	방콕	20.0
13	멜버른	20.0
13	시드니	20.0
13	토론토	20.0
13	밴쿠버	20.0
13	뉴욕	20.0
13	샌프란시스코	20.0
13	워싱턴DC	20.0
13	멕시코시티	20.0
39	상하이	0.0
39	홍콩	0.0
39	자카르타	0.0
39	후쿠오카	0.0
39	쿠알라룸푸르	0.0
39	타이페이	0.0
39	보스턴	0.0
39	시카고	0.0
39	로스앤젤레스	0.0
39	부에노스아이레스	0.0
39	상파울로	0.0

17. 야간활동선택

순위	도시	점수
1	도쿄	100.0
2	런던	81.2
3	뉴욕	45.2
4	마드리드	40.8
5	바르셀로나	36.1
6	파리	34.9
7	베를린	33.4
7	모스크바	33.4
9	이스탄불	31.1
10	시카고	27.0
11	밀라노	22.4
12	암스테르담	22.3
13	샌프란시스코	18.8
14	부에노스아이레스	18.1
15	로스앤젤레스	17.7
16	상파울로	17.1
17	더블린	17.0
18	후쿠오카	16.0
19	시드니	14.7
20	두바이	14.5
21	멕시코시티	13.0
22	비엔나	12.1
23	코펜하겐	11.5
24	멜버른	11.3
25	브리셀	11.1
26	토론토	11.0
27	싱가포르	10.8
28	서울	10.5
29	텔 아비브	8.9
30	워싱턴DC	8.5
31	프랑크푸르트	8.1
32	보스턴	7.6
33	취리히	6.9
34	쿠알라룸푸르	6.5
35	카이로	5.3
36	밴쿠버	5.1
37	헬싱키	4.9
38	타이페이	4.4
39	제네바	4.0
40	스톡홀름	3.0
41	자카르타	2.9
42	뭄바이	2.7
42	방콕	2.7
44	요하네스버그	2.1
45	상하이	1.3
46	베이징	1.2
47	오사카	0.5
48	수원	0.0
48	홍콩	0.0

18. 박물관 수

순위	도시	점수
1	뉴욕	100.0
2	런던	88.3
3	베이징	79.3
4	상하이	58.3
5	베를린	55.3
6	파리	54.1
7	로스앤젤레스	53.0
8	서울	48.1
9	브리셀	46.2
10	부에노스아이레스	45.9
11	멕시코시티	42.1
12	바르셀로나	41.4
13	워싱턴DC	41.0
14	도쿄	39.8
15	암스테르담	39.5
16	비엔나	39.1
17	보스턴	35.3
18	시드니	32.7
19	시카고	29.7
19	상파울로	29.7
21	마드리드	28.9
21	이스탄불	28.9
23	샌프란시스코	28.6
24	밀라노	26.3
25	멜버른	23.3
26	두바이	22.9
27	코펜하겐	20.7
28	스톡홀름	20.3
29	취리히	19.9
29	토론토	19.9
31	타이페이	19.5
32	프랑크푸르트	18.0
33	더블린	16.9
34	방콕	16.5
35	싱가포르	16.2
36	모스크바	15.8
37	헬싱키	13.5
38	뭄바이	10.5
38	쿠알라룸푸르	10.5
40	밴쿠버	7.9
41	제네바	5.6
42	자카르타	4.5
43	텔 아비브	3.8
44	홍콩	3.0
45	요하네스버그	2.6
46	카이로	2.3
46	후쿠오카	2.3
48	오사카	0.8
49	수원	0.0

19. 경기장 수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모스크바	46.7
2	이스탄불	46.7
4	부에노스아이레스	33.3
5	파리	26.7
5	상하이	26.7
5	시드니	26.7
8	브리셀	20.0
8	마드리드	20.0
8	스톡홀름	20.0
8	카이로	20.0
8	두바이	20.0
8	뭄바이	20.0
8	도쿄	20.0
8	멜버른	20.0
16	비엔나	13.3
16	코펜하겐	13.3
16	베를린	13.3
16	더블린	13.3
16	암스테르담	13.3
16	바르셀로나	13.3
16	요하네스버그	13.3
16	텔 아비브	13.3
16	베이징	13.3
16	자카르타	13.3
16	오사카	13.3
16	토론토	13.3
16	밴쿠버	13.3
16	보스턴	13.3
16	시카고	13.3
16	멕시코시티	13.3
32	수원	6.7
32	헬싱키	6.7
32	프랑크푸르트	6.7
32	밀라노	6.7
32	제네바	6.7
32	취리히	6.7
32	홍콩	6.7
32	후쿠오카	6.7
32	쿠알라룸푸르	6.7
32	싱가포르	6.7
32	서울	6.7
32	로스앤젤레스	6.7
32	샌프란시스코	6.7
45	타이페이	0.0
45	방콕	0.0
45	뉴욕	0.0
45	워싱턴DC	0.0
45	상파울로	0.0

20. 호텔의 객실 수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시카고	98.7
3	파리	96.3
4	뉴욕	90.8
5	방콕	83.4
6	로스앤젤레스	74.0
7	도쿄	72.0
8	이스탄불	68.6
9	홍콩	67.4
10	두바이	65.4
11	상하이	64.8
12	오사카	55.5
13	싱가포르	53.7
14	베를린	51.3
14	베이징	51.3
16	쿠알라룸푸르	44.4
17	서울	43.4
18	바르셀로나	39.5
19	워싱턴DC	38.3
19	부에노스아이레스	38.3
21	모스크바	37.2
22	마드리드	33.5
23	암스테르담	33.3
24	자카르타	30.6
25	시드니	30.4
26	비엔나	29.0
27	타이페이	28.1
28	프랑크푸르트	27.3
29	밀라노	25.6
30	토론토	24.9
31	보스턴	24.2
32	샌프란시스코	22.2
33	후쿠오카	20.2
33	멜버른	20.2
33	상파울로	20.2
36	더블린	19.8
37	스톡홀름	18.5
38	코펜하겐	17.6
39	브리셀	15.5
40	카이로	11.5
41	텔 아비브	10.2
42	취리히	10.2
43	헬싱키	9.3
44	제네바	7.5
45	뭄바이	7.5
46	밴쿠버	7.1
47	요하네스버그	3.1
48	멕시코시티	0.6
49	수원	0.0

21. 고급호텔 객실 수

순위	도시	점수
1	두바이	100.0
2	런던	69.0
2	이스탄불	69.0
4	방콕	67.6
5	파리	55.2
6	상하이	39.5
7	싱가포르	27.6
8	카이로	25.2
8	쿠알라룸푸르	25.2
8	시드니	25.2
11	베이징	23.8
12	모스크바	22.4
12	요하네스버그	22.4
14	뉴욕	21.9
15	바르셀로나	20.5
16	자카르타	18.6
17	수원	17.6
17	마드리드	17.6
17	홍콩	17.6
17	서울	17.6
21	뭄바이	16.7
22	도쿄	13.8
23	멜버른	13.3
24	밀라노	11.9
25	로스앤젤레스	11.4
26	비엔나	10.0
26	암스테르담	10.0
28	취리히	9.0
28	타이페이	9.0
30	부에노스아이레스	8.1
30	상파울로	8.1
32	워싱턴DC	6.7
32	멕시코시티	6.7
34	오사카	5.7
35	제네바	5.2
36	보스턴	4.3
37	브리셀	3.3
37	코펜하겐	3.3
37	텔 아비브	3.3
37	토론토	3.3
41	더블린	2.9
41	스톡홀름	2.9
41	시카고	2.9
44	샌프란시스코	2.4
45	밴쿠버	1.9
46	베를린	1.4
47	헬싱키	1.0
48	프랑크푸르트	0.5
49	후쿠오카	0.0

22. 쇼핑 만족도

순위	도시	점수
1	도쿄	100.0
2	런던	84.1
3	파리	82.6
4	뉴욕	73.5
5	상파울로	43.1
6	이스탄불	43.1
7	방콕	40.7
8	베를린	38.6
9	암스테르담	34.9
10	싱가포르	33.9
11	밀라노	33.1
12	두바이	30.6
13	바르셀로나	30.5
14	서울	29.6
15	모스크바	28.7
16	마드리드	27.9
17	홍콩	26.2
18	토론토	25.3
19	시카고	24.6
20	상하이	23.5
21	오사카	22.8
22	멜버른	21.1
23	샌프란시스코	20.4
24	브리셀	20.1
25	부에노스아이레스	18.6
26	타이페이	18.3
27	로스앤젤레스	16.7
28	뭄바이	15.5
29	멕시코시티	14.9
30	시드니	14.7
31	베이징	13.6
32	비엔나	12.6
33	밴쿠버	12.3
34	프랑크푸르트	11.3
35	코펜하겐	10.2
36	텔 아비브	9.8
37	카이로	9.7
38	더블린	9.3
38	쿠알라룸푸르	9.3
40	보스턴	8.3
41	후쿠오카	7.2
42	자카르타	6.7
43	워싱턴DC	6.5
44	헬싱키	5.6
45	취리히	5.5
46	스톡홀름	4.9
47	요하네스버그	3.6
48	제네바	3.2
49	수원	0.0

23. 식당 만족도

순위	도시	점수
1	도쿄	100.0
2	서울	46.2
3	파리	35.9
3	런던	35.9
5	싱가포르	30.8
5	뉴욕	30.8
7	모스크바	25.6
8	상하이	19.2
9	멕시코시티	16.7
10	바르셀로나	15.4
10	홍콩	15.4
12	마드리드	14.1
12	뭄바이	14.1
12	오사카	14.1
12	샌프란시스코	14.1
16	방콕	11.5
16	시카고	11.5
18	코펜하겐	10.3
18	베이징	10.3
20	비엔나	9.0
20	스톡홀름	9.0
20	텔 아비브	9.0
20	토론토	9.0
24	베를린	7.7
24	밀라노	7.7
24	두바이	7.7
24	상파울로	7.7
28	브리셀	6.4
28	암스테르담	6.4
28	워싱턴DC	6.4
31	취리히	5.1
31	멜버른	5.1
31	시드니	5.1
31	밴쿠버	5.1
31	로스앤젤레스	5.1
36	제네바	3.8
36	후쿠오카	3.8
38	헬싱키	2.6
38	프랑크푸르트	2.6
38	더블린	2.6
38	이스탄불	2.6
38	타이페이	2.6
43	카이로	1.3
43	자카르타	1.3
43	보스턴	1.3
43	부에노스아이레스	1.3
47	수원	0.0
47	요하네스버그	0.0
47	쿠알라룸푸르	0.0

24. 외국인 거주자 수

순위	도시	점수
1	두바이	100.0
2	싱가포르	63.7
3	멜버른	60.3
4	런던	59.4
5	뉴욕	38.4
6	시드니	38.3
7	쿠알라룸푸르	34.6
8	이스탄불	22.5
9	로스앤젤레스	20.6
10	홍콩	20.5
11	비엔나	18.9
12	요하네스버그	16.4
13	상파울로	16.0
14	마드리드	15.5
15	도쿄	14.7
16	토론토	14.4
17	브리셀	13.2
18	부에노스아이레스	11.5
19	바르셀로나	10.8
20	파리	9.3
21	밀라노	8.6
22	시카고	8.3
23	프랑크푸르트	7.1
24	서울	6.7
25	텔 아비브	5.8
26	상하이	4.8
27	암스테르담	4.7
28	오사카	4.5
29	취리히	4.3
30	코펜하겐	3.5
31	밴쿠버	3.2
32	샌프란시스코	3.1
33	스톡홀름	3.1
34	멕시코시티	3.0
35	제네바	2.9
36	더블린	2.6
37	보스턴	2.4
38	뭄바이	2.1
39	타이페이	1.9
40	헬싱키	1.9
41	베를린	1.7
41	베이징	1.7
43	모스크바	1.5
44	카이로	1.4
45	방콕	1.3
46	워싱턴DC	1.1
47	후쿠오카	1.0
48	수원	0.9
49	자카르타	0.0

25. 해외방문객 수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이스탄불	99.4
3	두바이	89.0
4	방콕	60.8
5	파리	45.3
6	싱가포르	38.9
7	바르셀로나	33.9
8	암스테르담	32.8
9	스톡홀름	28.5
10	코펜하겐	27.8
11	마드리드	26.4
12	비엔나	25.7
13	도쿄	19.8
14	멕시코시티	19.6
15	뉴욕	18.3
16	밴쿠버	16.2
17	서울	16.0
18	밀라노	15.0
19	오사카	11.3
20	프랑크푸르트	11.1
21	토론토	10.3
22	브리셀	9.9
23	시드니	8.6
24	로스앤젤레스	7.7
25	상파울로	7.3
26	더블린	7.0
27	취리히	6.4
28	카이로	6.0
29	샌프란시스코	5.5
30	요하네스버그	5.4
31	자카르타	5.4
32	상하이	5.3
33	모스코바	4.7
34	헬싱키	4.3
35	시카고	4.0
36	멜버른	3.9
37	제네바	3.8
38	워싱턴DC	3.4
39	쿠알라룸푸르	2.5
40	보스턴	2.4
41	후쿠오카	2.1
42	수원	1.9
43	텔 아비브	1.0
44	홍콩	0.8
45	베를린	0.7
45	베이징	0.7
47	타이페이	0.1
48	부에노스아이레스	0.1
49	뭄바이	0.0

26. 실업률

순위	도시	점수
1	요하네스버그	100.0
2	브리셀	35.2
3	바르셀로나	31.8
3	마드리드	31.8
5	비엔나	26.7
6	헬싱키	25.2
7	이스탄불	24.2
8	부에노스아이레스	22.6
9	토론토	21.1
9	상파울로	21.1
11	스톡홀름	20.4
12	카이로	19.5
13	파리	18.6
14	로스앤젤레스	17.0
15	밀라노	16.0
16	밴쿠버	14.8
16	워싱턴DC	14.8
18	베를린	14.5
18	프랑크푸르트	14.5
20	자카르타	13.8
21	두바이	12.3
21	베이징	12.3
21	상하이	12.3
21	샌프란시스코	12.3
25	더블린	10.1
25	암스테르담	10.1
25	뭄바이	10.1
25	뉴욕	10.1
29	모스코바	9.7
29	런던	9.7
31	멜버른	9.4
31	시드니	9.4
31	시카고	9.4
34	수원	9.1
34	텔 아비브	9.1
36	보스턴	7.5
37	타이페이	7.2
38	쿠알라룸푸르	6.6
39	코펜하겐	6.0
39	제네바	6.0
39	취리히	6.0
39	홍콩	6.0
43	멕시코시티	5.3
44	후쿠오카	5.0
44	오사카	5.0
44	도쿄	5.0
47	싱가포르	4.7
48	서울	4.1
49	방콕	0.0

27. 주택임대료

순위	도시	점수
1	자카르타	100.0
2	후쿠오카	99.0
3	방콕	98.6
4	부에노스아이레스	97.2
5	뭄바이	96.9
6	쿠알라룸푸르	96.5
7	오사카	96.4
8	상파울로	95.8
9	카이로	95.0
10	타이페이	93.5
11	서울	92.7
12	수원	91.1
13	멕시코시티	90.7
14	도쿄	89.8
15	요하네스버그	86.7
16	모스크바	73.8
17	비엔나	69.3
18	멜버른	68.8
19	마드리드	64.2
20	헬싱키	63.2
21	시드니	62.0
22	베를린	61.3
22	베이징	61.3
24	바르셀로나	61.1
25	브리셀	60.9
26	시카고	60.3
27	토론토	60.1
28	홍콩	59.2
29	상하이	56.4
30	프랑크푸르트	56.1
31	밴쿠버	54.6
32	스톡홀름	47.3
33	싱가포르	45.1
34	밀라노	44.4
35	워싱턴DC	43.9
36	파리	42.0
37	로스앤젤레스	41.4
38	이스탄불	40.4
39	코펜하겐	36.8
40	텔 아비브	36.3
41	두바이	35.5
42	암스테르담	34.9
43	보스턴	32.8
44	샌프란시스코	21.4
45	뉴욕	18.3
46	더블린	15.9
47	제네바	11.7
48	취리히	9.9
49	런던	0.0

28. 물가수준

순위	도시	점수
1	뭄바이	100.0
2	자카르타	92.6
3	쿠알라룸푸르	88.0
4	멕시코시티	83.9
5	요하네스버그	82.8
6	상파울로	81.0
7	베를린	80.9
7	베이징	80.9
9	방콕	80.3
10	수원	73.5
11	이스탄불	70.3
12	상하이	69.4
13	마드리드	67.9
14	카이로	66.4
15	모스크바	66.3
16	바르셀로나	64.8
17	두바이	63.4
18	타이페이	62.5
19	후쿠오카	62.4
20	서울	60.8
21	프랑크푸르트	59.2
22	브리셀	58.1
23	오사카	57.9
24	밀라노	56.9
25	비엔나	56.7
26	도쿄	56.0
27	암스테르담	53.9
28	헬싱키	53.8
29	파리	53.2
30	스톡홀름	50.2
31	홍콩	50.0
32	밴쿠버	47.9
33	더블린	47.8
34	시드니	47.6
35	런던	47.4
36	시카고	47.2
37	멜버른	44.7
38	워싱턴DC	42.7
39	토론토	42.1
40	텔 아비브	40.5
41	코펜하겐	39.3
42	로스앤젤레스	37.5
43	샌프란시스코	34.9
44	보스턴	30.5
45	싱가포르	25.0
46	뉴욕	24.4
47	제네바	11.2
48	부에노스아이레스	8.6
49	취리히	0.0

29. 살인건수

순위	도시	점수
1	홍콩	100.0
2	싱가포르	100.0
3	보스턴	100.0
4	워싱턴DC	99.9
5	로스앤젤레스	99.9
5	샌프란시스코	99.9
7	시카고	99.9
8	방콕	99.5
8	밴쿠버	99.5
10	토론토	99.4
11	두바이	99.1
12	부에노스아이레스	98.6
13	취리히	98.5
14	수원	98.5
15	제네바	98.5
16	베이징	98.4
17	상하이	98.4
18	서울	97.6
19	암스테르담	97.6
20	프랑크푸르트	97.6
21	베를린	97.5
22	상파울로	97.5
23	더블린	97.3
23	후쿠오카	97.3
25	비엔나	97.3
26	런던	97.2
27	쿠알라룸푸르	97.0
28	코펜하겐	96.9
29	밀라노	96.9
30	타이페이	96.7
31	파리	96.7
32	브리셀	96.6
33	자카르타	96.4
34	헬싱키	96.3
35	이스탄불	95.9
36	마드리드	95.8
37	바르셀로나	95.7
38	시드니	95.5
39	도쿄	95.5
40	스톡홀름	95.3
41	오사카	95.2
42	멜버른	94.8
43	뭄바이	94.0
44	텔 아비브	93.8
45	뉴욕	91.6
46	카이로	89.3
47	모스크바	81.8
48	멕시코시티	57.7
49	요하네스버그	0.0

30. 기대수명

순위	도시	점수
1	홍콩	100.0
2	후쿠오카	96.6
2	오사카	96.6
2	도쿄	96.6
5	싱가포르	94.1
6	수원	93.7
6	서울	93.7
8	제네바	91.7
8	취리히	91.7
10	멜버른	90.8
10	시드니	90.8
12	바르셀로나	88.9
12	마드리드	88.9
12	스톡홀름	88.9
15	밀라노	87.0
16	파리	85.8
17	텔 아비브	85.0
18	더블린	84.5
18	토론토	84.5
18	밴쿠버	84.5
21	헬싱키	84.2
22	브리셀	84.1
23	코펜하겐	82.7
24	암스테르담	82.4
25	비엔나	81.9
26	베를린	79.8
26	프랑크푸르트	79.8
28	타이페이	78.6
29	런던	78.2
30	두바이	70.6
31	베이징	67.7
31	상하이	67.7
33	보스턴	62.6
33	시카고	62.6
33	로스앤젤레스	62.6
33	뉴욕	62.6
33	샌프란시스코	62.6
33	워싱턴DC	62.6
39	방콕	58.0
40	이스탄불	57.9
41	쿠알라룸푸르	55.0
41	부에노스아이레스	55.0
43	상파울로	45.8
44	멕시코시티	39.1
45	모스크바	35.8
46	카이로	32.0
47	자카르타	28.6
48	뭄바이	24.4
49	요하네스버그	0.0

31. 사회 자유 및 형평성

순위	도시	점수
1	코펜하겐	100.0
2	헬싱키	99.3
3	스톡홀름	96.4
4	더블린	93.8
5	암스테르담	93.3
6	제네바	93.0
6	취리히	93.0
8	베를린	88.4
8	프랑크푸르트	88.4
10	토론토	87.5
10	밴쿠버	87.5
12	멜버른	86.1
12	시드니	86.1
14	브리셀	84.7
15	비엔나	82.6
16	런던	82.2
17	파리	81.4
18	타이페이	80.2
19	후쿠오카	78.5
19	오사카	78.5
19	도쿄	78.5
22	바르셀로나	74.8
22	마드리드	74.8
24	보스턴	73.7
24	시카고	73.7
24	로스앤젤레스	73.7
24	뉴욕	73.7
24	샌프란시스코	73.7
24	워싱턴DC	73.7
30	밀라노	71.1
31	수원	67.6
31	서울	67.6
33	요하네스버그	61.6
34	텔 아비브	60.5
35	부에노스아이레스	60.0
36	싱가포르	51.8
37	상파울로	46.3
38	쿠알라룸푸르	45.3
39	홍콩	42.9
40	자카르타	36.0
41	뭄바이	33.4
42	멕시코시티	32.1
43	두바이	27.2
44	방콕	25.8
45	이스탄불	12.8
46	모스크바	11.7
47	카이로	6.1
48	베이징	0.0
48	상하이	0.0

32. 의사 수

순위	도시	점수
1	서울	100.0
2	도쿄	69.7
3	상파울로	63.7
4	뉴욕	63.4
5	시드니	58.2
6	홍콩	56.3
7	멜버른	54.8
8	싱가포르	42.1
9	부에노스아이레스	39.9
10	멕시코시티	39.0
11	로스앤젤레스	28.0
12	뭄바이	23.8
13	토론토	20.1
14	오사카	18.5
14	시카고	18.5
16	타이페이	17.7
17	밴쿠버	16.9
18	비엔나	13.5
19	코펜하겐	11.5
20	바르셀로나	11.1
20	마드리드	11.1
22	베를린	10.8
22	프랑크푸르트	10.8
24	제네바	10.6
24	취리히	10.6
26	스톡홀름	10.3
27	수원	9.9
28	후쿠오카	9.9
29	방콕	9.8
30	헬싱키	9.7
31	밀라노	9.4
31	모스크바	9.4
33	암스테르담	8.9
34	텔 아비브	8.5
35	더블린	7.7
36	브리셀	7.0
37	파리	6.9
38	자카르타	6.8
39	두바이	6.6
40	런던	6.4
41	카이로	5.7
42	쿠알라룸푸르	5.4
43	샌프란시스코	4.4
44	베이징	3.3
44	상하이	3.3
46	보스턴	2.8
46	워싱턴DC	2.8
48	이스탄불	2.7
49	요하네스버그	0.0

33. ICT 준비도

순위	도시	점수
1	보스턴	100.0
1	시카고	100.0
1	로스앤젤레스	100.0
1	뉴욕	100.0
1	샌프란시스코	100.0
1	워싱턴DC	100.0
7	싱가포르	99.7
8	헬싱키	97.8
9	암스테르담	97.4
10	스톡홀름	96.3
11	제네바	93.5
11	취리히	93.5
13	수원	92.6
13	서울	92.6
15	코펜하겐	91.3
16	베를린	91.1
16	프랑크푸르트	91.1
18	런던	87.3
19	토론토	85.0
19	밴쿠버	85.0
21	텔 아비브	84.5
22	후쿠오카	82.2
22	오사카	82.2
22	도쿄	82.2
25	멜버른	80.1
25	시드니	80.1
27	파리	79.5
28	타이페이	79.0
29	비엔나	76.3
30	더블린	71.4
31	베이징	70.8
31	상하이	70.8
33	브리셀	69.9
34	홍콩	63.8
35	바르셀로나	63.0
35	마드리드	63.0
37	두바이	55.9
38	밀라노	55.2
39	모스크바	40.2
40	쿠알라룸푸르	38.5
41	방콕	35.5
42	상파울로	32.3
43	이스탄불	27.9
44	뭄바이	17.8
44	자카르타	17.8
46	부에노스아이레스	17.4
47	멕시코시티	16.8
48	요하네스버그	5.4
49	카이로	0.0

34. 재생에너지 비율

순위	도시	점수
1	스톡홀름	100.0
2	코펜하겐	86.8
3	헬싱키	81.5
4	상파울로	80.9
5	비엔나	60.3
6	제네바	46.1
6	취리히	46.1
8	뭄바이	40.3
9	밀라노	39.4
10	바르셀로나	38.4
10	마드리드	38.4
12	파리	33.7
13	자카르타	33.5
14	방콕	32.2
15	베를린	30.1
15	프랑크푸르트	30.1
17	토론토	28.1
17	밴쿠버	28.1
19	이스탄불	25.6
20	암스테르담	24.5
21	더블린	23.0
22	쿠알라룸푸르	22.8
23	런던	22.6
24	베이징	21.7
24	상하이	21.7
26	브리셀	17.3
27	타이페이	16.4
28	멕시코시티	15.1
29	멜버른	13.5
29	시드니	13.5
31	부에노스아이레스	13.0
32	보스턴	12.8
32	시카고	12.8
32	로스앤젤레스	12.8
32	뉴욕	12.8
32	샌프란시스코	12.8
32	워싱턴DC	12.8
38	요하네스버그	11.7
39	후쿠오카	11.1
39	오사카	11.1
39	도쿄	11.1
42	카이로	7.7
43	싱가포르	7.2
44	홍콩	4.7
45	텔 아비브	4.3
46	모스크바	3.6
47	수원	1.8
47	서울	1.8
49	두바이	0.0

35. 재활용 비율

순위	도시	점수
1	멜버른	100.0
1	시드니	100.0
3	후쿠오카	95.3
3	오사카	95.3
3	도쿄	95.3
6	서울	90.2
7	타이페이	86.7
8	싱가포르	81.7
9	수원	76.3
10	베를린	75.0
11	비엔나	52.7
12	브리셀	51.8
13	코펜하겐	50.8
14	더블린	49.2
14	바르셀로나	49.2
16	홍콩	48.3
16	보스턴	48.3
16	시카고	48.3
16	로스앤젤레스	48.3
16	뉴욕	48.3
16	샌프란시스코	48.3
16	워싱턴DC	48.3
23	베이징	46.7
23	상하이	46.7
23	쿠알라룸푸르	46.7
26	마드리드	44.8
27	헬싱키	43.8
28	프랑크푸르트	42.0
29	밀라노	41.2
30	이스탄불	36.8
31	파리	34.3
32	런던	34.2
33	스톡홀름	33.5
34	방콕	30.7
35	모스크바	27.8
36	취리히	22.5
37	자카르타	15.8
38	카이로	15.5
39	텔 아비브	11.7
40	두바이	11.5
41	토론토	10.0
41	밴쿠버	10.0
43	뭄바이	8.3
43	부에노스아이레스	8.3
45	제네바	5.8
46	요하네스버그	4.8
47	멕시코시티	3.3
48	상파울로	1.7
49	암스테르담	0.0

36. 1인당 CO₂ 배출량

순위	도시	점수
1	코펜하겐	100.0
1	스톡홀름	100.0
3	홍콩	100.0
4	제네바	100.0
4	취리히	100.0
6	더블린	99.9
7	헬싱키	99.9
8	싱가포르	99.8
9	비엔나	99.7
10	텔 아비브	99.7
11	브리셀	99.5
12	암스테르담	99.1
13	두바이	98.6
14	부에노스아이레스	98.6
15	바르셀로나	98.2
15	마드리드	98.2
17	카이로	98.2
18	쿠알라룸푸르	98.0
19	방콕	97.9
20	타이페이	97.7
21	파리	97.6
22	런던	97.3
23	밀라노	97.3
24	멜버른	96.9
24	시드니	96.9
26	멕시코시티	96.7
27	이스탄불	96.6
28	요하네스버그	96.5
29	상파울로	96.3
30	토론토	95.3
30	밴쿠버	95.3
32	수원	95.1
32	서울	95.1
34	베를린	94.5
34	프랑크푸르트	94.5
36	자카르타	94.1
37	후쿠오카	91.1
37	오사카	91.1
37	도쿄	91.1
40	모스크바	84.9
41	뭄바이	76.5
42	보스턴	56.7
42	시카고	56.7
42	로스앤젤레스	56.7
42	뉴욕	56.7
42	샌프란시스코	56.7
42	워싱턴DC	56.7
48	상하이	0.0
49	베이징	0.0

37. 공기질

순위	도시	점수
1	멜버른	100.0
2	헬싱키	98.7
2	시드니	98.7
4	밴쿠버	97.7
5	스톡홀름	97.5
6	샌프란시스코	96.4
7	더블린	95.2
8	코펜하겐	91.1
8	보스턴	91.1
10	런던	89.8
11	취리히	89.1
12	마드리드	88.3
13	비엔나	88.1
13	암스테르담	88.1
15	로스앤젤레스	87.1
16	부에노스아이레스	86.8
17	도쿄	86.5
18	브리셀	86.3
19	프랑크푸르트	85.8
19	제네바	85.8
21	파리	85.0
22	모스코바	84.8
23	베를린	84.5
23	타이페이	84.5
25	토론토	83.8
26	오사카	83.5
27	후쿠오카	82.7
28	바르셀로나	82.0
29	뉴욕	81.7
30	워싱턴DC	81.5
31	시카고	78.2
32	싱가포르	77.2
33	상파울로	74.9
34	홍콩	74.6
35	요하네스버그	63.7
35	이스탄불	63.7
37	밀라노	62.9
37	텔 아비브	62.9
39	수원	61.7
40	서울	61.2
41	방콕	56.1
42	멕시코시티	54.6
43	쿠알라룸푸르	53.0
44	상하이	38.3
45	베이징	24.6
46	카이로	3.6
47	두바이	0.5
48	뭄바이	0.0
48	자카르타	0.0

38. 수질

순위	도시	점수
1	수원	100.0
2	비엔나	95.8
3	헬싱키	89.3
4	스톡홀름	87.5
5	마드리드	87.1
6	코펜하겐	83.0
7	취리히	81.6
8	제네바	81.3
9	암스테르담	79.3
10	자카르타	77.2
11	프랑크푸르트	76.9
12	뭄바이	74.3
13	상파울로	70.5
14	베를린	68.4
15	방콕	66.5
16	멕시코시티	62.3
17	텔 아비브	59.8
18	쿠알라룸푸르	57.0
19	밀라노	54.0
20	두바이	53.8
21	로스앤젤레스	53.5
22	더블린	51.4
23	런던	50.3
24	파리	48.2
25	브리셀	45.8
26	시카고	44.4
27	부에노스아이레스	43.4
28	홍콩	42.0
29	바르셀로나	40.5
30	모스코바	39.8
31	워싱턴DC	36.7
32	뉴욕	36.6
33	오사카	33.2
34	이스탄불	29.5
35	샌프란시스코	28.4
36	타이페이	26.4
37	요하네스버그	25.7
38	상하이	20.8
39	토론토	19.6
40	도쿄	19.5
41	보스턴	17.5
42	서울	16.0
43	후쿠오카	12.2
44	베이징	11.9
45	밴쿠버	9.8
46	시드니	8.6
47	멜버른	7.6
48	카이로	2.2
49	싱가포르	0.0

39. 도심부의 녹피상황

순위	도시	점수
1	제네바	100.0
2	헬싱키	99.5
3	스톡홀름	98.4
4	밴쿠버	97.5
5	암스테르담	96.7
6	비엔나	96.6
7	멜버른	94.9
8	베를린	93.8
9	코펜하겐	93.3
10	수원	92.0
11	프랑크푸르트	91.2
12	런던	90.8
13	싱가포르	90.8
14	시드니	89.4
15	마드리드	87.6
16	보스턴	87.4
17	워싱턴DC	85.4
18	더블린	82.6
19	모스크바	80.1
20	토론토	78.4
21	시카고	75.5
22	브리셀	74.7
23	취리히	71.4
24	후쿠오카	70.6
25	부에노스아이레스	68.9
26	샌프란시스코	68.8
27	텔 아비브	68.7
28	뉴욕	64.4
29	서울	62.1
30	도쿄	61.7
31	타이페이	59.6
32	두바이	56.6
33	파리	55.4
34	쿠알라룸푸르	51.3
35	멕시코시티	49.4
36	상하이	49.2
37	요하네스버그	45.9
38	홍콩	45.7
39	바르셀로나	43.8
40	오사카	43.4
41	밀라노	42.8
42	베이징	41.5
43	로스앤젤레스	39.6
44	상파울로	33.2
45	방콕	32.5
46	뭄바이	18.9
47	자카르타	13.9
48	이스탄불	13.3
49	카이로	0.0

40. 국제선 여객 직항편 취항도시 수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파리	81.8
3	프랑크푸르트	78.5
4	암스테르담	72.6
5	두바이	72.0
6	이스탄불	70.1
7	브리셀	66.6
8	밀라노	58.2
9	취리히	51.6
10	비엔나	51.1
11	더블린	48.4
12	코펜하겐	45.9
13	마드리드	42.7
14	바르셀로나	40.8
15	스톡홀름	39.4
16	텔 아비브	38.9
17	토론토	38.3
18	카이로	35.6
19	제네바	34.8
19	뉴욕	34.8
21	수원	33.4
21	싱가포르	33.4
21	서울	33.4
24	방콕	32.3
25	헬싱키	29.9
26	모스크바	27.4
27	도쿄	25.0
28	홍콩	23.9
29	쿠알라룸푸르	22.3
30	로스앤젤레스	16.8
31	타이페이	16.6
31	시카고	16.6
33	밴쿠버	14.9
34	워싱턴DC	14.7
35	요하네스버그	13.9
36	베를린	12.8
36	베이징	12.8
38	멕시코시티	12.5
39	상하이	11.4
39	뭄바이	11.4
41	보스턴	10.6
41	샌프란시스코	10.6
43	시드니	10.1
43	상파울로	10.1
45	자카르타	9.0
46	부에노스아이레스	7.6
47	멜버른	6.8
48	오사카	6.5
49	후쿠오카	0.0

41. 공항 승객 수

순위	도시	점수
1	런던	100.0
2	뉴욕	85.6
3	도쿄	67.2
4	상하이	57.0
5	두바이	51.1
6	이스탄불	44.5
7	로스앤젤레스	43.9
8	시카고	43.2
9	수원	40.2
9	서울	40.2
11	파리	39.3
12	암스테르담	35.9
13	마드리드	35.0
14	프랑크푸르트	34.5
15	싱가포르	34.2
16	모스크바	32.4
17	베이징	30.6
18	방콕	29.9
19	뭄바이	29.8
20	워싱턴DC	29.2
21	바르셀로나	28.8
22	자카르타	28.3
23	멕시코시티	27.9
24	쿠알라룸푸르	27.1
25	샌프란시스코	27.0
26	토론토	25.7
27	밀라노	24.0
28	상파울로	23.6
29	보스턴	23.3
30	홍콩	22.8
31	시드니	22.0
32	타이페이	20.0
33	더블린	17.9
34	멜버른	17.2
35	오사카	16.7
36	비엔나	16.5
37	취리히	16.1
38	코펜하겐	14.8
39	카이로	14.4
40	밴쿠버	13.7
41	베를린	12.6
42	브리셀	12.1
43	스톡홀름	11.8
44	텔 아비브	11.4
45	요하네스버그	9.2
46	제네바	8.6
47	헬싱키	7.9
48	부에노스아이레스	4.9
49	후쿠오카	0.0

42. 철도역 밀도

순위	도시	점수
1	파리	100.0
2	바르셀로나	61.3
3	샌프란시스코	44.5
4	도쿄	42.7
5	서울	41.4
6	보스턴	39.9
7	자카르타	35.4
8	쿠알라룸푸르	26.3
9	워싱턴DC	20.1
10	뉴욕	19.6
11	오사카	19.1
12	스톡홀름	17.2
13	마드리드	16.8
14	부에노스아이레스	16.4
15	텔 아비브	15.7
16	코펜하겐	14.9
17	밴쿠버	14.8
18	타이페이	13.8
19	베를린	11.8
20	프랑크푸르트	11.1
21	요하네스버그	10.2
22	제네바	9.9
23	취리히	9.0
24	싱가포르	8.0
25	뭄바이	7.8
26	시카고	7.7
27	비엔나	7.4
28	런던	7.1
29	브리셀	6.7
30	홍콩	4.6
31	헬싱키	4.2
32	밀라노	4.0
33	멕시코시티	3.9
34	방콕	3.6
35	모스크바	3.6
36	수원	3.4
37	토론토	3.3
38	후쿠오카	3.1
39	로스앤젤레스	2.4
40	상하이	2.3
41	상파울로	1.7
42	암스테르담	1.6
43	이스탄불	0.9
44	베이징	0.6
45	카이로	0.5
46	더블린	0.5
47	멜버른	0.4
48	시드니	0.1
49	두바이	0.0

43. 대중교통 이용률

순위	도시	점수
1	홍콩	100.0
2	싱가포르	93.5
3	도쿄	91.9
4	서울	85.0
5	스톡홀름	82.3
6	부에노스아이레스	78.0
7	런던	74.8
8	취리히	74.2
9	뉴욕	74.1
10	파리	70.1
11	모스코바	67.1
12	상하이	64.6
13	비엔나	62.1
14	밀라노	54.5
15	베를린	54.5
16	헬싱키	53.4
17	브리셀	51.9
18	베이징	51.3
19	오사카	50.8
19	타이페이	50.8
21	후쿠오카	50.3
22	이스탄불	46.9
23	시드니	45.0
24	더블린	44.9
25	상파울로	44.5
26	뭄바이	43.4
27	바르셀로나	42.8
28	코펜하겐	39.6
29	프랑크푸르트	39.1
30	토론토	38.8
31	멜버른	36.7
32	마드리드	35.4
33	제네바	34.6
34	카이로	33.3
35	수원	32.1
35	시카고	32.1
37	밴쿠버	30.5
38	자카르타	28.9
38	샌프란시스코	28.9
40	멕시코시티	26.1
41	암스테르담	25.7
42	텔 아비브	24.3
43	방콕	24.0
43	워싱턴DC	24.0
45	보스턴	22.7
46	쿠알라룸푸르	16.3
47	두바이	15.3
48	로스앤젤레스	4.0
49	요하네스버그	0.0

44. 공항까지의 거리

순위	도시	점수
1	제네바	100.0
1	후쿠오카	100.0
3	취리히	98.1
3	보스턴	98.1
5	코펜하겐	90.4
6	프랑크푸르트	88.5
6	더블린	88.5
8	시드니	86.5
9	두바이	84.6
9	샌프란시스코	84.6
11	비엔나	82.7
12	바르셀로나	80.8
12	싱가포르	80.8
12	시카고	80.8
15	멕시코시티	76.9
16	암스테르담	75.0
17	헬싱키	73.1
17	마드리드	73.1
17	멜버른	73.1
17	밴쿠버	73.1
21	스톡홀름	69.2
21	카이로	69.2
21	요하네스버그	69.2
21	토론토	69.2
25	홍콩	65.4
26	타이페이	63.5
27	브리셀	61.5
27	상파울로	61.5
29	도쿄	59.6
30	서울	57.7
31	뉴욕	55.8
32	베를린	48.1
32	뭄바이	48.1
32	방콕	48.1
32	로스앤젤레스	48.1
36	텔 아비브	46.2
37	파리	44.2
38	밀라노	42.3
38	워싱턴DC	42.3
40	베이징	38.5
40	부에노스아이레스	38.5
42	상하이	34.6
43	이스탄불	32.7
44	런던	28.8
44	오사카	28.8
44	쿠알라룸푸르	28.8
47	모스코바	23.1
48	자카르타	19.2
49	수원	0.0

45. 통근시간

순위	도시	점수
1	비엔나	100.0
2	프랑크푸르트	97.3
3	암스테르담	95.8
4	헬싱키	92.3
5	마드리드	86.1
6	오사카	84.8
7	코펜하겐	84.2
8	바르셀로나	77.5
9	제네바	69.5
10	베를린	67.6
11	스톡홀름	66.5
12	타이페이	63.5
13	텔 아비브	61.9
14	밀라노	60.8
15	두바이	59.8
16	밴쿠버	58.9
17	브리셀	58.6
18	취리히	54.9
19	후쿠오카	54.7
20	더블린	47.8
21	싱가포르	47.6
22	요하네스버그	47.2
23	수원	46.5
24	워싱턴DC	46.0
25	파리	45.7
26	쿠알라룸푸르	44.8
27	시카고	44.2
28	홍콩	44.2
28	멜버른	44.2
30	서울	43.0
31	도쿄	41.2
32	시드니	39.3
33	베이징	39.0
34	뉴욕	39.0
35	보스턴	36.5
36	토론토	35.9
37	런던	35.5
38	방콕	33.9
39	상하이	30.7
40	샌프란시스코	21.9
41	부에노스아이레스	21.5
42	카이로	21.0
43	모스크바	19.7
44	상파울로	18.9
45	이스탄불	16.6
46	멕시코시티	12.7
47	자카르타	11.6
48	뭄바이	6.4
49	로스앤젤레스	0.0

46. 평균주행속도

순위	도시	점수
1	두바이	100.0
2	카이로	75.0
3	홍콩	70.0
3	싱가포르	70.0
3	로스앤젤레스	70.0
6	비엔나	65.0
6	쿠알라룸푸르	65.0
8	헬싱키	60.0
8	요하네스버그	60.0
10	프랑크푸르트	55.0
10	스톡홀름	55.0
10	시카고	55.0
13	모스크바	50.0
13	오사카	50.0
13	보스턴	50.0
13	샌프란시스코	50.0
17	베를린	45.0
17	마드리드	45.0
19	서울	40.5
20	바르셀로나	40.0
20	취리히	40.0
20	뭄바이	40.0
20	타이페이	40.0
20	방콕	40.0
20	멜버른	40.0
20	시드니	40.0
20	워싱턴DC	40.0
28	수원	37.3
29	코펜하겐	35.0
29	제네바	35.0
29	텔 아비브	35.0
29	밴쿠버	35.0
29	부에노스아이레스	35.0
34	암스테르담	30.0
34	자카르타	30.0
34	도쿄	30.0
34	상파울로	30.0
34	후쿠오카	30.0
39	밀라노	25.0
39	상하이	25.0
39	뉴욕	25.0
42	브리셀	15.0
42	베이징	15.0
42	토론토	15.0
42	멕시코시티	15.0
46	이스탄불	10.0
47	더블린	5.0
48	파리	0.0
48	런던	0.0

47. 택시, 자전거 이용 편의성

순위	도시	점수
1	취리히	100.0
2	후쿠오카	87.7
3	제네바	81.7
4	런던	77.1
5	시드니	70.4
6	밀라노	68.8
7	오사카	68.0
8	베를린	67.0
9	스톡홀름	63.5
10	프랑크푸르트	61.2
11	파리	61.1
12	더블린	60.0
13	브리셀	59.3
14	도쿄	59.1
15	코펜하겐	58.3
16	암스테르담	55.4
17	워싱턴DC	52.5
18	뉴욕	50.5
19	샌프란시스코	44.8
20	헬싱키	43.9
20	바르셀로나	43.9
22	멜버른	42.6
23	비엔나	40.1
24	로스앤젤레스	34.9
25	보스턴	34.6
26	토론토	32.5
27	마드리드	32.4
28	밴쿠버	31.3
29	홍콩	30.9
30	시카고	30.5
31	싱가포르	19.9
32	요하네스버그	18.7
33	방콕	18.6
34	쿠알라룸푸르	18.4
35	두바이	17.8
36	타이페이	17.4
37	서울	16.6
38	수원	16.2
39	텔 아비브	16.0
40	부에노스아이레스	11.6
41	상파울로	11.1
42	모스코바	10.4
43	상하이	9.5
44	이스탄불	7.5
45	베이징	6.8
46	멕시코시티	3.4
47	자카르타	2.2
48	뭄바이	1.4
49	카이로	0.0

참고문헌

국문자료

모리기념재단. (2024). 2023 Global Power City Index.

변미리, 박민진, 김혜란. (2013).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분석. 서울연구원 정책보고서.

변미리, 이민규, 박민진, 박은현. (2021). 도시경쟁력 진단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정책보고서.

신문기사 / 웹페이지 / 통계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월간정세 이슈. <https://www.kiep.go.kr>

서울경제. (2024). 더블린의 '법인세 혁명'... 글로벌 기업 1800개 몰렸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06LZH3J>

US news and world report.(2024). Best States Rankings.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rankings>

연구책임자 김도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미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가형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김재이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기윤환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김목한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부교수)
박종현 (2GOOD 대표)
변미리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오주택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
최재용 (화성시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위원)

SRI-전략-2024-14

GPCI를 통해 본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

Diagnosis of Suwon City's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using Global Power City Index

발행인 김성진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4년 11월 30일

발행 2024년 11월 30일

ISBN 979-11-6819-172-3(93330)

© 2024 수원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김도훈. 2024. 「GPCI를 통해 본 수원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